

限界革命의 經濟學說史의 一研究

姜 命 圭

<目 次>

- | | |
|---------------------|---------------------|
| I. 問題의 所在 | IV. 限界革命과 經濟學의 構造變化 |
| II. 限界主義概念의 文獻史의 考察 | V. 結論—方法論의 省察 |
| III. 限界革命의 性格과 그 主役 | |

I. 問題의 所在

Adam Smith에서 비롯하여 John Maynard Keynes와 그 以後에까지 이르는 經濟分析의 「正統的 連續性」의 存在는 經濟學의 科學性을, 그것도 모든 社會科學中에서 가장 科學的 임을 立證하는 論據로 흔히 引用되어 왔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經濟學을 包含하는 科學의 歷史가 間歇的인 不連續性과 危機 또는 革命에 의해서 點綴되어 왔다는 것이 널리 認識되기에 이르고 이같은 科學의 革命性이 새로히 問題視되고 있는 此際에 經濟學史上의 이른바 「限界革命」을 어떻게 解釋하여야 되는가는 興味있는 課題가 아닐 수 없다.⁽¹⁾

周知하는 바와 같이 1870年代에 相異한 數個國에서 一團의 天才의 革新者들에 의하여 經濟學上 一聯의 劃期的인 思想이 開陳되었는데, 이는 歷史的으로 볼 때 닥아오는 世紀에 있어서 經濟科學의 進路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限界革命은 經濟學의 發展史上 뚜렷이 確認되는 「連續性」에 하나의 例外가 될 만큼 革命的인 現象이었던 가 하는 疑問이 發生한다. 그리고 初期의 限界主義者들은 그들을 한가지 集團으로 看做하기에 矛盾이 없을 만큼 그 目的이 統一되고 그 業績이 比較可能한 것이었는지? 萬一 그들의 著書를 先行者들이나 後繼者들의 著述과 比較한다면 그들의 功績은 日常 그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만큼 劃期的이고 刷新한 價値를 保有한다고 볼 수 있겠는지? 이같은 疑問들

(1)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962; M. Bronfenbrenner, "The 'Structure of Revolutions' in Economic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71, pp. 136-151; Kunin and Weaver, "O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in Econom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1, pp. 391-397.

(2) 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1871 (ed. R.D.C. Black, Pelican Classics, 1970); C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 L. Walras, *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Ou Théorie de la Richesse Sociale*, 1874 (Elements of Pure Economics or the Theory of Social Wealth, Translated by W. Jaffé, 1954).

은 要件에 限界革命은 存在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提起하는 것이며, 萬一 存在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評價하여야 되는가의 疑問도 生게 한다.

이 論文에서는 이러한 問題들을 解明하는 네 焦點을 두어 限界革命의 生成 및 展開過程을 檢證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限界革命의 先驅者와 擔當主役 그리고 그 後繼者들에 의한 限界主義思想의 始源, 定立 및 普及過程을 經濟學說史的 視角에서 吟味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³⁾ 그러면 本章에서는 歷史的 現象으로서의 限界革命을 새로운 視角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問題點들이 摘出되는가 하는 이른바 問題의 所在을 파악하는 데 焦點을 두고자 한다.

「限界革命」이란 用語는 보통 1870年代初에 Stanley Jevons, Carl Menger 및 Léon Walras의 3인이, 새로운 종류의 靜態的 微視經濟學의 礎石으로서 限界効用遞減의 原理를 거의 同時의이면서도 各己 완전히 獨自的으로 發見하게 된 經緯와 關聯해서 쓰인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經濟思想史上的 「複合的 發見」(multiple discoveries)에 관한 最善의 事例를 이루게 됨으로서 그 自體가 一種의 歷史的 說明을 要하는 素材를 提供하고 있다. 이 3人の 學者는 거의 同時代에 活躍했으면서도 英國의 Manchester와 오스트리아의 Wien 그리고 스위스의 Lausanne와 같이 그 知的 風土가 判異한 背景에서 그처럼 同一한 着想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偶然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며, 이것은 畢竟 어떤 共通의 原因에 의해 惹起된 것이라고 보고 知性史的 課題는 바로 이 點을 밝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 疑問에 관해서 標準的인 說明이 定立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問題인 것이다.⁽⁴⁾

우선 1860年代에 있어서 英國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經濟發展의 水準이 判異하게 달랐

(3) 限界革命에 관한 部分的인 論及은 經濟學史에 관한 어느 著書에서나 찾아볼 수 있겠으나 이를 Adam Smith에서 Keynes 革命에 이르는 途程에 있어 經濟思想의 一大方向轉換을 惹起시킨 契機로서 綜合的·全體的 視野에서 다룬 著述은 意外로 매우 稀貴하다. 人體로 限界革命을 單純한 事件으로 가볍게 處理하고는 第二世代 限界主義者들의 學說을 體系化하지 않은 데 羅列的으로 說明함에 그치는 경우가 許多하여, 都是 限界革命이 갖는 學說史的 比重은 헤아리기 어려운 狀態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特別 限界革命過程 自體에 관한 徹底한 究明을 通하여 追後 發生하는 Keynes 革命을 시킨 然後에도 現代經濟理論의 兩大支柱의 하나로서 連綿히 살아있는 微視經濟學과 어떻게 關聯되는지를 透視할 수 있는 視角에서의 研究不足을 痛感하는 바이다. 1971年 8월에 伊太利 Bellagio에서 열린 經濟學史關係의 國際學會에서 The Marginal Revolution in Economics를 主題로 삼게 된 것도 偶然이 아닌 이와 같은 問題意識에서 出發된 것으로서, Stanley Jevons가 꼭 100年前인 1871년에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를 出刊하고 伊太利旅行에서 當地를 訪問한 것을 記念한 行事였다. 이 學會의 研究報告成果는 經濟學史分野의 唯一한 學術誌인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4, No. 2, Fall 1972의 全號를 割愛하여 收錄하고 있는데, 이 方面의 學者가 大部分 動員되고 있어 學界의 潮流를 展望하는 데 많은 參考가 된다.

(4)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2d ed. 1968. pp. 308-317; M. Blaug, "Was There a Marginal Revolu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269.

기 때문에 生産構造上의 變化나 社會階級間的 關係變化에 依據하는 모든 Marx 主義의 解釋은 그 說得力이 弱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英國哲學의 功利主義的·經驗主義的 傳統과 오스트리아의 新칸트哲學의 風土와 프랑스의 Descartes 哲學의 風土는 經濟學上의 効用革命을 誘發할 수 있는 何等의 共通的 要素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經濟政策上의 문제를 본다면 實上 古典學派의 思想의 連續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Jevons와 Walras가 政策問題를 叙述할 경우에는 實際문제의 政策勸告와 그들의 價値理論과는 거의 아무런 關聯이 없었다. 資本主義體制의 이론나 擁護論의 必要性에 起因되었다는 主張도 實質적으로 限界効用論과는 關聯이 稀薄하다. 그리고 代替되는 새로운 經濟模型의 探究를 刺戟할만한 知的 危機(intellectual crisis)도 1860年代의 英國이나 大陸 그 어느 쪽에도 없었으며, 사실 英國에서 뿐만 아니라 獨逸에서도 1860年 以後 繼續적으로 信奉者를 얻게 된 그러한 代替的인 模型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歷史主義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限界革命에 관한 古典的 解釋이라 할 수 있는 唯物論的 說明, 哲學的 背景論, 政策思想論, 體制擁護論, 知性危機論 등 모두가 妥當성이 疑心스럽게 된다. 要件에 限界効用思想의 同時發見은 하나의 歷史的 解釋을 要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既存의 解釋中 어느 하나도 滿足스런 것이 없다고 하겠다. 限界革命에 관한 論議에서 흔히 混同되기 쉬운 것은 첫째 限界革命의 起源문제와 둘째는 이의 窮極的인 勝利라는 두 가지 全然 다른 側面에 관한 問題를 分揀지 못하는 데서 緣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以下에서 새로운 視角에서의 問題提起를 試圖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먼 처음 提起되는 問題는 Jevons, Menger 및 Walras에 의한 限界効用概念의 發見이 「複合的」인 것이었느냐 不然이면 「單獨的」인 현상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前者의 複合的 現象이었다고 假定할 때는 一般的으로, 그 學問의 知識蓄積이 一定水準에 達할 때 設使 文化圈과 社會構造가 相異하다 하더라도 거의 同時的인 發見이 內發的으로 不可避한 現象이므로 學問이 成熟段階에 達하면 加一層의 跳躍을 向한 知識探求의 累積的·連續的 過程이 蓄積되기 때문에 一定段階에 새로운 思想 誕生의 豫測可能性이 높아진다는 것을 意味한다.⁽⁵⁾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1860年代의 經濟科學은 限界効用原理의 窮極的 出現을 豫見할만한 狀態에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Jevons, Menger 및 Walras가 각 各은 時點에 發見한 것도 何等 奇異한 現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에 관한 對答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主張을 提示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1860年代에 하나의 經濟科學에 있어서 全世界에 걸쳐 經濟學者들이 同一한 論文을 研究하고 同一한 學術誌를 읽으며 類似한 問題의 究明에 同一한 分析道具를 驅使하는 같은 遺産의 相續者였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는 主張이다. 1870年代의 英, 獨, 佛, 오스트

(5) M. Blaug, *ibid.*, pp. 270-271.

(6) T.W. Hutchison, *A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29*, Chaps. 1, 8, 12, and 16.

리 및 美國에 있어서의 經濟思想의 實態에 관한 Hutchison의 所論에 의하면 그 時代에 經濟學의 理論模型이 3~4個는 이너라도 적어도 2個는 있었다.⁽⁶⁾ Jevons는 Mill의 獨舞臺에 對抗하고 있었고, 獨逸經濟學者들은 일찍부터 「Smith 主義」와 一切의 Ricardo流 學說을 拒否하고 있었으며, 한편 프랑스의 經濟學者들은 英國古典派經濟學의 分析的 特色에도 그리고 獨逸歷史學派의 아우성에도 關心을 모인 바가 없었다. 189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英國 經濟學의 偏狹性과 相異한 國家들의 經濟學者 사이의 通信의 缺如는⁽⁷⁾ 指導的인 經濟學藏書家인 Jevons가 1882년에 死亡할 때까지 Menger라는 사람이 後日 Jevons 自身の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와 類似한 思想의 經濟學書를 著述한 것을 몰랐던 사실에서 가장 劇的으로 나타난다.

물론 經濟科學 그 自體가 19世紀 中葉쯤에는 限界効用原理의 發見이 不可避한 方向으로 進展되고 있었다는 論議는 單純히 事後的 合理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確實히 1860年代의 英國古典派經濟學에 있어서 보다 큰 可能性은 Ricardo流 地代理論에서의 限界概念을 모든 生産要因에게서 一般化하거나 즉 要素價格形成의 限界生産力說을 說破하거나, 아니면 Ricardo流 價値理論을 線型投入產出分析和 같은 것으로 더 精巧化하거나 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前者의 方向으로의 發展은 뒤늦게 1890年代에야 겨우 限界効用學派를 繼承한 者들에 의해서 實現되었고 後者は 20世紀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進展方向이었다.

세째로, 그러던 여기서 立場을 바꾸어 위의 論議와 反對로, 限界効用思想은 1870年代에 처음으로 發見된 것이 아니라 「再發見」된 것이라고 하는 主張은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Lloyd와 Longfield가 이미 1834년에 總効用과 限界効用을 區分한 바 있고 이는 곧 Senior에 의해 繼承되었기 때문에 萬一 Jevons, Menger, Walras가 複合的 發見者가 아니라고 한다면 Lloyd, Longfield, Senior가 이에 該當될 것이다.⁽⁸⁾ 그러나 이들 後者の 3人은 限界効用概念의 實質的 使用은 別로 하지 않았던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모든 새로운 것이란 그것을 發見한 이가 아닌 어느 누군가에 의해 이미 指摘되었던 것이다」라고 한 Whitehead(1860~1947, 英國의 數學·哲學者)의 格言을 說明해 줄 뿐이다. 한편 이러한 反論이 Dupuit(1844), Gossen(1854), Jennings(1855)에는 該當되지 않는데 이들은 모두 限界効用原理를 再發見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消費者行爲를 分析하는 데 應用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不拘하고 Jevons, Menger, Walras에게 適用되었던 同一한 主張이 Dupuit, Gossen, Jennings에는 該當되지 않는다. 이들은 거의 같은 時期에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을 發見은

(7) T.W. Hutchison, 'The "Marginal Revolution" and the Decline and Fall of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442-468.

(8) 그들의 主著는 다음과 같다. W.F.Lloyd, "A lecture on the notion of value as distinguishable not only from utility, but also from value in exchange," 1834(note). S.M. Longfield,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1834. N.W. Senior, *An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1836.

했지만 全然 相異한 知的 壓力에 대한 反應이었고 類似한 經濟思想의 相續財產의 惠澤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⁹⁾

위에서 우리는 1834년에서 1874년 사이에 限界効用概念을 案出한 經濟學者 3變의 3人組 즉 모두 9人의 學者를 指摘했는데 이중에서 4人만이 이 原理가 새로운 經濟學의 源泉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現象을 限界効用의 複合的 發見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單獨의 現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限界効用原理가 1834년에서 1874년 사이에 다른 나라들에서 獨自의 再三, 再四 發見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全世界에 걸쳐 經濟學者들이 共通으로 保有한 經濟思想의 核心이 存在해 왔고 그 內發的 論理가 급기야는 効用理論의 分析道具로서 消費者 需要를 探求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라고 主張할 수도 있겠다. 한편 古典派經濟學에 需要理論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價格決定理論은 早晚間 그 不均齊가 누군가에 의하여 是正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Cournot의 事例가 나타나듯이 効用概念의 導入이 없어도 이러한 缺陷은 是正이 可能했었을 것이나,⁽¹⁰⁾ 그리고 限界効用概念은 19世紀 全般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었고 每十年 단위로 更新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¹¹⁾ 그러나 이것은 限界効用經濟學의 誕生이 必然的이었다는 主張과는 距離가 멀다. 이는 마치 一部 스웨덴 經濟學者들이 이미 1920年代에 Robertson이나 Keynes와 같은 思考를 해 왔다고 해서 1930年代의 巨視經濟學出現이 必然的이었다고 主張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우리는 問題의 摸索을 이렇게도 展開할 수 있다. 즉 Howey가 말하는 것처럼 限界革命은 產業革命처럼 그것을 經驗한 사람들에게는 認識되지 않은 채 進行된 것이라고. 限界革命이 1871년에 開始되고 이때 Jevons, Menger 및 Walras의 三者가 基本的으로 同一한 思想을 披瀝했다고 하는 오늘날의 標準的인 說明이 사실은 1880年代 後期에 비로소 闡明되었던 것이며 二十世紀에 넘어오기까지도 經濟學史上的 正規的인 題目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¹²⁾ 限界効用價值論의 受容이 이처럼 遲滯된 사실은 그 歷史에 관한 合理的 解釋의 受容이 늦어진 것과 더불어, 아마도 그것이 古典派經濟學으로부터는 論理上 發生될 수 없는 정말로 破格的인 思想임을 보여 주는 證據일 수도 있겠다. 換言하면 이는 19世紀의 最終 25年間이야말로 經濟學者들이 그 研究指針이 된 새로운 paradigm을 採擇한 經濟學史上的 革命的 局面의 하나였음을 示唆한다.

(9) M. Blaug, "Was There a Marginal Revolution?," *op. cit.*, pp.272-273.

(10) Augustin Cournot, *Researches into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the Theory of Wealth*, 1838(Transl. by N.T. Bacon, 1960), pp.18-55. 周知하는 바와 같이 限界收入과 限界生産費를 均等化시키는 獨占企業의 利潤極大點이 「Cournot의 點」이며, 社會의 需要量을 直接 價格의 函數로 보아 主觀價值說을 取하지 않고도 價格 및 需要理論을 展開했다.

(11) 즉 Lloyd와 Longfield가 1834年, Dupu이 1844年, Gossen이 1854年, Jennings가 1855年, Jevons가 1862年(그가 自己理論을 처음으로 公開한 年度), Menger가 1871年, Walras는 1874年에 發表했다.

(12) Howey, *The Rise of the Marginal Utility School*, 1870-1889, 1960, Chaps. 26 and 27.

그런데 不幸히도 Jevons, Menger 및 Walras가 提示한 새 paradigm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供給보다 需要側面 또는 生産費보다 消費者効用の 強調인가? (13) 過去の 客觀的 勞動費用說을 補充하기 위한 主觀的 價値論의 野心的 提示에 있는가? (14) 또는 오히려, 企業家가 아니라 消費者를 合理的 行動의 縮圖로 삼음으로써 極大原理를 企業에서 家計에까지 擴張함에 있는가? (15) 消費者均衡條件으로서 限界効用の 價格比例說에 秘藏된 等限界原理인가? (16) 혹은 Schumpeter가 흔히 말한 것처럼 一般均衡分析의 發見에 있는가? (17) 또는 끝으로 그것이 단순히 모든 經濟學的 推論의 原型으로서 制約條件下의 極大化에 관한 最初의 認識인가? 그 어느 見解를 取하든 Jevons, Menger 및 Walras가 事實上 同一한 paradigm을 가졌다고 하는 主張은 維持하기 어렵다.

가령 Menger는 Jevons와 Walras처럼 自身이 革命的이라는 自意識이 없었다. 그는 數學的 形式化에 의한 限界의 問題의 純粹論理를 避렸고 다만 「Gossen의 法則」을 따로 表現한 데 不過했다. 한편 그는 費用價値說을 拒否했지만 他方으로는 모든 價格決定論에 懷疑의이고 市場價格을 둘러싼 不連續性, 不確實性, 去來交涉 같은 것을 強調했다. (18) 바꾸어 말하면 Jevons와 Walras를 Menger보다는 Gossen과 묶는 것이 훨씬 妥當할 것 같으며, 一般적으로 Menger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唯一한 理由는 그 이름이 그의 弟子인 Wieser와 Böhm-Bawerk에 의해 계속 引用되었고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經濟學이야말로 卓越한 成果를 냈다는 點을 說得하여야 된 立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同時에 Jevons와 Walras 사이에 共通點을 찾는다든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前者가 嚴密히 公式化된 物物交換理論, 「Gossen의 法則」의 數學的 表現, 短期的 勞動供給表의 理論, 좀 기창하지만 充足되지 못한 新種効用經濟學의 展望 등을 가졌는데 比하여 後者는, 實際로 効用表로부터 需要曲線을 導出했고 마찬가지로 限界生産力의 考察로부터 供給曲線을 導出하는 데 努力했으며 市場價格形成의 理論을 確立하고 그리고 이 모든 要素를 一般均衡의 테두리 안에 짜넣은 것이다.

以上の 모든 問題는 이들 限界革命의 始發者들이 기치게 된 奇異한 運命으로 因해서 解答이 더 어렵게 된다. 終局的으로 볼 때 限界効用に 관해서 重要的 것은 「名詞보다도 形容詞」라는 사실이 立證되었다. (19) 効用理論은 漸次 그 모든 內容을 剝奪당하여 結局은 단

(13) A.W. Coats,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the Marginal Revolution of the 1870'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cit., pp.303-324.

(14) R.L. Meek, "Marginalism and Marx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bid., pp.499-511.

(15) *Ibid.*, Adam Smith의 職業選擇理論이 분명히 個別勞動者를 極大行動者로 다룬 것은 注目할 價値가 있다. 合理的 行動의 範圍를 家計에까지 擴大한 着想에는 何等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이것을 消費者行爲에게까지 擴大한 點은 새로운 것이다.

(16)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pp.301-2.

(17)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918.

(18) E. Streissler, "To What Extent Was the Austrian School Marginali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cit., pp.426-441. 本論文 III章 4節 參照.

(19) Hutchison,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p.16.

순히 「顯示的 選好」(revealed preference)라는 해석으로 歸結된 셈이며 費用價值理論은 誤謬는 아니지만 特殊한 경우에 妥當하다는 主張과 一般均衡論은 實質的으로 사라졌다가 겨우 1930年代에 Hicks와 Samuelson에 의해서 「萬人의 經濟學」으로 再活하게 되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1871년에 누구인들 限界効用經濟學이 Parco의 厚生經濟學을 거쳐 費用·收益分析(cost-benefit analysis)과 動態的 programming에까지 이르는 迂餘曲折의 途程을 거치리라고 豫見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련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限界革命」과 「限界効用革命」을 論한다는 것은 經濟的 推論의 paradigm으로서의 限界主義 또는 限界概念이 現代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分析의 基本的 武器를 提供해 주는 源流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二

自己確證的인 觀點으로서의 paradigm이란 用語는 그것이 解答을 내려 주는 만큼의 수많은 疑問을 提起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²⁰⁾ 萬一 우리가 이를 「分析의 努力을 위한 本源的 資料를 供給해 주는 前分析的認識行爲」(preanalytic cognitive act)라고 하는 Schumpeter의 vision과 大體로 同一하다고 하면 19世紀의 最終 25년이야말로 經濟學者들이 그 研究課題에 새로운 觀點을 開發시킨 時期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vision을 簡單히 表現하면 生産要素供給이 固定된 條件下에서 價格形成과 資源配分이 唯一한 經濟問題가 되고 生産資源의 時間을 통한 質的·量的 變化에 관한 모든 問題는 論外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變轉을, 적어도 2,30년이 걸렸고 어떤 意味로는 아직도 進行中인 事實에도 不拘하고 「革命的 局面」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의 與否는 表現上의 問題에 속한다. Jevons, Menger 및 Walras는 經濟問題를 이처럼 새롭게 보는 方法의 創案者가 아니라, 經濟學의 重點移行段階의 初期에 있었던 主要指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거의 同時的으로 出版을 했다는 것은 純全한 偶然의 一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問題에 대한 着想時期는 事實上 10年 以上이나 隔差가 나기 때문이다. 傳記的 資料를 모아야 비로소 Jevons와 Walras(및 Gossen)이 自己 思想의 嶄新性을 各自가 主張한 데 反하여, 왜 Menger(와 Lloyd, Longfield 및 Jenkin)는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20) Kuhn의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는 paradigm에 관해서 적어도 21個나 되는 相異한 定義가 發見되니 그중에는 「共通的으로 認識된 科學의 成果」에서 시작되어 「一般的인 形而上學的 觀點」이란 定義에 이르기까지 各樣各色이다. Coats는 經濟學이 「그 全歷史를 통하여 單一의 paradigm인 ——市場機構에 의한 經濟均衡의 理論에 의해서 支配되어 왔다」고 主張했으나 이 用語에 관한 그 自身의 定義는 分明치 않다. A.W. Coats, "Is there a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Kyklos* 22(1969), p. 292. 이와 마찬가지로 Bronfenbrenner는 paradigm을 처음에 「思考 및 言語의 樣式 또는 裝置」라고 定義해 놓고 뒤에 가서는 需要供給線의 交叉, 交換方程式 및 Hicks의 IS-LM 曲線과 같은 事例를 提示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樣式이나 裝置보다는 훨씬 具體的인 概念이다. M. Bronfenbrenner, "The 'Structure of Revolution' in Economic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 (Spring 1971), p. 150.

理由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1870年代에 限界効用革命의 「最初の 起源」을 찾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즉 그것은 限界「効用」革命도 아니고 突發的인 變化도 아니라 在來의 思想이 決定的으로 拒否된 일이 결코 없는 漸進的 轉換에 不過했으며 그것은 1870年代에 처음으로 發生한 것이 아니었다는 主張도 可能한 것이다.⁽²¹⁾

三

그런데 Jevons, Menger 및 Walras 가 모두 3年 사이에 그 著作을 發刊했다는 事實은 한편 偶然의 一致이기는 해도 매우 意味있는 偶然이며 그것은 限界効用經濟學의 受容을 促進하거나 적어도 이의 受容可能性을 크게 增大시켰다. 그러나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 新經濟學은 여전히 적어도 一世代 동안은 크게 進展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3人의 創始者 모두가 鞏固한 名聲을 가진 經濟學者여서 自己들의 主張을 說得力있게 내세웠고 따라서 그 思想의 普及에 努力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그렇다면 說明해야 될 歷史的 課題는 限界概念이 効用に 應用되었던 「時點」이 아니라 오히려 限界効用經濟學의 勝利가 「遲延」된 理由가 무엇인가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歷史家를, 科學者가 豫測을 하는 것과 本質的으로 같은 方法으로 「懷古」하는 것이라고 固執하지 않는 限 換言하면 歷史的 解釋은 어떤 一般的 「說明法則」에 立脚한 反事實的 假說의 形態를 取하는 경우에만 妥當性이 있다고 固執하지 않는 限 어려운 問題는 아니다. 歷史家가 하는 일은, 說明보다는 究明을 함으로써 過去의 事件들을 理解可能케 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原因이라든가 또는 단순히 B와 關聯되었다든가 하는 등속의 確定的이고 硬直的인 法則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限界効用經濟學의 그 起源과 區分된 「普及」의 遲延이 大體로 內在的인 影響의 結果인지 外在的인 影響의 結果인지에 관해서 論한다는 것은 無意味하다.

經濟學이 그 獨自의 學會組織과 學術誌를 保有하는 職業的 學問으로 登場하기 시작하여 지난날의 非專門的인 아마추어가 처음으로 economist라는 名稱 아래 生計를 버는 專門家에게 밀려난 것이 바로 이 時期였던 것이다. 專門的 學問이란 必然的으로 그 自體의 起動力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設使 外在的 事件의 衝擊이 加해진다 해도 그 外皮에 머물지 問題의 核心에까지는 達하지 못한다.⁽²²⁾ 그러나 1870年이나 1880年 또는 1890년까지도 經濟學은 核心과 外皮가 아직도 깊이 얽혀져 있었다. 그러므로 Stigler가 그렇듯이 經濟學에서 効用理論의 採擇이 遲延된 理由는 經濟學이 漸次 學術的으로 됨에 따라 새로운 價値

(21) Blaug, "Was There a Marginal Revolu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277.

(22) 이에 관해서는 J.J. Spengler, "Exogenous and Endogenous Influences in the Formation of Post-1870 Economic Thought: A Sociology of Knowledge Approach," *Events, Ideology, and Economic Theory*, ed. R.V. Eagly, 1968, pp. 159-187.

가 發生하는 過程에 依해서만 說明可能하다고 하는 主張도 問題가 있다.⁽²³⁾ 왜냐하면 이는 經濟學이 19世紀의 最終 四半世紀에 專門化된 原因이 무엇이며, 專門化된 經濟科學이 效用理論의 眞理를 너무나 自명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拒逆이 不可能하게 된 理由가 무엇인가 하는 疑問을 다시금 提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單一理由에 의한 說明은 어느 하나도 限界革命的의 걸어진 惡戰苦鬪의 原因을 解明할 수 없는 것 같다. 흔히 1870年代 및 1880年代의 論文들을 읽을 때 받는 強烈的인 印象은 勞動價値說, 貨幣數量說, Ricardo의 差額地代說 등등과 같은 古典派經濟學의 基本敎義를 指向하는 態度들의 어지러운 多樣性이다. Jevons, Menger 및 Walras가 各己 強調한 것은 最少限의 假說로부터 完全한 一般의 結論을 얻으려는 目的으로 歷史的·制度的 要因들로부터 抽象化를 期하는 方法論的 利點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은 當時의 大部分의 經濟學者들에게 呼訴力이 強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如前히 嚴正性(rigor)보다는 關聯性(relevance)을 더 重視했기 때문이다. 應用的인 問題에 관한 限 限界效用은 大體로 關聯性이 없었고 1880年代의 決定的 時期에 大部分의 經濟學者들을 괴롭힌 方法論上의 問題는 歸納法對 演繹法 즉 事實收集法과 「모델빌딩」法 사이의 對立이었던 것이다. 歷史主義的 先入觀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限界效用經濟學이 英國의 古典派經濟學과 더불어 過度히 抽象的이고 人間行爲에 대한 있을 수 없는 假定에 立脚한 것이라고 하여 拒否되었다. Jevons와 Walras가 數學的 言語로 그 理論을 表現한 事實은 그들의 思想에 대한 反對를 더 加熱시킨 것이 分明하고, 社會的 現象을 數學的 方程式으로 還元한다는 着想은 19世紀의 讀者들에게는 아직도 生疎하고 根本的인 混亂을 가져올만한 것이었다. 主觀的 價値理論을 궁극적으로 社會的·政治的 現象과 有關하게 만든 것은 1880年代 및 1890年代의 Marx主義와 Fabianism의 擡頭였다. 新經濟學이 Marx와 Henry George에 對抗하는 效果的인 知的武器를 供給하기 시작하자 價値理論이 事實上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見解는 維持하기가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1890年代에 限界效用에 限界生産力이 附加되자 新經濟學은 分配의 問題에 關聯되므로 말미암아 Jevons, Menger 및 Walras의 思想과 Smith, Ricardo 및 Mill의 思想 사이의 論理上 對立을 否認할 수 없게 되었다. 1891년에 Marshall은 限界效用經濟學과 古典派經濟學 사이의 調和를 꾀했는데 이것이 새 思想으로 하여금 보다 넓은 體系 속에 包攝可能함을 보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後期段階에 이르러서조차 Marshall流의 統合이 大陸에서는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며 20世紀의 最終 20年間을 特徵지었던 3個의 錯綜된 「革命」 즉 英美의 限界效用革命과 오스트리아의 主觀主義革命 그리고 스위스, 프랑스 및 伊太利의 一般均衡革命은 20世紀에 까지 繼續되었던 것이다.

(23) G.J. Stigler, "The Adoption of the Marginal Utility Theor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571-586.

1871年이란 해는 그로부터 이 모든 革命이 開始된 時期로 把握하는 것이 便利할 것 같다. 그러나 이 時期는 經濟思想史上 다른 어떤 時期보다 格別한 注目を 要하는 時期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古典派의 政治經濟學이 1776년에 시작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限界効用經濟學도 이를 限界主義, 近代經濟學 또는 그 特色을 表現하는 여러 名稱으로 부르는 間に 어떤 特定時期에 묶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提起된 問題들을 要約하면, 첫째 「限界革命」은 하나의 「事件」이 아니라 「過程」이었으며, 둘째 限界効用に 관한 「複合的」發見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個 以上の 「單獨的」發見들의 時期的 一致에 지나지 않았고, 셋째 限界革命의 成功은 十九世紀 마지막 四半世紀의 經濟學의 「專門化過程」과 密接히 關聯되었던 것이라는 主張이 一旦 成立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主張은 經濟學說史上 慎重한 檢討를 要하는 것으로서, 本論文에서 다루고자 하는 問題를 提起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위의 세 가지 論點인 것이다. 以下에서는 이와 같은 問題意識에 立脚하여 限界革命의 始源과 그 展開過程을 多角度로 檢討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II章에서는 이른바 限界主義思想의 普及過程을 文獻史的으로 概觀해 보기로 한다.

II. 限界主義의 文獻史的 考察

—

本章에서는 經濟學史上 限界主義思想이 어떻게 發端되어 어떤 過程을 거쳐서 經濟學體系 內에 어떻게 定立되어 갔는가를 文獻史的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이처럼 限界主義思想의 이른바 普及過程을 論함에 있어서는 우선 이 思想의 內容을 代辯하는 概念 乃至 用語定立의 過程이 어떻게 展開되었으며 다음에는 研究者의 思想的 次元에서 開陳된 새로운 思想・概念이 經濟學의 教育的 次元에까지 受容되어 一般化되는 過程은 어떻게 進行되었는가를 把握하는 節次를 밝고자 하는 것이다.

限界主義(marginalism)란 用語를 最初로 만들어 낸 것은 John A. Hobson으로서 1914년에 出版된 그의 著書(*Work and Wealth*)에서, 經濟學者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限界効用과 限界生産力의 두 概念을 한꺼번에 表現할 수 있는 語句를 찾아 낼 必要에서 나온 것이다.⁽¹⁾ 다시 말하면 이 最初의 用語는 Hobson이 「限界主義」가 學界에서 勝利를 거두었다는 事實의 廣汎한 是認을 表現한 데서 由來된 것이다. 그는 이 單語를 *Work and Wealth*에서 7回나 썼고 1909년에는 限界分析을 利用한 經濟學者를 限界主義者(marginalist)라고 처음으로 指稱했다.⁽²⁾

(1) John A. Hobson, *Work and Wealth*, 1914, pp.174-75, and 331.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281에서 轉載.

(2) John A. Hobson, *The Industrial System*, 1909, p.114. 亦是 上掲書 p.281에서 轉載.

「限界主義」란 單語는 Hobson의 發明 以來 25年間은 頻繁히 쓰이지 않았다. Hobson의 *Work and Wealth*를 읽는 者의 어느 누구도 「限界主義」란 單語가 新語임을 確認치 못했다. Hobson만이 唯獨 1926년에 發刊한 *Free Thought in the Social Sciences*에서도 「新古典派經濟學의 限界主義」란 項을 設置하여 이 單語의 普及을 持續시키는 데 힘썼다. 그로부터 2年 後에 나온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의 第4版의 index도 Hobson에 관한 參考事項 한군데서만 「限界主義」란 項目이 보인다. 「限界主義」와 「限界主義者」란 單語는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30-35)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³⁾ 1930年代에 限界費用, 限界收入, 限界代替率 및 限界消費性向 등을 經濟分析에 널리 使用하도록 刺戟한 것은 Richard A. Lester가 「限界主義의 諸項目」이 美國의 指導的인 教科書의 折半 乃至 三分之一을 차지하고 있음에 不平을 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⁴⁾ Lester의 이와 같은 不平은 「限界主義」란 單語를 여전히 輕蔑的인 뜻으로 여기는 하지만 經濟學에 再導入하게 된 契機가 된다. 다음 해에 Lester는 「限界主義」를 한 論文의 題目 속에 導入함으로써 이의 名聲을 加一層 높여 주었다.⁽⁵⁾ 한편 Fritz Machlup는 反限界主義者에 대한 最長의 對答을 準備하는데 그 對答의 첫 部分에 이 單語를 採用함으로써 이의 一般의 使用에 同意하게 되었다.⁽⁶⁾

Lester가 1946년에 開始한 限界主義論爭은 1961년에 消滅된다. 그러나 이는 그 論爭上의 討論으로 關心이 높아진 「限界主義」란 單語를 남겨 놓은 셈이 되었다. 가령 「限界主義」의 意味는 美國 經濟學會 發刊의 *Index to Economic Articles*의 主題項目에서 限界費用이나 限界生産力의 經濟分析上의 用途를 考察하는 데 限定시키게 되었는데, 이 索引에서 보면 1925年에서 1945년까지는 「限界主義」題下의 論文이 한 篇도 없고 1946年에서 1961年 사이는 大體로 Lester論爭에 관한 論文들이 실려 있으며 1962年에서 1966年 사이는 한 篇도 없다.

Marginalism이란 單語가 낫설다는 것은 辭典에서도 들어난다. 一般英語辭典에 처음 들어 간 것은 1966年 刊行된 *Webster*辭典 第三版에 marginalism을 「均衡의 決定에 限界의 特性의 使用을 強調하는 經濟分析」이라고 定義한 데서 비롯된다.

限界主義의 注目할만 하고 繼續的인 歷史는 現在 「限界効用」이라고 부르는 「特性」의 進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限界効用의 始源과 따라서 限界主義의 起源의 諸側面에 관해서

(3) Ricard S. Howey, "The Origins of Marginal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280; *Encyclopaedia of Social Sciences*, 1930-35, 1:166, 175, 176; 10:609.

(4) Richard A. Lester, "Shortcoming of Marginal Analysis for Wage-Employment Problems," *American Economic Review*, 36 (1946), p. 36.

(5) Richard A. Lester, "Marginalism, Minimum Wages, and Lab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37 (1947), pp. 135-48.

(6) Fritz Machlup, "Marginal Analysis and Empirical Research," *American Economic Review*, 36 (1946), pp. 518-54.

는 이미 몇가지의 研究가 있다.⁽⁷⁾ 慣例의 傾向에 따르면 限界効用은 經濟學者들에게 後에 承認된 形態로는 1862年에서 1874年 사이의 12年間に Jevons, Menger 및 Walras에 의해서 個別的으로 처음으로 創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中에서도 가장 成果있는 해는 Jevons와 Menger가 이 主題에 관한 冊을 發刊한 1871年이라는 點은 一般이 周知하는 바와 같다.

Hobson의 限界主義用語에서 表現하고 있는 第二의 特性인 「限界生産力」도 수많은 先驅者가 있다. 그러나 1890年이 되기까지 그 發見이 完全히 못했고 確認된 것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限界効用概念이 數人의 有望한 經濟學者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前까지는 體系的인 研究가 나오지 못했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限界概念의 첫째 特性이 經濟理論의 一部로서 바로 歡迎받지 못한 것이다. 이의 容認에는 Jevons, Menger 및 Walras의 그 支持者를 얻기 위한 意識的인 努力이 必要했는데 이는 적지 않은 無關心과 一部의 反對意見과의 對決을 要하는 努力이었다.

우리는 本論文의 III章에서 Jevons, Menger 및 Walras에 의한 限界主義의 第一特性인 限界効用に 관한 研究를 檢討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部分을 省略하고 이들 3人에 先行하는 學者들을 略述하고 이어 3人에 의한 限界革命의 始發點을 基盤으로 限界主義를 繼承 發展시킨 學者들을 研究史 乃至 文獻史的 視角에서 展望해 보기로 한다.

二

Jevons, Menger 및 Walras가 限界主義의 開發을 위해 活動한 時期는 大體로 1862年에서 1873年 사이였다. 이들 3人은 當時 少壯學者로서 支配的인 學說에 忠誠을 다 할 必要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며, 새 paradigm을 展開하겠다는 一種의 使命感에 불타 있었다. 環境이 各已 달랐지만 經濟學의 理解에 欲望 또는 効用이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點에서는 共通의 思想을 가졌었다. 「限界」効用의 概念은 國籍이 다른 이들 3人이 그 効用思想을 微分學의 基礎概念과 結付시켰을 때 誕生된 것이다.

1873年에서 1880年代까지의 限界主義의 發達史는 限界効용의 受容에 관한 研究史가 된다. Jevons, Menger 및 특히 Walras는 이 認定을 받기 위한 鬭爭史에서 첫 主人公들이 있던 것이다. 그들이 新人이었다는 事實이 相當期間 동안 同調者를 얻기 힘들게 한 것은 周知의 史實이다.

(7) 代表的인 것만 몇가지 들면 아래의 같다. G. Stigler, "The Development of Utility Theory," *Essay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1965, pp.66-155; R.S. Howey, *The Rise of Marginal Utility School, 1870-1889*, 1960; Emil Kauder, *The History of Marginal Utility Theory*, 1965; William Jaffé,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1965; Hermann Lehmann, *Grenznutzentheorie*, 1968.

Jevons와 Walras는 바로 相互間 知面이 되었지만 Walras와 Menger가 처음으로 交流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近 10年後였다. 先行者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3인이 모두 是認하게 되었다. 主要한 先驅者는 Hermann Heinrich Gossen으로서 그의 發見을 Jevons가 書信으로 Walras에게 알린 것이 1878年이었다.⁽⁸⁾ Walras와 Jevons는 Gossen이 그들보다 앞섰음을 서슴없이 是認했다. 그러나 餘他の 先行者들에 관해서는 意見이 갈라졌다. Walras는 1874年에 G.F. Knapp를 통해서 Johann Heinrich von Thünen에 관해서 알게 되었으며 Jevons는 이를 1876年에 R. Adamson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von Thünen에 관해서 Walras는 거의 關心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反하여⁽⁹⁾ Jevons는 그의 *Theory*의 1879年 版에서 論及하고 있다.⁽¹⁰⁾ 1874年에 Charles Letort가 Walras의 *Eléments*에 관한 書評에서 Jules Dupuit의 이름을 提示한 일이 있는데 von Thünen의 경우처럼 Walras는 Dupuit가 先行者임을 是認하지 않았다.⁽¹¹⁾ 이에 대하여 Jevons는 「Dupuit가 이 主題에 관한 아주 深甚한 理解를 하고 있었고 効用의 基本概念에 관해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否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Walras에게 쓴 바 있다.⁽¹²⁾ 이런 先行者에 관한 문제를 略述했는데 다음에는 後繼者의 動向을 살펴보기로 하지.

첫째로, Carl Menger는 強力한 後繼者를 얻은 代表的인 경우라 하겠으나 實際로는 이들에 대한 그의 影響力은 크게 發揮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Menger는 그의 活動보다는 結果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後繼者에 대한 影響力發揮가 過少評價될 수도 있는 것이다. 外樣上 처음에 그는 2인의 首弟子인 Eugen Böhm-Bawerk와 Friedrich von Wieser의 忠誠을 얻었는데 그것은 自己의 *Grundsätze*의 功績 하나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오스트리아學派의 出帆은 遲延되었으며 그것은 Wieser가 1884年까지 限界主義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發表하지 않았고 Bohm-Bawerk도 1886年까지 活動을 開始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들 弟子들의 著作이 出版되기까지 Menger가 어떠한 影響力을 行使했는가에 관해서 詳細히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둘째로, Jevons는 自己의 見解를 普及시키기 위해서는 갖은 手段을 講究해야 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는 1866年에 自己原論文(*Notice of a General Mathemat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의 擴大版을 普及效果가 더 確實한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에 發表한 것이다. 追後 그는 冊子が 될 分量으로 完成하여 Macmillan에서 出版할 準備를 갖추어 내놓은 것이 *Theory of Political Economy*(1871)이다. 1875年에 Jevons는 自

(8) Jaffé,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op. cit.*, 1:581.

(9) *Ibid.*, 1:401, 1:532.

(10)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ed. R.D.C. Black, 1970, p. 64.

(11) Jaffé, *op. cit.*, 1:456, 458.

(12) *Ibid.*, 1:533.

己同志가 된다고 믿는 Walras 에게 書信을 보내어 「우리의 努力의 終局的 成功이 어떻게 되든간에 어떤 鬭爭이 必要하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 했다.⁽¹³⁾ *Theory*의 第2版(1879)에서 Jevons는 限界主義에 관한 最初의 歷史와 文獻目錄을 提示했는데 이는 이 문제의 地位를 確認하고 理解를 促進시키는 데 寄與한 것이다. 그러나 末年의 Jevons는 推進力이 缺如된 채 다른 일에 쫓기다가 1882 年에 死亡해 버렸으므로 Menger 가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끝내 모르고 말았다.

세째로, Walras는 세 사람 중에서 認定과 支持를 얻는데 組織的·繼續的으로 努力한 가장 精力의인 人物이었다. William Jaffé가 편집한 尠大한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는 1873年에서 1909年 사이의 新經濟學의 認定을 얻으려는 Walras의 根氣 있는 努力의 起伏을 看取하게 해 준다. Walras는 自己가 할 일을 明確히 알고 있었으므로 劃期的 發見의 公表를 넘어서는 科學的 革命을 위한 計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限界革命을 財政的으로 돕기 위해서 自己 個人財産을 내 놓을 만큼의 革命的 熱情에 불타 있었다. 1901年에 Walras는 自己 學說의 普及을 위해서 물려받은 遺産中 50,000프랑(그 自身의 最高年俸의 10 倍에 該當)을 支出했다고 推算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처음부터 Walras는 프랑스의 政治經濟學者들이 自己의 業績을 無視할 것으로 豫想했다. Walras는 이러한 豫想 때문에 經濟學에 限界效用을 導入하려는 鬭爭을 國際化의 方向으로 치닫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國際化方向이 이 鬭爭의 窮極的 成功 즉 限界主義의 確立을 가져오게 한 하나의 要因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國際化計劃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Walras가 1873年에 Joseph Garnier에게, 萬一 프랑스 사람들이 自己를 계속 잊어버린다면 그는 「外國人의 公開的인 判定」에 呼訴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다.⁽¹⁵⁾ 그는 實際로 1874年 3月 12日에 外國의 支持者들을 組織的으로 찾기 시작하여 英國, 獨逸의 두 協力者와 伊太利學者和 親交가 있는 어떤 Geneva大學 教授에게 비슷한 書信을 보내서 自己論著의 複寫版을 送付할 教授 및 編輯人의 名單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는 自己 著書 *Eléments*를 프랑스, 英國, 獨逸 및 伊太利에서 30名만 읽어준다면 成功할 수 있을 것이라고 推算했다.⁽¹⁶⁾ Walras의 이 첫 試圖에서 그의 提案에 反應을 보인 回答은 伊太利人 한 사람과 두 사람의 英國學者 뿐이었다. 唯一한 伊太人은 Alberto Errera로서 그는 伊太利에 限界主義를 紹介한 人物이 되었으며 또 回答을 보낸 最初의 英國人은 Jevons와 T.E. Cliffe Leslie教授였다. Jevons는 이 回信에서 「나의 交換理論이 英國에서 發表되었을 때 無視되지 않으면 批判을 받았는데 事實上 當身의 研究에 의해서 認

(13) *Ibid.*, 1:474-75.

(14) *Ibid.*, 1:761, 3:187.

(15) *Ibid.*, 1:344.

(16) *Ibid.*, 1:359-61.

定을 받게 된 것을 滿足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¹⁷⁾ Walras와 Jevons 사이의 이와 같은 同一目的의 合意가 限界主義를 誕生시킨 勢力을 強化했음은 勿論이다. 한편 Leslie는 이 答狀에서 Jevons도, 自己와 John Stuart Mill이 同意할 수 없는 類似한 理論을 提示한 일이 있다는 點을 指摘해 왔을 뿐이었다.⁽¹⁸⁾ Walras의 이러한 通信에 의한 普及活動은 그후에도 反復的으로 계속되었으나 1881년까지는 눈에 띄는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1年頃부터 展望이 밝아져간 것이다. 1881年에서 1890年 사이에 年年히 限界効用의 思想을 認識하고 支持하는 學者가 늘어났다. 이 무렵에 Walras는 特히 Alfred Marshall과 F.Y. Edgeworth와의 交通을 開始했으며 이것이 士氣를 돋구어 준 것은 물론이다. 한편 1883년에는 Aulnis de Bourouilli이 Menger와 Walras를 相互 紹介시킴으로써 이제 限界革命은 또 하나의 參與國家를 加算하게 되었다. Walras에 대한 첫번 書信에서 Menger는 그의 見解와의 類似性에 懷疑的인 態度였으나 Walras는 類似性을 強調하고 있다.⁽¹⁹⁾

Walras에게 Menger가 紹介된 다음 해(1884)에 Wieser의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가 發刊되었는데 이 冊은 Menger의 見解에 立脚한 것으로서 오스트리學派의 形成을 알리는 最初의 業績이며 거기서 限界効用(Grenznutzen)이란 單語가 처음으로 使用되었다. 이 冊은 널리 普及되지 못하여 Walras도 1887年에 비로소 入手했다.⁽²⁰⁾ 1885年에 Charles Gide가 Walras에게 批判的인 새 學術誌를 내자고 建議한 것을 보면 Walras도 오랫동안 느껴왔던 프랑스 經濟學界의 冷淡에 대한 警告의 氣運이 짙고 있었던 것 같다.⁽²¹⁾ 다음 해 1886년에는 Böhm-Bawerk의 “Grundzüge der Theorie des wirtschaftlichen Güterwertes”가 獨逸의 主要經濟學專門誌인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에 發表되었는데 Walras는 即時 이에 讚辭를 보냈다.⁽²²⁾ 1887年末에는 러시아의 數理經濟學者 Ladislaus von Bortkiewicz를 發見하는 데 그도 價値있는 連絡者가 되어 信義있는 同志가 되었다.⁽²³⁾

이밖에도 Walras는 Philip Henry Wicksteed와도 交通을 維持하여 1888年에는 그의 *Alphabet of Economic Science*, 그리고 이듬 해에는 Maffeo Pantaleoni로부터 *Principii di economia pura*(1889)의 寄贈을 받고 기꺼이 읽었다는 交信을 하고 있다.⁽²⁴⁾ 오스트리에 限界主義學派가 確立되었다는 證據는 1889年에 限界分析을 利用한 著書가 한꺼번에 세 권이 나왔기 때문에 疑心할 餘地가 없게 되었다. 즉 R. Auspitz와 R. Lieben의 *Untersuchungen*

(17) *Ibid.*, 1:393.

(18) *Ibid.*, 1:395.

(19) *Ibid.*, 1:768-69, 1:771.

(20) *Ibid.*, 2:152, 187.

(21) *Ibid.*, 2:42.

(22) *Ibid.*, 2:152.

(23) *Ibid.*, 2:229-37.

(24) *Ibid.*, 2:160-61, 259, 307, 2:331.

über die Theorie des Preises의 Böhm-Bawerk의 Kapital und Kapitalzins, Zweite Abteilung,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 및 Wieser의 Natürliche Wert가 그것이다.

三

1862年에서 1887년까지 効用을 다룬 새 方法에 대해서 多様な 名稱이 붙여지고 있었다. 가령 Jevons는 滿足스런 術語를 찾는 데 「最終効用度」 「最終効用」 「末端効用」 (terminal utility) 등의 表現을 만들어 냈다. Menger는 같은 概念을 나타내는 데 「滿足의 最少 重要度」란 말을 썼고 Walras는 「集約的 効用」, rareté 및 「最後欲望充足의 強度」 등 새 가지로 붙였다. 1887年에 와서 적어도 英語에서는 「最終効用」 (final utility)이 標準的 術語가 된 것처럼 보였다. Wieser가 使用한 Grenznutzen도 最終効用(final utility)으로 번역된 것이다.

1888年末에 비로소 英語의 final utility에 代置되고 餘他の 言語에서 以前에 쓰이던 모든 用語도 代置시킨 새로운 말이 나왔으니 그것이 「限界」(marginal)란 것이다. 이는 Wicksteed가 그의 Alphabet에서 最初로 導入한 것으로서 後面에 平均 2회는 나올 정도로 처음 使用한 것치고는 엄청나게 자주 썼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表現이 바로 通用된 것은 아니다. 가령 Edgeworth가 Wicksteed의 著書를 論評하는 대서도 final utility란 單語를 그대로 쓰고 marginal이란 말을 使用하지 않았다.⁽²⁵⁾

Wicksteed가 이 單語를 어떻게 着想하게 되었는가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가령 Wieser가 final utility를 Grenznutzen으로 번역한 最初의 學者이기 때문에 이 Grenznutzen이란 用語를 Wicksteed가 다시 marginal utility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推論이 있으나 亦是 確認되지는 않았다. Menger의 Grundsätze에도 Grenze란 單語가 나오지만 그 英譯版은 limit로 되어있지 margin의 뜻이 아니다.⁽²⁶⁾

「限界」란 單語를 使用한 論제本 冊은 Alfred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 (1890)이다. Marshall은 이 用語의 典據에 관해서 「『限界의 増分』이란 術語를 나는 von Thünen에게서 借用했다」고 말하고 「이것이 지금은 獨逸經濟學者들에 의해서 通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Jevons의 Theory가 나왔을 때 나는 그의 『最終』이란 낱말을 採用했지만 漸次 나는 『限界』가 더 낫다고 믿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²⁷⁾ 그러나 von Thünen은 限界의 増分이란 말을 쓴 일이 없을 뿐더러 Grenze란 單語를 썼지만 이는 雇傭主가 그 以上 勞動者를 채용하지 않는 「境界線」이란 뜻에서 使用하고 있으므로 Marshall도 第二版부터는 이를 修正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보면 英國에서 Wicksteed와 Marshall에 의해서 使用되기 시작한 marginal이란

(25) Howey, "The Origins of Marginal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297.

(26) *Ibid.*

(27)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56, p. viii, n. 1.

(28) *Ibid.*, 2d ed., p. XIV.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298.

單語는 그 語源을 만드시 獨逸語의 Grenze와 直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다만 英國經濟學의 傳統에서 at the margin, on the margin 또는 margin of cultivation 같은 表現이 Malthus, Mill時代부터 자주 쓰였던 點으로 보아 固有의 表現方法이 되었다고 보겠으며 獨逸語의 Grenze는 limit와 margin의 두 가지 意味를 內包한 셈이 된다.⁽²⁹⁾

四

經濟學의 一般的 教科書에 限界分析이 導入된 時期가 限界主義의 本格的 受容段階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는 문제를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Howey의 調査에 따라 美國의 教科書를 中心으로 概觀해 보기로 한다.⁽³⁰⁾

1893년에 나온 Richard T. Ely의 *Outlines of Economics*는 出刊 以來 약 40年間に 걸쳐 美國의 經濟學教授들에 의해 가장 많이 採擇되어 온 教材인데 여기에 限界効用이 不充分하지만 消化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Jevons, Menger 및 Walras가 精確한 經濟學史 속에 紹介되어 있고 오스트리아學派에 관한 論評도 있기 때문에 美國에 限界効用思想을 一般化시키는데 嚆矢를 이루었다. Ely의 *Outlines* 첫版은 1893年에서 1907年 사이에 널리 읽혔는데 이 15個年 동안 限界分析은 다른 많은 競爭의인 教材들에서도 採擇되어 갔다. 이를 列擧하면 A.T. Hadley(1896), C.J. Bullock(1897), H.J. Davenport(1897), E.T. Devine(1898), F.W. Blackmar(1900), F.A. Fetter(1904), H.R. Seager(1904), E.R.A. Seligman(1905) 등이 있다. 그러나 以上の 大部分의 教科書가 限界効用만을 다루고 限界生産力까지 포함한 것은 Hadley와 Seligman 뿐이다.

Ely의 *Outlines*의 改訂版(1908)이 나오면서 限界主義는 均衡있게 取扱된다. 同書에서 勞動 및 資本에 대한 收益의 說明原理로 限界生産力이 附加된 然後 다른 教科書들은 모두 이를 따랐다. Ely의 *Outlines*는 그후에도 1937年에 이르기까지 네차례나 版을 거듭했지만 限界主義의 內容은 大體로 同一하게 堅持되고 있었다.

1908年부터 1936年 사이에 나온 이밖의 指導의인 美國教材들도 本質적으로 Ely의 改訂版과 같은 內容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A. Johnson (1908), F.W. Taussig(1911), Irving Fisher(1911), F.M. Taylor(1911), J.R. Turner(1919), Henry Clay(1919), T.N. Carver (1919), O.F. Boucke(1925), Lionel Edie(1926), L.A. Rufener(1927), F.B. Garver와 A. H. Hansen(1928), P.F. Gemmill(1930), F.R. Fairchild(1930), Broadus Mitchell(1932), F. S. Deibler(1936) 등의 教科書가 그렇다. 이들은 限界効用과 限界生産力을 아울러 다루었지만 限界分析을 그밖의 分野에까지는 利用하지 못했다.

1930年代에 와서는 限界概念의 새로운 利用이 學術誌와 專門文獻에 紹介되기 시작했다.

(29) Howey, "The Origins of Marginalism," *op. cit.*, pp. 299-300.

(30) 以下는 모두 Howey, "The Origins of Marginalism," *op. cit.*, pp. 301-302, 參照.

限界効用이人氣를 잃고 그代身 限界代替率이 그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多分히 J. R. Hicks와 R.G.D. Allen의 論文인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Value”(1934)의 影響이었다.⁽³¹⁾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오랫동안 孤立된 경우로 取扱되던 極大化概念으로 通하는 雙生兒로 登場하게 된 것은 Edward Chamberlin의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1933)과 Joan Robinson의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1933)에 依해서 이며 John Maynard Keynes는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에서 限界의 諸條件을 恒常의인 것으로서 色다르게 利用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限界概念의 擴大利用은 A.L. Meyers(1937), A.M. McIsaac와 J.G. Smith(1937), Lorie Tarshi(1947) 등의 教科書에 消化 反映되었다.

1947年 以後에 다른 美國의 教科書中 새로운 性格을 代表해 주고 있는 것은 亦是 P.A. Samuelson의 *Economics*(1948)로서 이것이 成長하는 市場을 支配해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것은 版을 새로이 하면서 1970年代初까지도 여전히 繁昌을 누리고 있으며 여기에 限界主義의 主題가 相當한 紙面을 차지하고 있음은 餘他の 現行教科書에도 그대로 反映해 하고 있다.

III. 限界革命의 性格과 그 主役

1. 限界革命의 性格

限界革命의 3人的 主役들이 보여 준 接近方法의 두드러진 類似性과 함께 그 同時性은 그들이 事實上 各己 獨自性을 가지고 이러한 思想에 到達했다는 事實과 더불어 이리한 共通의 結果를 가져오게 한 歷史的 底流의 存在를 強力하게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를 部分的으로나마 밝혀보자는 데 本論文의 主目的이 있다.

本章에서는 이 目的을 위하여 限界革命의 「트리오」인 Jevons, Menger 및 Walras에 관한 個別的인 評傳的 乃至 傳記的 接近方法을 통하여 그들이 國籍, 言語圈, 經濟的 制度 및 發展水準, 精神文化的 背景, 經濟學의 傳統 등이 判異했는데도 어떻게 하여 限界主義思想이란 同一 結果에 到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더한 條件差異 때문에 어떠한 偏差가 發生하게 되었는가를 露出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가기 앞서 여기서는 우선 限界革命이 經濟學에 대해서 어떠한 變化를 가져왔는가 그 性格과 內容을 概觀하고자 한다.

前述한 바처럼 限界革命은 하나의 突發的 事件이 아니라 약 1世代에 걸쳐 波及된 過程이며 運動이었기 때문에 그 性格構造를 一義的으로 規定한다는 것은 많은 危險이 따르는

(31) *Economica*, n. S. 1 (1934), pp.52-76, 195-219—Howey, *ibid.*, p.302에서 轉載.

것이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限界革命的 發端에서가 아니라 그 完成段階에서 限界主義가 經濟學體系內에 定着된 時期를 基準으로 볼 때 이 새 經濟學이 古典派理論과 어떠한 性格差를 보여주게 되었는지를 指摘하는 立場을 取하기로 한다. 勞動價値論을 主觀價値論으로 代替해서 古典派理論과 近代經濟學의 眞正한 境界線을 그은 것은 「効用」理論 이라기보다는 「限界」分析 그 自體의 導入이었던 까닭에 Hutchison은 限界効用에서 重要的 것은 「名詞보다도 形容詞」였다고 表現했지만⁽¹⁾ 여하튼간에 1870年代부터 經濟的 推論의 새로운 統一原理로 確立되어 간 限界革命은 經濟學에 대해서 어떠한 性格的 變化를 가져왔는가?

첫째로 限界革命은 經濟學에 대해서 새로운 「出發點」을 提供했다.⁽²⁾ 지금 古典學派의 主流인 Smith, Ricardo, J.S. Mill 에게 共通的인 經濟問題는 本質的으로 增大不能한 土地와 增大可能한 勞動—資本은 蓄積된 勞動으로 看做—과의 對比로서 考察된다. 經濟分析의 機能은 勞動力的 質的 量的 變化가 總生産高의 增大率에 미치는 效果를 暴露하는 데 있다. 生産高의 增大率은 資本利潤率의 兩數라고 생각되고 있었으므로 要素價格과 分配比率의 長期的 傾向이 當然히 經濟過程의 基本的 要因으로서 重要的 役割을 한다. 따라서 私的 企業經濟體制 아래에서 資本蓄積과 經濟成長에 重點이 놓였던 것이다. 또한 古典派 經濟學에서는 分業의 進展을 통한 市場範圍의 擴大傾向이 있다는 理由로 自由競爭이 所望스러운 것이며 經濟的 福祉는 物的 基準으로 볼 때 生産量에 거의 正比例하는 것으로 看做되고 있었다.

그러나, 1870年 以後부터 經濟學者들은 一般的으로 生産諸要因의 供給은 分析視野外의 諸要因에 의해 獨立的으로 決定된다고 보고 이것이 거의 一定하다고 前提하게 되었다. 經濟問題의 本質은 一定한 生産諸用役이 競合的인 用途 사이에 消費者의 充足度를 極大化한다는 뜻에서 最適의 效果로 配分되는 諸條件을 探求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經濟學은 眞正한 뜻에서 一定의 目的, 選擇의 用途를 갖는 一定한 稀少手段과의 關聯을 연구하는 科學이 된 것이다. 古典派의 經濟成長은 本質的으로 靜態的인 테두리 속의 一般均衡이라는 概念이 의해서 代置된 것이다.

以上の 모든 點은 새로운 經濟學의 Malthus 人口論에 대한 態度에서 如實히 들어난다. 限界分析의 登場과 더불어 Malthus 理論은 經濟學에서 退場한다. 그것은 經濟學者들이 이를 信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人口增加를 外生的 變數로 取扱하기 때문이었다. Jevons가 말하는 것처럼 「經濟學의 問題란, 가지 가지 欲求와 生産能力을 갖추고 一定土地와 餘他の 物的資源을 가지고 있는 一定한 人口가 所與되어 있다고 할 때 必要的 것은 生産物의 効用을 極大化시키는 그들의 勞動의 使用法」이 된 것이다.⁽³⁾

(1) T.W. Hutchison, *A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29*, 1953, p. 16.

(2) Mark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1968, pp. 299-300.

(3) 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1871(Pelican Classics, ed., R.D. Gollison Black, 1970), p. 254.

極大效果를 갖는 配分의 強調은 英國學派보다도 Lausanne나 Vienna의 諸學派에게 있어서 훨씬 強했다. 그러나 經濟學을 Mill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實質費用」價值論을 통해서 古典派의인 思想과 聯關을 保持하게 된 Marshall조차도 市場範圍 그 自體의 擴大보다도 資源配分을 一定한 市場環境內에 固定시키는 競爭行動에 注意를 集中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限界革命으로 인한 經濟學의 性格變化는 「數學의 利用」에 있다.⁽⁴⁾ 限界代替라는 概念이 經濟學에 있어서 支配的 役割을 하면서 數學的인 推論이 不可缺의 方法이 되었다. 再論할 必要도 없이 1870年 以後의 經濟學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數學에 附與하고 있는 것은 効用理論이 아니라 限界主義이다. 그러므로 効用의 主權的 役割을 恒時 強調하고 있던 오스트리學派가 相對的으로 數學의 利用에 弱했던 것은 偶然의 일이다. Menger도 Wieser도 그리고 Böhm-Bawerk도 그들의 著作에 本格的인 代數方程式을 使用한 일이 없었으며 本質的으로 이들은 數學을 經濟分析의 用具로 利用함에 方法論的으로 反對였고 심지어 經濟的 從屬變數의 相互決定을 強調하는 것조차 回避했다.

그러나 이들을 除外하면 이 時代의 代表的 經濟理論家의 大部分이 數學的 素養을 갖추었던 디이므로 數學的 知識을 使用하지 않고도 經濟理論에 基本的 貢獻을 한 사람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세째로는 「極大化原理」이다.⁽⁵⁾ 이 時代에 經濟學者들이 採用한 數學의 種類는 微積分學에 限定되어 있었다. 經濟函數는 恒時 連續微分函數로서 想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根底에 있는 極大化原理는 不連續函數에도 同等하게 된다. 一般의 原則은 關聯되는 極限에 各已 對應하는 諸價值基準에 到達可能한 狀態系列을 配置하는 것, 즉 最適狀態가 極限에 最大의 可能值를 附與하는 狀態가 되도록 配置하는 것이다. 이 경우 極限이 効用이든 利潤이든 物的生産物이든 分析의 形式은 同一하다.

이를 좀더 明確히 말하면 問題의 原理는 限界價値의 均等化라는 原理이다. 즉 어떤 財貨의 一定量을 一聯의 競合의 用途에 分割하는 경우의 有効한 配分이란, 各配分單位를 한 가지 用途에 移轉하는 利益이 그것을 다른 用途로부터 引出하는 때에 發生하는 損失에 均等하게 되도록 配分하는 것을 意味한다. 一定量의 所得을 多樣的 消費財에 配分하고 또는 一定量의 支出을 많은 生産要因에 配分하며 또 一定量의 時間을 일과 餘暇에 配分하는 등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原理는 마찬가지이다. 그뿐 아니라 可能한 모든 用途 중 단 한 가지 用途에 一配分單位를 移轉하는 過程이 만드시 效果의 漸減을 가져오는 限 또 이런 경우에 限해서만 配分問題는 極大的 解를 얻는다. 가령 家計理論에서는 各 貨幣單位가 購入할 수 있는 限界効用이 均等하게 되도록 消費者가 所與所得을 配分할 때에 最適狀態가 일

(4) Mark Blaug, *op. cit.*, p. 300.

(5) *Ibid.*, p. 301.

어지는 것이다. 限界効用遞減의 法則이 이와 같은 最適狀態의 存在를 保證한다. 그리고 企業理論에서는 各貨幣單位가 購入할 수 있는 生産要因의 價額으로부터의 限界生産高가 均等化될 때에 最適狀態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限界生産力遞減의 法則이 需要理論上的 限界効用遞減의 法則과 同一한 役割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事例는 모두 限界均等の 原理에 관한 適用에 不過하다. 新古典派經濟學은 그 全部가 一定한 狀態下에서는 完全競爭은 支出과 資源의 限界均等的 配分을 事實上 實現한다는 證明을 爲始하여 上記의 原理를 보다 廣義의 文脈으로 明示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現代에 있어서는 極大分析에 依據하지 않는 類型의 經濟學에 우리가 많이 낮익혀 왔다. 즉 現代의 巨視經濟學은 가령 Keynes의 消費函數가 個人的인 極大行動의 集積이 아닌 것처럼, 一定한 全體의 基準에 따라 個別的 選擇의 總結果를 想定한다. 그리고 古典派經濟學에서는 分析이 窮極의으로 諸個人的 極大行動으로 還元된다. 그러나 어떤 一時點에서의 資源配分을 分析하는 대신 繼續的인 均衡의 時間的 經路를 強調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新古典派時代의 經濟學은 好·不好間에 限界均等的 基準에 正確히 依存하는 靜態的인 微視經濟學으로 거의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네 개편의 特徵은, 「價値와 分配論」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⁶⁾ 古典派 經濟學者는 生産物의 價値를 세 가지 生産要因의 이론바 「自然」報酬率에서 導出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自然」報酬率 그 自體는 各己 特殊理論으로 說明되고 있다. 즉 土地의 地代는 限界耕作費 以上の 定差剩餘로 規定되고 勞動의 賃金은 長期生産費에 의해 規制되며 資本의 利潤率은 殘金要素로서 取扱되었다. 分配問題가 價値論의 直線的 適用에 의해서 解決된 것은 勞動의 경우 뿐인 것이다. 生産物의 相對價値의 說明에 쓰인 것과는 判異한 原理로 土地와 資本의 價値가 설명되어야 했다.

그런데 新經濟學에서는 分配論도 一般的 價値論의 단순한 一側面에 지나지 않는다. 生産諸要因은 그것이 만들어 낼 수 있는 生産物에 대한 消費者需要에 비해서 稀少하기 때문에 報酬를 받는다. 換言하면 諸要因의 供給과 技術的 變化率이 주어진다면 生産諸用役의 價値와 消費財價値는 모두 消費者의 欲求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렇기 때문에 各生産要因의 價値에 관한 特殊分析의 餘地가 없다.

그런데 古典派學者들은 因果論의 意味에 있어서 分配는 生産物의 價値決定에 先行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初期의 限界主義者 특히 오스트리學派에서는 因果論의 順序가 그 逆이어서 生産要因의 所得은 生産物市場의 諸價値의 結果이어야 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生産物價値도 要因價値도 相互 同時的으로 決定된다는 理由에서 新經濟學의 참다운 要求는 Ricardo 經濟學의 部門分割의 接近을 打破하는 데 있었다.

(6) *Ibid.*, pp. 302-304.

新古典派理論은 單一の 原理에 立脚해서 要因價格도 生産物價格도 說明함으로써 보다 큰 一般性和 理論的 手段의 節約을 成就했다. 새 理論은 再生可能한 財와 再生不能의 財, 不變費用과 可變費用의 兩者를 모두 包括했다. Ricardo의 差額地代論이 移動不能한 모든 資源에 대해서 一般化되고 「最惡事情」下的 生産에 의해서 價値가 決定된다고 하는 公準은 모든 價格決定의 基礎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一般性的 擴大가 그 內的秩序를 반드시 充實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었고 新理論이 古典派理論에서의 모든 變數를 包括하지 못함으로 因해서 新古典派理論은 어떤 點에서는 古典派理論보다 狹隘하다는 批判을 免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가령 Böhm-Bawerk의 利子論이 時差要因의 遍在 때문에 資本市場은 獨自의 問題를 提起한다는 命題가 된 點이라든지 또는 Marshall이 「勞動의 特殊性」을 指摘한 點 등으로 因하여 餘他の 生産物市場에서는 論外가 되는 特殊要因이 資本市場과 勞動市場에서는 오히려 그 特徵으로 說明되어야 하는 難點이 發生한다. 따라서 新古典派經濟學에서는 分析의 起點에서 이러한 資源供給이 一定하다는 假說의 導入에 의해서 이 難點을 消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短期分析의 領域을 떠나서 資本蓄積이나 人口增加에 관한 古典的인 疑問을 提起하게 되면 分配論이 價値論의 單순한 一側面에 不過하다는 主張은 形式的인 意味 밖에 있게 되는 것이다.

以上 우리는 限界革命이 經濟學의 性格變化를 가져온 重要한 特徵을 指摘했다. 그러면 이러한 經濟學의 性格變化를 惹起시킨 限界革命을 初期에 있어서 主體的으로 擔當했던 主役들의 當與는 어떠한가를 다음 章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2. William Stanley Jevons

William Stanley Jevons의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가 1871년에 出刊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根據로 1871年度를 「限界革命의 해」라고 볼 수는 없다. 限界「革命」이란 語句가 魅力的이긴 해도 이는 하나의 過程을 뜻하지 가령 Paris Commune의 成立과 같은 한 事件을 가르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 過程은 1871년에 시작된 것도 또 이해에 끝난 것도 아니고 이 무렵에 줄기차게 進行되고 있었다고 하는 解釋이 支配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쓰이는 「革命」이란 術語가 劃期的이고 暴力的인 事件에만 妥當되는 것이 아니라 「根本的인 再構成」(fundamental reconstruction)을 포함하는 長期間의 過程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定義도 內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限界革命을 이와 같은 意味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을 經濟學(economics)으로 轉換시킨 「根本的 再構成」의 過程은 多樣한 側面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意味에서는, 주로 巨視經濟學的인 研究를 주로

微視經濟學的인 研究로 移行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過程全般을 廣汎하게 考察하는 同時에 微視의 水準으로 눈을 돌려 이 革命過程에의 主要參與者란 觀點에서 問題接近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以下에서는 Menger, Walras와 더불어 限界革命의 主役의 한 사람으로서 이 過程에 寄與한 Jevons의 役割을 보기로 한다.

먼저 Jevons에 관해서, 그의 生涯 및 著作과 經濟學說史의 位置에 관해서는 이미 權威있는 勞作들이 發表되어 왔으므로⁽¹⁾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보다 具體的인 問題點을 究明하는 데 限定코자 한다. 첫째는 Jevons가 (政治)經濟學的 研究에 미친 固有한 影響의 特質에 관한 檢討이며 둘째는 이러한 特質이 그의 經濟學方法論의 形成에 미친 影響과 經濟學에 대한 그의 貢獻 특히 1871년에 이룩한 貢獻의 特徵을 考察하고 셋째로 經濟學的 將來發展에 대한 Jevons의 期待를 這間의 實際의 發展과 比較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Jevons는 「政治經濟學에서는 權威있는 著者들의 너무나 큰 影響力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John Stuart Mill이든 Adam Smith이든 Aristotle이든 研究對象이 되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한 敬意에도 抗議하는 바이다」라고 쓴 바 있다.⁽²⁾ 이 有名한 句節은 특히 그 나옴에 繼續되는 「科學界에서는 騷亂과 심지어 無政府狀態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위해 長期的으로는 有利하다」고 한 宜言과 結付시키 볼 때 Jevons가 經濟學研究에 끼친 影響의 特質의 하나는 局外者의이고 革命家的인 性質——즉 自己 思想이 受容되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好戰的인 性質이었다는 印象을 풍기게 해 주고 있다.

이 命題를 推論해 나가면 Jevons가 局外者로서 그 思想을 發展시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他方에는 局內者가 存在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며 이를 T.S. Kuhn의 用語로 보다 形式的이고 보다 嚴格하게 表現하면 이렇게 된다.⁽³⁾ J.S. Mill이 中心으로 되어 있는 英國經濟學에는 學問上의 連續性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經濟世界觀을 支配하고 그들로 하여금 通常的인 問題解決技術로 諸問題를 對處할 수 있게 하는 (古典派의 價値 및 分配理論의 形態에 의한) paradigm을 確立시켜 놓았었다. 그러나 異端이 存在한다고 하는 認識은 經濟學의 主題에 대한 危機를 造成하여 極端的인 paradigm의 移行을 準備하는 革命的 理論의 出現 機會를 提供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Jevons의 經驗은 이러한 事態說明에 얼마나 들어 맞는가? 一部分은 아주 잘 —

(1) J.M. Keynes, "William Stanley Jevons, 1835—1882: A Centenary Allocation on His Life and Work as Economist and Statisticia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99(1936), pp. 516-548. 이는 Keynes의 *Essays in Biography*(1951 ed.), pp. 255-309에 再收錄됨. L.C. Robbins, "The Place of Jevons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Manchester School* 7 (1936), pp. 1-17. 이것도 Robbins의 *The Evolution of Modern Economic Theory*, 1970, pp. 169-188에 再錄됨.

(2) Jevons, *Theory*, p. 161.

(3) Kuhn, *op. cit.*; A.W. Coats, "Is There a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in Economics?," *Kyklos* 22(1969), pp. 289-296; M. Bronfenbrenner, "The 'Structure of Revolution' in Economic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 No. 1 (Spring 1971), pp. 136-151.

致하지만 部分的으로는 오히려 맞지 않는 點도 있는데, 실상 이것은 Kuhn의 科學革命理論 自體가 모든 事實을 說明하기에 適切하지 못한 paradigm 이기 때문인 것 같다. 첫째 Kuhn의 概念은 그 研究分野가 非專門家에게는 一般的으로 接近이 어렵고 本質적으로 그들끼리만 相互 意見交換하는 專門學界에만 關聯된 概念이다. 그런데 Spengler 및 Eagly 兩教授가 主張했듯이⁽⁴⁾ 經濟學은 1870年代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專門化의 段階에 到達되지 못한 것이다. Kuhn에 依하면 이는 「paradigm 以前」의 局面이라 하겠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般的으로는 古典派經濟學이 paradigm을 形成했었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의임은 否認지 못한다.

實上 1850年頃부터 1870年 사이의 英國의 經濟思想은 한 學問이 完全히 專門化되지 않은 채로도 paradigm을 形成할 段階에 充分히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한다. 終局的으로 paradigm의 移行을 가져오게 될 새 思想의 導入을 追求하는 局外者는 두 가지 問題에 直面하는데 그 하나는 自己思想을 聲價있는 形態로 公開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世間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作業이다.

그런데 William Lucas Sargant는 1867년에 낸 *Recent Political Economy*에서 當時 英國에는 프랑스의 *Journal des Economistes*에 比肩되는 專門的 經濟誌가 全無한 事實에 관해서 이렇게 不平하고 있다.

「그 自然스런 結果는 個人研究者의 完全한 意氣銷沈이다. 왜냐하면 一般의 注目を 끈개할 手段이 없다면 누가 새로운 理論을 내 세우겠는가? 著者가 獨創的인일수록 知識世界에서 人氣가 떨어지고 評價받지 못하게 되며 그가 얻은 教訓을 理解하지 못하는 데서 萎縮되기 때문에 그러한 著者는 漸次 더욱 새로운 出版物의 價値에 比重을 두는 사람들의 好意에 의지하게 된다.

英國은 政治經濟學의 革新에 대한 無識한 輕蔑에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原理들이 看過될 뿐만 아니라 論評해 주는 親舊가 提示해 주지 않으면 듣기조차 拒否당한다. 個人的 偏見과 反感이 分別있는 判定을 妨害하고 있다. 人氣가 없는 著者는 自身の 費用으로 出版할 수는 있지만 誤用된 데 대한 알량한 補償조차 얻지 못한다.」⁽⁵⁾

우리는 여기서 Jevons가 이더한 狀況의 被害者의 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다. 이 點에 관한 資料는 明確하지 않지만 그의 첫 成功作品이 *Notice of a General Mathemat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가 아니라 時事的 著述인 『統計圖表』와 *A Serious Fall in the Value of Gold*였다는 사실은 注目할 價値가 있다. 이는 Sargant의 主張에 들어맞는데,

(4) J.J. Spengler, "Exogenous and Endogenous Influences in the Formation of Post-1870 Economic Thought," in *Events, Ideology and Economic Theory*, ed. R.V. Eagly, 1968, pp. 159-60; pp. 189-190.

(5) R.D. Collison Black, "W.S. Jevons and the Foundation of Modern Econom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367에서 轉載.

왜냐하면 前者 *General Mathematical Theory*는 專門의 經濟學者層을 對象으로 한 것이어서 이들에게만 理解되었는 데 反하여 後者は 非專門家와 特히 企業家들에게 好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統計圖表』와 *A Serious Fall*을 Jevons가 自費出版했고 또 그가 처음에는 이 두 著作에 대한 關心의 缺如 때문에 失望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이 『統計圖表』에 대한 最初의 論評이 *Economist*誌에 나온 것은 순전히 私의 好感에 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Richard Holt Hutton의 好意에 찬 글이었지만 이 사람은 Jevons와 姻戚關係에 있었기 때문이다.⁽⁶⁾ 그럼에도 不拘하고 Jevons의 業績에 관한 客觀的인 論評이 나오게 되었고 얼마 안가서 自己의 期待를 넘어선 認定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860年代의 London의 學界에서는 만드시 人氣有無만이 문제된 것은 아니고 編輯者나 評論家들이 어떤 價値있는 發言을 하는 未知의 青年에게 만드시 敵對的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Jevons에게 自己의 著作을 譯價있게 公表하는 것이 過히 어렵지 않았다고 해서 그 理論의 內容이 同僚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즉 여기서 明記해 두고자 하는 것은 어떤 主題에 관한 著者로 有名해진 것과 그 理論 모두가 認定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點이다.

Jevons가 그다지 注目을 받지 않았지만 經濟學研究에 끼친 또 하나의 貢獻이 있는데 Keynes는 이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즉 Jevons는 「研究對象을 探索的인 觀察力과 創造力과 自然科學者의 制御된 想像力을 갖고 調査할 수 있는 最初의 理論經濟學者」였다는 것이다.⁽⁷⁾ 이 點에서 그는 既成의 政治經濟學界 人物들과는 그 知的 背景이 顯著히 다른 出身의 참다운 「新人」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主題接近方法이 嶄新하고 挑戰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點에서는 Jevons를, 當時의 經濟學界와의 關聯에서가 아니라 自然科學界 特히 化學者 天文學者 및 氣象學者들과의 關係에서 보는 것이 보다 價直있을 것 같다. Jevons가 「自然科學에 從事하는 사람은 너무나 數가 많고, 應用科學과 藝術分野는 關心이 없는 대신 社會의 諸原理를 徹底하게 理解하는 것이 現在 내게는 가장 有力한 일인 것 같다」⁽⁸⁾는 結論에 到達한 것은 1858年이었다. 이 무렵 그의 個人的 研究의 關心은 氣象學으로 向하고 있었지만 그의 學的修練과 經驗은 主로 應用化學分野였고 이는 科學 그 自體보다도 一種의 어려운 科學的 訓練이 되었다.⁽⁹⁾ 化學分野에서 Jevons는 깊은 緣故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 *Ibid.*, p. 367.

(7) Keynes, *Essays in Biography*, p. 268.

(8) Jevons, *Letters and Journal of W. Stanley Jevons.*, 1886, p. 101—*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369에서 轉載.

(9) *Ibid.*, p. 89. Jevons는 現實世界의 複雜한 經濟的 事實에 文章上으로나 比喩上으로 氣象學者처럼 接近했다고 하는 Keynes의 主張을 參照 (*Essays in Biography*, p. 267).

그의 恩師인 London의 University College 化學教授인 Thomas Graham에 의해 Sydney에 試金分析家로 推薦된 일이 있고 後에는 造幣局의 master로 推薦되었었다. Australia에서 歸國하자 Jevons는 Kew 氣象臺 자리에 Graham이 추천할 準備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고 1862년에는 Graham이 다시 Glasgow의 Andersonian 研究所의 自然科學講師 자리를 Jevons에게 권했다.

그뿐 아니라 Jevons는 그의 從兄 Harry Roscoe에 의해서도 큰 影響을 받았는데 Roscoe는 Heidelberg에서 Bunsen의 門下生이었고 Manchester의 Owen College의 化學教授가 된 人物이다. Jevons로 하여금 科學研究에 들어가게 한 模範的 人物이 바로 Roscoe였으며 Jevons의 初期論文들에 관한 論評과 出版을 추진해 준 것도, 또 自己 從弟가 經濟學者가 되기로 決心한 데 失望한 것도 Roscoe였다.

그러므로 Jevons의 初期論文들은 구름(雲)의 形態와 같은 問題에 관한 것이었으며, Jevons가 1861년에 그 原稿를 偉大한 天文學者 John F.W. Herschel에게 보냈을 때는 아주 好意 있는 反應이어서 이 兩人 사이의 交通은 그후 10餘年間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Jevons가 적어도 化學이나 氣象學 같은 科學分野에서도 相當히 尊敬받는 生涯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自然科學에 대한 關心을 잊은 일이 결코 없었고 그가 發表한 最終論文의 하나는 「反射된 무지개」라는 氣象學上の 論題였던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實驗科學의 基礎的 修練에 立脚하여 Jevons는 論理와 數學的 訓練을 加一層 쌓았기 때문에 幅넓고도 속깊은 科學的 方法의 知識을 얻게 된 것이다. 結局 Jevons의 自然科學哲學과 社會科學方法論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點에서 Jevons의 經濟學研究體系 속에 자리를 잡아 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째는 George Boole과 De Morgan의 影響을 받아 Jevons는 어떠한 合理的 思想體系는 記號形式으로 表現할 수 있다고 믿었다.⁽¹¹⁾ 그러나 이 體系는 演繹의 連續을 가져오는 論理法則에 따라 操作이 可能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經濟學에서 使用된 論法을 討議하는 데 있어 Jevons는 그 演繹的 性格을 強調한다. 뿐만 아니라 Jevons를 數學을 잘 모르는 數理 經濟學者라고 하는 흔한 批判은 그의 本格的인 研究에 관한 限 Jevons는 本質적으로 數學을 論理學 위에 새우려 努力하는 論理學者였다는 點을 모르는 批判이다. 둘째 點은 Jevons가 틀림없이 그 氣象學的 研究의 影響으로 經濟學에 있어서 統計資料의 研究를 相當히 強調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點들은 科學徒로서의 Jevons의 修練과 그 關心의

(10) Black, *op. cit.*, p.370.

(11) 이들이 Jevons의 經濟學形成에 미친 論理的 數學的 體系의 影響에 관해서는 R.D. Collison Black, "Jevons, Bentham and De Morgan," *Economica*, May 1972, pp.127-134에 詳論되어 있으며, 이 論文에서 特히 London University College에서의 Jevons의 數學系統科目의 受講內容에 관한 資料는 매우 興味있는 部分이다.

性質로도 說明이 可能한 것이고 이것은 經濟學一般과 特히 經濟理論에 대한 Jevons의 寄與의 性格을 說明함에 적지 않은 重要性을 갖는다.

二

Jevons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全體交換理論과 經濟學의 基本問題의 礎石은 아래와 같은 命題에 있다. 任意의 두 개의 商品의 交換比率은 그 交換이 完了된 然後에 消費할 수 있는 商品量의 最終効用度(final degrees of utility)의 率의 逆數가 된다.」⁽¹²⁾

이 말은 分明히 經濟理論의 方向轉換의 意味를 表現한 것인데 이 方向轉換者에게 왜 特定한 方向의 轉換을 戒하게 忤었는지를 물을 必要가 있을 것이다. Spengler教授는 그러한 물음에 回答을 얻을려면 正確한 傳記的 情報가 必要하다고 했지만⁽¹³⁾ Jevons에 關한 이의 回答을 얻는 데는 아래와 같은 Jaffé教授의 表現을 再認識하여야 될 것이다. 즉 「萬一 우리가 正當로 創造的인 概念을 관찰할 것 같으면 設使 그것이 간단한 數學的 記號 속에 숨겨진 것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그 發見者의 社會的, 知的, 物理的 環境에서 뿐만이 아닌 自己自身의 私的인 特徵, 態度 및 天賦의 才能에서 緣由되는 諸要素의 複雜한 結合으로 構成된다는 事實을 알게 된다.」⁽¹⁴⁾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시 Spengler教授가 지적한 것처럼 經濟學의 核心(core)과 外殼(shell)을 區分하는 것이 有用한 出發點이 될 것이다.⁽¹⁵⁾ 오늘날 經濟學者들에게는 經濟的 行爲의 概念이 그들의 主題의 核心에서 基本이 된다는 事實에 疑問을 갖는 사람이 없겠지만 古典派經濟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Jevons가 1860年 以來 試圖하려고 했던 것은 「真正한 經濟理論」을 「아주 縮小된 科學」으로서 明示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이것이 *Theory of Political Economy*의 目的이라고 分明히 말하고 있다. 즉 「그러나 모든 自然科學이 多少間에 그 基盤을 力學의 一般原理에 두고 있듯이 經濟科學의 모든 分科와 部門도 어떤 一般原理에 의해서 貫徹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論文이 注力하고자 하는 바는 이와 같은 原理의 探求에 있으니——즉 自利心과 効用의 機構를 찾아내는 데 있다.」⁽¹⁶⁾

그러면 Jevons가 經濟學의 核心을 經濟的 行爲의 科學으로 確立하려고 했던 原因은 그의 知的 背景과 私的 環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Black의 主張을 살펴 보자. 첫째는 이것이 分明히 自然科學의 訓練을 받은 사람의 接近法이라는 點이다. 그런데도 둘째로는 이것이 Australia에서의 Jevons의 隔離生活에서 發端된 接近法이다. 特히 1858-59年間的

(12) Jevons, *Theory*, p. 139.

(13) Spengler, *op. cit.*, p. 179.

(14) Black, "W.S. Jevons and the Foundation of Modern Economics," *op. cit.*, p. 372.

(15) Spengler, *op. cit.*, p. 187.

(16) Jevons, *Theory*, p. 50.

Jevons의 私的 通信文을 檢討해 보면 그 무렵 그는 自身の 地位와 展望을 「眞正한 經濟와 그 効果로 生을 營爲한다」는 面에서 오래 깊게 생각했었고, 經濟學을 人間の 勤勉의 原因과 結果를 計算하는 一種의 漠然한 數學으로 把握하고 그것을 어떻게 最善으로 應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때 부터 이다.⁽¹⁷⁾

Blaug 教授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많은 著者들이 「限界革命처럼 極端的인 力點의 變化는……그 社會의 制度的 構造의 變化와 새로운 實際問題의 登場과 關聯되어 있음이 確實하다」고 믿고 있다.⁽¹⁸⁾ 그러나 Jevons가 그 理論을 준비하여 活動한 環境에서는 어느 한가지도 이에 들어맞는 것이 있는데 만일 여기서 提示한 解釋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낼 必要가 없다. 왜냐 하면 Spengler 教授가 主張하는 것처럼 假說에 의한 概念에 立脚한 思想體系는 直觀에 의한 概念에 依據하는 경우보다 外部的 影響에 鈍感해질 可能性이 훨씬 큰 것인데——Jevons가 構想하고 있던 論理上的 思想體系는 바로 이런 類型이었기 때문이다.⁽¹⁹⁾

萬一 Jevons가 經濟行爲의 核心을 效用極大化의 過程으로서 表現하려 했다면 그에게는 이 過程의 數學的 論理가 快樂主義의 心理學的인 假定보다 重要했을 것인데 Jevons 自身の 表現을 보면 이 見解가 맞는 것 같다. Jevons는 經濟學研究에서 일어나는 諸變動의 概念化를 追求하고 이에 대한 自身の 寄與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諸變數間의 機能的 相關關係를 內包한 效用概念의 數學的 局面에 第一次的인 比重을 두었던 것이다.⁽²⁰⁾

다음에는 Bentham의 功利主義思想이 Jevons의 經濟學形成에 미친 影響에 관해서 考察해 보자. 우선 Bentham의 接近方法이 Jevons에게 充分히 理解는 되었어도 窮極的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見解라든가, 또는 Jevons가 經濟學을 快樂과 苦痛을 다루는 學問이라고 한 表現은 快樂·苦痛을 經濟的 去來의 側面에서 處理하고자 하는 技術上的 定義에 不過했다는 意見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見解에 대해서 Black는 否定的으로 보고, 적어도 Jevons의 經濟學은 그가 萬一 「効用의 法則」을 定立하는 대신 단순히 「需要의 法則」을 다루었더라면 數量的 經濟學이란 그의 理想에 더 接近할 것이고 보다 나은 經濟學을 成立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²¹⁾

Jevons가 Bentham의 功利主義에 執着한 것은 여러 面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點에 Jevons가 完全하고 首尾一貫性있는 價值 및 分配의 限界理論을 樹立함에 失敗한 主要原因이 있는 것이다. Jevons가 그의 *Theory of Political Economy*의 第二版을 準備하고 있을 때

(17) Black, *op. cit.*

(18) Mark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2nd ed. (1968), p. 5.

(19) Spengler, *op. cit.*, p. 165.

(20) Black, *op. cit.*, p. 373.

(21) Jevons, *Theory*, p. 174, note 41; Black, "Jevons, Bentham and De Morgan," *op. cit.*, pp. 119

Walras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지금 내 생각은 數學的 方法에 의한 著書들로부터의 參考文獻, 記述 및 그로부터의 引用을 完全히 갖춘 大作을 내놓을 작정인데 여기에는 물론 Cournot와 當身(Walras)의 著書의 翻譯을 포함시키고 또한 Gossen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最善의 投策을 利用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計劃을 끝내 實行하지 못했던 것이며 Walras는 Jevons의 이 失敗에 대한 失望을 감추지 않고 있다.⁽²²⁾

1875年初 Jevons는 Walras에게 그해에 自己가 Political Economy Club과 British Association의 Section F에서 數理經濟學에 관한 論文을 發表하겠다고 約束했었다. 그러나 그 內容인즉 前者는 鐵道運營에 관한 것이었고 後者는 石炭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또한 Walras의 期待에 어긋난 것이 되었는데 Jevons는 「効用과 自利」의 基礎原理에 관한 思想을 펴낸 然後 現實問題에 관한 다른 分野의 具體的인 問題들에 關心이 기울어져 갔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Jevons가 初期에 「眞正한 經濟理論」에 관한 最初의 聲明이 注目을 끄는 데 失敗하자 貨幣문제에 관한 統計的 分析에 自己研究의 方向을 바꾸어 成功했던 事實을 記憶할 必要가 있다.

1871년에는 Jevons가 이미 社會科學者로서의 地位가 確立된 때여서 王立統計協會에서 論文을 發表하고 議會委員會에서 證言을 하며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는 Manchester 大學教授로서 活躍하고 있었다. 그런데 當代에 그가 알려지고 尊敬받게 된 것은 理論家로서 보다는 應用經濟學者로서 었던 것이다. *Theory of Political Economy*가 처음에 잘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은 그 內容이 너무 急進的 變化를 要하는 것이었고 또 豫想치 않았던 層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 限界主義者들의 思想이 地盤을 굳히면서 Jevons의 理論家로서의 名聲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때의 Jevons는 이 새 思潮의 普及에만 沒頭한 것이 아니라 同時에 「太陽周期와 穀物價格」(1875)에 관한 研究를 爲始하여 後에 *Methods of Social Reform and Investigations in Currency and Finance*에 收錄된 實際問題에 관한 諸論文을 著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Jevons는 萬一 時間의 餘裕가 있었다라면 經濟理論의 核心問題에 더 많은 時間을 割愛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想定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가 許容된 時間의 範圍內에서 自己思想의 普及에 極大努力을 했는지는 疑問의 餘地가 많다. 畢竟 그가 限界主義의 좁은 문제에 더 集中했다라면 限界革命이 더 빠른 速度로 進行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推定도 可能하다. 모든 科學의 歷史는 一部分 그 推進者의 性格에 의해서도 鑄型되는 것이며 Jevons의 經濟學的 努力의 方向도 어떤 意味에서는 그의 性格的 發露였다고 볼 수 있다. 限界主義의 創設者의 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業績中의 한 가지에 不遇했고 이러한 業績을 評價하는 데는 Jevons의 活動期間이 너무 짧았다는 事實을 想起하여야 될 것

(22) Jaffé,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1965, 1:599, 645.

이다.

三

이제 우리는 Jevons의 *Theory of Political Economy*를 그의 經濟學全般과의 關聯下에서와, 그후 一世紀間의 經濟思想의 展開過程과의 關聯下에서 考察할 차례가 되었다. 지난 一世紀를 回顧해 볼 때 「限界革命」의 一創始者로서 Jevons가 經濟學의 將來의 發展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의 期待가 어느 만큼 實現되었는지를 考察한다는 것은 示唆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갈 알려져 있는 바대로 1870年代는 經濟思想에 있어서 옛 것을 整理하고 새 것을 摸索하는 時期였으며 Jevons는 이 課業에 參與하고 있었다.⁽²³⁾ 「政治經濟學의 將來」에 관한 그의 見解는 1876年の 教授就任講義와 *Theory of Political Economy*의 第二版(1879) 序文에 開陳된 바가 있다. 이들 資料로부터 經濟學의 未來像에 관한 Jevons의 展望을 엿볼 수 있겠는데 한가지 確實한 것은 그의 見解에는 單純한 限界原理의 展開以上の 것이 들어 있다는 點이다. Jevons는 「完全한 歸納的 方法」에 대한 信念을 자주 表現한 바 있는데 이는 演繹的 推論을 經驗的 檢證과 結合함을 뜻했다. 그러므로 그는 「社會의 現在의 經濟狀態는 理論만으로는 說明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믿어 疑心치 않았지만, 그와 同時에 經驗的 歷史的 研究만으로는 演繹的 方法의 도움 없이는 無價値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의하여 그의 有名한 「現段階의 經濟學의 混亂狀態」에 관한 處方이 나오는데 그것은 「分科가 治療方法이다. 우리는 抽象的 理論과 應用理論과 그리고 金融 및 行政에 관한 보다 詳細한 技術로부터 經驗的 要素를 區分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던 商業統計, 數理經濟理論, 體系的・記述的 經濟學, 經濟社會學 그리고 財政學과 같은 여러가지 學問이 發生하게 될 것이다.」⁽²⁴⁾

*Theory of Political Economy*에서 試圖된 모든 基礎經濟理論은 性格上 本質的으로 數學的이어야 되고, 한편 經驗的 研究는 統計的 方法의 應用을 하게 되는 것이다. Spengler教授는 「統計理論과 數理經濟理論과의 接着은 19世紀末 以後까지 進行되지 않았다」⁽²⁵⁾고 指摘한 바 있지만, 이것을 Jevons는 이미 1871년에 示唆하고 있는 것이며 「嚴密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未來의 進步는 그 理論과 關係되는 各種數量의 보다 正確한 情報의 把握에 크게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음」을 強調했다.⁽²⁶⁾ 이리하여 Jevons는 經濟學을 嚴密科學으로, 또는 數學的인 核心과 統計的 外殼을 가진 諸科學의 複合體로 發展할 것을 豫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23) T.W. Hutchison, *A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29*, Chap. 1.

(24) Jevons, *Theory*, Preface to 2nd ed., pp. 49-50.

(25) Spengler, p. 173.

(26) Jevons, *Theory*, p. 174.

一世紀가 지난 後에 *Theory of Political Economy*를 回顧해 볼 때 우리는 Keynes의 다음과 같은 恨歎에 同感할 수 있다. 즉「經濟學을 Bentham의 快樂主義의 要因에 관한 數學的 應用的 學問으로 돌리려던 빛나는 着想이, 지금 우리 앞에 남겨 준 結果는 얼마나 失望스러운가!」⁽²⁷⁾고, 우리는 또 Jevons가 經濟理論을 너무 熱狂的으로 基礎力學과 同一視한 面의 危險性을 冷靜히 指摘할 수도 있겠다.⁽²⁸⁾

그러나 Jevons를 善게 評價하자면 우리는 그가 試圖한 모든 것은 그가 高度로 複合的인 科學이라고 보았던 바의 아주 基本的인 部分에 관한 開拓者의 功績이었다는 사실을 想起하여야 할 것이다. 限界革命에 관해서 어떻게 評價하든지 간에 우리가 最近에 또다른 經濟學上의 變化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否定하지 못할 것이며, 萬一 그 變化의 內容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理論의 嚴正性의 增大와 그 計量經濟學的 檢證의 強調라고 對答하게 될 것이다. 萬一 Jevons가 1971年의 經濟學에 관한 意見을 披瀝하게 되었다고 할 때 이단한 水準에 到達하는 데 그처럼 오래 걸린 데 대한 驚歎을 나타낼지는 疑心스럽다고 본다. 왜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그가 가르친 論理性과 計測法의 必要性에 관한 教訓을 應用하는 段階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Jevons가 近代經濟學의 基礎에 심어놓은 獨創性과 貢獻의 源泉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Léon Walras

「限界革命」이 단순히, 限界效用理論에 의한 生産費價值說의 轉覆이라고 解釋되던 때에 Léon Walras의 「功績」을 평가한다는 것과, 「限界革命」이 雄大한 規模의 模型造成(model building)의 開始期로 풀이되는 때의 評價는 判異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는 均衡이란, 理想的的競爭條件下에서 交換, 生産, 資本形成 및 貨幣의 全體系가 限界價值均等化의 傾向을 갖는 하나의 裝置라고 定義된다. 後日本質的으로 數學的인 現象으로 보이게 된 1870年代의 革命은 經濟學이 直觀에 의해 推論해 나가는 文章의 講話의 分科로부터 嚴密한 數學的 學問으로 變身해 간 轉換點이라고도 볼 수 있다.

「限界革命」에 관한 事後的 說明의 多樣性에는 限定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限界效用革新이라 볼 수 있는 事件 그 自體를 概觀하면서 Léon Walras가 어떻게 이에 加擔하게 되었는가를 살피고 이를 그 時代의 背景에서 觀照해 본다면 그의 「功績」을 正當하게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Léon Walras가 革命家로서 舞臺에 처음 登場한 것은 1873年 8月 16 및 23日이었다. 그는 이 兩日에 Paris 科學아카데미의 道德 및 政治學部에서 '*Principe d'une théorie mathématique*

(27) Keynes, *Essays in Biography*, p. 155.

(28) Schubik, "A Curmudgeon's Guide to Micro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 (June 1970), p. 410.

de l'échange'란 題下의 論文을 發表한 것이다. 이는 始終 價値理論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과 政治經濟學의 數學的 學問으로의 轉換을 鼓吹한 大膽한 論文이었는데, 더구나 그것이 經濟理論家로서 처음 登場하는 「局外者」에 의해서 提起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主張이 有關하고 革新的이기는 했어도 別다른 理解도 얻지 못한 채 反感만 살려 일으켰다. Walras는 憤激과 反抗心을 안고 會場을 떠나야 했다.⁽¹⁾

이때 그는 一團의 同志들이 있어서 이들이 事實上 先制點을 따버렸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바로 그후 自己가 限界効用宣言을 한 最初의 人物이 아님을 알았을 때는 體面이 損傷되었지만 事實은 그럴 必要가 있었던 것이 “Principe d'une théorie mathématique de l'échange”는 卓越한 內容과 極히 重要的 特色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W. Stanley Jevons의 *Theory of Political Economy*(1871)나 Carl Menger의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1871)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內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特色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Walras의 處女論文(1873)에 대한 以下の 說明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이 論文은 純粹經濟學의 應用經濟學에 대한 關係를 論하는 데서 시작하여 우리가 *laissez-faire*나 *laissez-passer*의 相對的 利點을 效率이나 公正에 立脚해서 評價하기 전에 먼저 交換과 生産에 있어서의 自由競爭의 「自然的이고 必然的인」 歸結에 관해서 研究해야 된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우선 一定量의 生産的 用役이 주어졌다고 할 때 自由競爭의 作用은 만드시 다음과 같은 結果를 낳게 마련이다. 즉 一定期間이 經過한 後 (1)一定量의 各種 生産物이 產出되고 (2)이 生産物의 各單位는 一定時點에서 一定한 價格을 갖게 되며 (3)生産的 用役의 各單位도 各時點마다 一定한 價格을 갖게 된다. 이때 純粹理論의 目的은 「自由競爭」의 이러한 세 가지 效果 즉 生産物의 量, 그 價格 및 生産的 用役의 價格이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研究하는 일이다. 이 研究에 대한 解答은 「自由競爭」의 세 가지 效果가 未知로 표시되는 하나의 方程式體系를 풀므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Walras가 지적했듯이 問題를 이런 方式으로 보면 極히 龍大하고 複雜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두 가지 段階로 나누어 考察하면 單純化가 可能하다. 첫째 段階에서는 生産이 없는 것으로 假定하기 때문에 問題는, Walras가 탄한 것처럼 「一定量의 商品이 주어졌을 때 그들 商品의 價格이 根이 되는 方程式體系를 形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數理的 交換理論이 目的하는 內容이다. 一々 첫째 段階가 定立되면 둘째 段階에의 길이 열린다. 이제 生産이 體系內에 들어 오고 交換理論에서 事前에 所與되었던 商品이, 適切한 結合에 의하여 生産的 用役을 購入한 結果로 얻어지는 生産物로 代置된다. 그러므로 第二段

(1) W. Jaffé, “Léon Walras's Role in the 'Marginal Revolution' of the 1870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380-381; L. Walras, *Elements of Pure Economics*, Translated by W. Jaffé, 1954, pp. 567-68, Collation note (b) to Lesson 8.

階에서는 問題가, Walras의 말로 「一定量의 生産의 用役이 所與되었을 때 (1) 生産物의 生産量, (2) 이들 生産物의 價格, (3) 生産的 用役의 價格을 그 根으로 삼는 方程式體系를 만드는 데 있다.」

이처럼 Walras에게는 純粹經濟學이 「物理·數學的」科學이라고 自己가 부른 形式을 갖 추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眞코 새로운 것이라고 主張하지는 않았다. 經濟學은 重農主義 者들의 著書와 Ricardo에서 John Stuart Mill에 이르기까지의 英國經濟學者들의 論著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랫동안 그러한 種類의 科學이었던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들 經濟學者들은 數 學的 思考를 日常言語로 나타냈기 때문에 구차스럽고 不適切한 것이었다는 點이다. Walras 에 의하면 Cournot는 數學을 經濟學에 明確하고 有能하게 利用한 最初의 人物이었기 때문에 著書에서 Cournot에 대한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 있다. 同時에 Walras는 自己의 著書 에서는 Cournot와는 全然 다른 固有의 路線을 따랐다고 主張한다. 自己의 經濟學은 一 般의인 경우라고 보는 「自由競爭」을 出發點으로 하여 獨占은 다만 特殊한 경우로 取扱하 는 데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Cournot는 獨占을 그의 出發點으로 하여 거기 서부터 한기름씩 無制限의 競爭에 關한 分析으로 接近해 간다. 또한 Walras는 自己 數學 은 그 形式的 表現을 爲해 主로 分析幾何學의 基本原理에 依存하는데 反하여 Cournot는 全的으로 微積分에 依存한 點이 다르다고 했다.⁽²⁾

여기서 Walras는 그 論文의 나머지를 2個의 商品만이 相互交換되는 가장 單純한 形式의 交換理論에 割愛하고 있다. Academy에서 發表한 論文의 第2節 및 4節은 *Eléments*의 第一 版 *Lessons* 9~13에 나시 收錄되어 있는데⁽³⁾ 여기서 Walras는 2個의 商品만이 交換되는 完全競爭市場에서의 價格決定問題를 分析的으로 다루고 있다. Walras가 定義하는 理想的 完全競爭市場이란, 契約이 맺어지기에 앞서 正 또는 負의 超過需要가 排除된 中心點으로 의 賣買價格의 흐름에 아무런 摩擦이나 硬直性이 없는 狀態를 말한다. 이때에 契約은 固 有의 經常的 均衡價格에서 履行되는 것이다. 超過需要의 排除過程은 正常的으로는 最善으 로 組織된 市場에서는 仲介人에게 맡겨지는데, 이 仲介人의 行動은 大體히 機械的이기 때 문에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나 計算機가 해 낼 수 있을 만큼이나 正確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Walras는 그의 稀少性(*rareté*)의 理論 즉 限界効用의 理論을 다루고 있는데 가 령 「需要曲線은 어떻게 効用가 所有量에서 나오는가」 또는 「*rareté* 즉 交換價値의 原因」 등 의 問題提起에서 보이듯이⁽⁴⁾ *rareté* 또는 限界効用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競爭的 市場 機構를 움직이는 힘을 供給해 주는 基本動機이다. 그러나 문제는 Léon Walras가 自己의 著作에 限界効用原理를 導入하는 態度와 이에 附與하는 役割의 두 가지에 있다고 본다.

(2) W. Jaffé, *ibid.*, pp. 381-382.

(3) L. Walras, *op. cit.*, *Lessons* 5, 6, and 7.

(4) L. Walras, *ibid.*, *Lessons* 8, 9, and 10.

Léon Walras를, 그의 革命同志에게서 區別케 하고 또 Jevons나 Menger보다도 1930年代以後 最近의 經濟理論의 發展에서 있어 가장 頻繁히 引用되는 人氣있는 元祖가 되게 한 것도 이 때문임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R.G.D. Allen도 1956年에 「交換의 均衡分析은 Walras가 別般 補完이 必要하지 않을 만큼의 形態로 남겨 놓았다」고 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⁵⁾

出發點에서부터 Walras는 다른 아무런 前提를 考慮치 않은 채 市場價格決定의 分析에 바로 限界効用理論을 導入했다. 그의 모든 精力은 消費에 대해서가 아니라 市場現象에 集中되고 있었다. 이 點은, 限界効用遞減을 想定하는 데 「一商品의 附加的인 한 單位 또는 部分에 대한 欲望의 強度는 同商品의 消費가 增加함에 따라 減少한다는 것이 認定되어야 한다」고 말한 事實에서 들어난다.⁽⁶⁾ 여기서 消費는 附隨的으로밖에 言及되어 있지 않다. Walras가 본 것처럼 交換理論의 推進力은 모든 交換者가 그 여리까지 欲望充足을 極大化하려는 効力이기 때문에 Walras가 생각했던 欲望充足이란 市場에서의 滿足이지 食卓에서의 滿足이 아니다.⁽⁷⁾ 消費에 관한 그의 간단한 比喩는 그가 모든 去來는 最終消費를 目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消費에 있어서의 一般의 經驗이 去來者의 買賣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完全히 理解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기에 充分하다. Walras가 그 以上 나가지 않은 理由는 事實上 그는 經濟學의 全體系를 交換學(Catallactiss)이란 面에서 定義하였기 때문이다.⁽⁸⁾ 萬一 그가 限界効用, rareté 또는 限界効用兩數를 外生決定的 媒介變數라고 認定하는 以上으로 나갔더라면 그는 交換科學의 테두리를 벗어났었을 것이다. 經濟學者가 驅使할 수 있는 分析裝置가 이러한 函數를 生理學的, 心理學的 또는 社會學的이라고 보는 決定因으로부터 導出하는 것이 不當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消費經驗에서 일어 난다는 것도 그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 見解는 Walras의 *Eléments* 全般을 통한 一般的 論調에서 뿐만 아니라 語句使用에 있어서의 一部 巧妙한 點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가령 1873年の 論文에서 그는 rareté(限界効用)을 「一商品의 所有量에 의해서 充足되는 最終欲望의 強度」로 定義했다. *Eléments*의 第一版에서는 rareté가 「所有量과 關係되는 有効(즉 全部) 効用의 派生物」이라고 하여 보다 技術的으로 定義되어 있다.⁽⁹⁾ 奇妙한 것은 *Eléments*의 第二版(1889)에서 아무런 說明도 없이 文脈上의 아무런 變更도 없이 그가 이에 관한 定義에서 「所有量」을 「消費量」으로 고쳤다는 點이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自己의 定義를 *Eléments*의 初版과 第二版出現 사이의 中間에 그들의 著作을 알게 된 Jevons와 Menger의 定義에 一致시키기 위한 便宜上의 意味이지 原理上의 理由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Eléments*의 어떤 版을 보든 우리는

(5) R.G.D. Allen, *Mathematical Economics*, 1956, p. 314.

(6) L. Walras, *op. cit.*, Lesson 8, § 74-75.

(7) Stigler, *Essay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1965, p. 124.

(8) J.A. Schumpeter,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 911.

(9) L. Walras, *op. cit.*

去來者들이 限界効用과 價格間의 比例關係를 成立시킨다고 想定하는 것은 競爭市場에서의 交換을 통해서란 뜻이지 다른 過程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때 다음과 같은 두 組의 外生的 決定因이 所與되었다는 假定이 있다. 즉 첫째는 去來者의 限界効用 函數와 둘째는 그들의 期初所有量이 그것이다.

이처럼 限界効用理論을 競爭的 市場價格의 決定理論의 一部分으로 導入하여 Walras는 限界効用과 市場價格 사이의 分析的 關係를 明確히 定義해 범으로써 Menger 나 Jevons 보다 훨씬 成功을 거두었다. 分析的으로 볼 때 Menger는 말과 소를 交換하는 2人의 孤立된 物物交換者의 경우에 있어서의 「需要充足」(Bedürfnissbefriedigungen)의 所與規模와 交換된 量과의 사이의 關係를 表現하는 以上은 나가지 못한 것이다. 물론 Menger도 그가 「雙方的 競爭」(beiderseitiger Konkurrenz)의 경우를 終結지을 때에는 限界効用理論을 競爭的 市場에서의 價格形成을 說明하는 데까지 擴大할 意圖가 있었지만 그의 限界効用尺度와 價格形成間의 聯關은 分析的 基盤을 喪失하고 만 것이다.⁽¹⁰⁾

한편 이 면에서 Jevons의 業績이 Menger의 그것보다 나은지의 與否는 Jevons가 그의 有名한 「交換方程式」을 導出하는 主張을 어떻게 評價하느냐의 解釋에 달려 있다 하겠다.⁽¹¹⁾ Jevons가 自己의 「最終効用度」의 理論을 競爭的 市場의 價格決定過程에 連結시키는 方法이 너무나 模糊했기 때문에 Walras는 所期の 連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印象을 받았던 것이다. 限界効用概念을 說明하는 데 數學的 精密性에 優位를 두어야 하는 Jevons의 主張을 論評하면서 Walras는 Jevons가 均衡價格의 決定問題를 푸는 데 不可缺한 極大効用의 考察에서 「有効需要方程式」을 導出할 機會를 놓쳐 버렸다고 斷言한 것이다.⁽¹²⁾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Jevons는 完全競爭市場에서의 價格決定에 관한 說明을 「最終効用度」의 理論과 並列로 놓았는데 反하여 Walras는 이의 分析的 統合을 期했다는 點이다.

二

經濟分析史家에게 特別한 關心之事는 Léon Walras가 어떻게 限界効用に 관해서, 그 特徵이 形式보다 그 着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와 같은 것처럼 特殊한 概念에 到達케 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多幸히 Walras는 自己의 私生活의 歷史를 엿볼 수 있는 많은 記錄을 後世에 남겨 놓았다.⁽¹³⁾ 이러한 記錄들은 「限界革命」의 起源에 관한 새로운 資料를 提供해 줄 뿐 아니라 科學上의 發見過程에 관한 實例研究를 爲해서도 훌륭한 資料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傳記的 考察이 아주 劇的인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은

(10) C.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 pp. 163-67, pp. 201-5.

(11) 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Pelican edition, 1970, p. 143.

(12) W. Jaffé, *op cit.*, p. 386.

(13) W. Jaffé, ed.,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1965.

아니다. 根本적으로 새로운 理論이 단 한번의 閃光처럼 그 發見자에게 번득여서 생긴 것도 아니고 發見자가 先天的으로 非常한 재주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다. 오히려 交換價值問題의 解決을 志向하던 Léon Walras의 길은 길고도 지루한 路程이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Auguste Walras 에 의해 이미 1831년에 發端된 것이었지만⁽¹⁴⁾ Léon에 의해 繼續 짓밟혀 오다가 1859년부터 理解되기 시작하여 1872년에야 겨우 햇빛을 보게 되었다는 點에서 Léon Walras의 「限界革命」에의 寄與는 事實上은 Walras 家の 二世대에 걸친 努力의 結實이었던 것이다.

Auguste Walras가 價値理論과 經濟學全般에 關心을 갖게 된 것은 그가 1820年代 後半에 法律工夫를 시작하여 民法典에 規定된 財産에 관한 法學的 概念에 不滿을 품게 된 때부터이다. 哲學的인 關心이 있는데다가 私有財産의 正當性에 대한 當代 社會主義者들의 攻撃에 影響을 받고서 그는 公共財産과 私有財産 사이의 區分을 짓기 위하여 社會主義者들보다 더 論理的으로 一貫性있는 基盤을 찾고 있었다. 다음에 그는 經濟學의 主要書籍들에서 이의 解答을 얻고자 했으나 여기서도 亦是 失望이었다.⁽¹⁵⁾ 不滿은 그들의 價値理論의 缺陷에 있었다. 왜냐하면 滿足스런 價値理論 없이는 適切한 財産理論도 成立不可能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萬一財産이라는 것이 公共用이든 私用이든 간에 價値가 없다고 하면 아무 것도 專有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英國式的 勞動乃至 生産費價値說도 佛蘭西式의 効用理論도 이를 說明하지 못한 것이다. Auguste Walras가 主張한 眞正한 價値源泉은 勞動도 生産費도 効用도 아닌 稀少性을 뜻하는 rareté 즉 限界効用이다. 稀少한 것만이, 즉 効用을 가진 同時에 그 量이 制限되어 있는 것만이 價値를 가졌고 그러한 對象에 限해서만 財産權이 附與되는 것이다.

rareté 또는 稀少性이란 術語의 通常의 意味에 精密性을 附與하기 위해 Auguste Walras는, 財貨를 欲求하되 各己 한 單位 以上은 願하지 않는다고 想定한 사람들의 數의, 可用財貨總量에 대한 比率이 rareté 라고 定義했다.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그는 rareté의 數學的 定義에 基本的인 瑕疵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861年 5月 18日에 그는 自己 아들 Léon에 게 自己는 同人이 그 趣味, 年齡, 性, 財産 등에 따라 흔히 同一財貨의 한 單位 以上을 願한다는 事實로 因해서 困難을 받고 있다고 쓴 일이 있다. 個人은 相互間 여러 面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령 財貨 두 單位를 願한다고 두 사람으로 看做하는 등의 方便에 依存할 수는 없다. 그래서 Auguste Walras는 그가 처음에 rareté가 定義되고 測定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比率의 첫 條件은 無意味하다고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比較不

(14) Auguste Walras, *De la nature de la richesse et de l'origine de la valeur*, 1831.

(15) Auguste Walras가 涉獵한 프랑스의 主要經濟學者는 J.B. Say, Destutt de Tracy, Charles Ganih, Nicholas Massias, Simonde de Sismondi 등이고 英國學者는 Adam Smith, David Ricardo, James Mill, John Ramsay, McCulloch 등이었다. W. Jaffé, *op. cit.*, p. 388, 參照.

可能하고 加算이 不可能한 實體의 總和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難點이 欲望의 標準單位의 確定을 不可能하게 했기 때문에 Auguste Walras는 그러한 難點들이 克服되기 전까지는 經濟學이 力學, 物理學, 音響學, 光學과 같이 數理的인 科學은 될 수 없다고 結論 지었던 것이다.

Léon으로 하여금 自己의 限界效用理論에서 結實을 맺게 된 오랜 試圖에 精進게 한 契機는 바로 그 父親의 이러한 結論에 含蓄된 挑戰이었던 것이다. Léon이 이 難點을 듣게 된 最初의 人物이기 때문에 이 問題를 豫示하는 데 父親의 德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Auguste Walras의 推論方法만 좇았다라면 限界効用의 이무런 概念도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 分明하다. Auguste Walras가 rareté를 速度와 比較한 것조차, 「마치 速度가 所要時間에 대한 달린 距離의 比率인 것처럼, rareté는 欲求를 充足시킬 可用財貨의 總供給의 欲望總量에 대한 比率이다」라고 함으로써 損傷을 입게 되었다.⁽¹⁶⁾

萬一 Auguste Walras가 Léon Walras의 限界効用의 發見을 直接的으로 啓導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밖에 어떠한 人物이 이에 影響을 미쳤는가? 効用의 需要에 대한 關係의 分析은 무엇이든지 故意的으로 回避했던 Cournot가 아닌 것은 確實하다. 그러면 Geneva 大學 法學教授였던 Jacques Burlamaqui(1694~1748)인가? 그의 이름을 Léon Walras가 價値의 源泉問題를 正確히 解決한 사람으로서 自己 父親과 同列로 보았던 것이다.⁽¹⁷⁾

Burlamaqui는 Schumpeter의 辭典的인 *History of Economic Analysis*에서조차 限界効用의 前史研究와 關聯이 깊은 一團의 人名 속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그는 Léon Walras가 經濟學徒로서의 初年기에 親熟해진 몇 안되는 著書의 筆者中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注目の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Burlamaqui의 著書 *Elément du droit naturel*에서 얻은 바가 적지 않았던 Auguste Walras는 그를 自己의 rareté 理論의 참다운 先行者로 보고 있었다.⁽¹⁸⁾

그러나 價値 및 價格과 稀少性의 關係에 관한 이 모든 洞察에도 不拘하고 限界効用理論의 數學的 形式化의 可能性을 提供한 것은 Léon Walras가 初期段階에 읽었던 Burlamaqui도, Genovesi, Turgot, Condillac, Nassau Senior도 아니었다.⁽¹⁹⁾ 그들은 결코 自己들의 主張을 精密한 分析的 次元에까지 洗鍊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의 價値에 관한 探求는 Auguste Walras에 比해서는 한결 散漫했다고 볼 수 있다. Léon Walras가 1874年 以前에 읽었다고 보는 諸文獻에 관해서는 問題를 露出시켜 주었다고 하는 以上の 主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Léon Walras가 窮極的으로 問題를 解決하게 되는 過程에 관한 豫想的 暗示를

(16) W. Jaffé, "Léon Walras's Role," *op. cit.*, pp. 388-389.

(17) L. Walras, *op. cit.*, Lesson 16, pp. 203-204.

(18) W. Jaffé, *op. cit.*, p. 391.

(19) L. Walras, *op. cit.*, p. 204.

그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으므로 以下에서는 Léon Walras의 原稿와 作業手帖에서 그러한 示唆를 얻어 볼까 한다.

三

우선 여기서 “*Application des mathématiques à l'économie politique*”라는 題目이 불려지고 “1ère Tentative, 1860”라고 부리는 原稿에 관해서 檢討해 보기로 하자.⁽²⁰⁾ 이것은 相當한 價値가 있는데도 그가 遺憾스럽게도 出版하지 않은 業績이다. 여기서의 모든 努力은 「物件의 價格은 供給量에 逆比例率이고 需要量에 正比率이다」라는 命題에 意味를 附與하는 데 集中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供給量이란 考察對象에 드는 몇 사람의 個人이 現在所有하는 總量이며 需要量은 그들의 欲望이나 必要의 總量을 말한다. 그는 自己의 이 函數 $V=F(q_d, q_0)$ *를 說明하기 위해 三次元의 正確하게 그린 圖形을 利用했는데도 Cournot를 攻擊하느라고 간단한 代數學의 途路에 빠지 自信을 잃고 말았다. Auguste Walras가 自己主張의 基盤으로 삼았던 rareté의 準數學的 定義는 Léon을 完全히 迷宮에 빠지게 한 것이다. “1ère Tentative”는 Léon Walras가 結局 達成하게 된 目標로 向하는 進展過程에 何等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음의 分析的 原稿도 亦是 “*Application des mathématiques à l'économie politique*”이지만 “2ème Tentative, 1869~1870”이라고 指稱되고 있는데 이것은 前者와는 判異하여, 그가 連續해서 職場을 轉轉하느라고 理論의 研究를 할 時間이 許容되지 않던 무렵인데도 그의 一般均衡模型의 構造의 類型을 形成하는 데 相當한 進展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論文이다. 그는 여기서 後에 *Eléments*에서 利用한 交換方程式을 만들고 다음에는 이 交換메커니즘의 理論을 첫째는 2個商品市場의 경우에 둘째는 多數商品市場의 경우에 發展시키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²¹⁾ 이는 1商品의 供給量에 대한 需要量의 比率을 無意味한 것으로 排擊한 Cournot의 誤謬를 證明하리던 ‘1ère Tentative’때부터의 잘못된 決意를 弱화시키지 않았다. Léon Walras는 如前히 그의 父親의 rareté概念에 迷달리고 있었는데 이물 그는, 모든 消費者를 함께 보았을 때 1商品의 効用의, 當該商品의 總存在量에 대한 比率로 表示했던 것이다. 勿論 이 表現이 以前보다 自信이 弱화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自己에게도 露出된 父親의 末年의 不滿을 回想하면서 1861년에 Léon은 이 比率의 첫째 條件은 둘째번의 非線型函數이기 때문에 相對的인 rareté의 測定基準을 確定한다는 것이 不可能함을 認하고 있다. 그의 無理한 代數學利用이 無用했던 것이다.

Léon Walras가 1870年 12月 經濟學教授로 就任하기 위해 Lausanne에 到着하던 때에 가

(20) W. Jaffé, ed., *Correspondence, op. cit.*, 1 : 216-17, n.

(21) L. Walras, *op. cit.*, pp. 86-88; pp. 115-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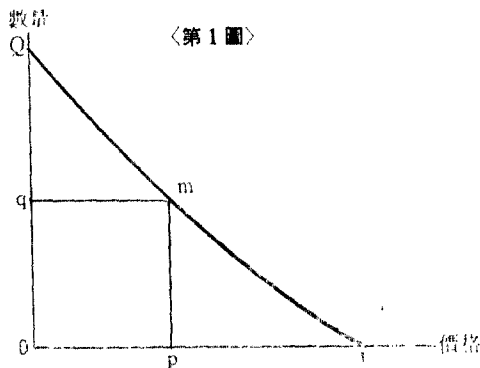
* 여기서 V는 價値, q_d 는 需要量, q_0 는 供給量이며, 價値는 需要量이 增加할 때 增加하고 供給量이 增加하면 減少함을 나타낸 것임.

저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투른 數理經濟學과 一般均衡에의 洞察力이 뒤범벅된 보따리였다. 이 보따리 속에는 분명히 自己父親의 rareté 概念을 活用하고자 하는 끈덕진 執念以外에는 限界革命者로서의 終局的인 役割을 나타낼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Léon Walras의 限界効用概念에의 進展을 研究하는 데 興味있는 마지막의 原稿는 그가 1872年 1월에 Geneva에서 맡게 된 一聯의 講義를 위해 Lausanne에서 準備했던 「노트」이다. (22)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늦은 이때까지도 그가 아직 解決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엿보기 위해서 우리는 交換理論에서의 効用問題를 다룬 第 2, 第 4 및 第 5次 講義를 위한 「노트」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所與된 1商品에 대한 需要曲線을 論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 曲線을 決定하는 諸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이 列擧하고 있다. 즉 (가) 需要曲線의 數量軸에 대한 切線을 決定하는 効用的 擴大 (l'utilité d'extension), (나) 需要曲線의 기울기를 決定한다고 하는 効用的 強度 (l'utilité d'intensité), (다) 現存하는 商品總量, (라) 이 總量의 當該社會 所有者間에 있어서의 分配狀況, 여기서 그는 이들 要因中 둘째번이 測定不可能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効用이 그의 論議에 다시 導入되는 것은 그가 「諸價格曲線」이라고 부른 것과의 關聯에서이다. 이 「諸價格曲線」이란 팔릴 수 있는 어떠한 價格으로든 販賣하기 위해 市場에 내놓은 一定 總量의 函數로서의 需要價格을 나타낸다. 이 一定總量이 相異한 값을 갖는데 따라, 즉 그 數量의 媒介變數가 移行됨에 따라 相異한 價格이 形成되고 이렇게 해서 Walras는 그가 하나의 「價格曲線」이라고 부른 特殊한 種類의 需要曲線을 얻어 냈다. 그는 여기서 이 概念을 *Eléments*에 導入했으나 거기서는 아주 간단히 言及했을 뿐이고 (23) 대신 1872年初의 Geneva講義의 「노트」에서는 効用的 「價格函數」에 대한 關係에 관한 特異한 推論을 그로부터 導出한 것이다. 다음 <第1圖>는 Walras式으로 水平軸으로 價格을 測定하는 圖表인데 여기서 그는 總面積 QOP를 그러한 曲線에 의한 「實際効用」이라 불렀고



(22) 이 原稿는 “Système des phénomènes économiques 1872”라 불리며 Jaffé, ed., *Correspondence*, *op. cit.*, 1: 293-96, n.2에 그 內容이 要約되어 있다.

(23) *Eléments*, *op. cit.*, p. 197.

曲線內에서 그 한 모퉁이가 曲線에 內接하고 그 對角의 反對 모퉁이는 原點과 一致되고 있는 矩形 $qOpm$ 의 面積을 「有効効用」이라고 하였으니 이 矩形外部에서 한 面이 價格軸과 一致하는 三角形 mpP 를 「어떤 價格(Op)으로 支拂하는 者가, 必要할 경우 實際로 犧牲하는 것 以上으로 얼고자 하게 되는 價値量」이라 보았다.

이 說明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全然 引用치 않은 채 消費者剩餘를 包含하는 Dupuit의 作圖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Eléments*의 第一版의 1877 年度版에서 Walras가 Dupuit의 理論을 尙尙하게 恨뜯고 그것을 「가장 重大한 誤謬의 하나」라고 攻擊한 것을 想起하면 奇異한 感이 들지 않을 수 없다.⁽²⁴⁾ 여러 해 동안 Léon Walras와 Pareto는 Dupuit, Alfred Marshall, Auspitz와 Lieben을 이른바 需要曲線을 効用曲線과 同一視했다는 名目으로 破門宣告를 내리는 데 지킬 餘를 몰랐다.⁽²⁵⁾ Walras와 Pareto의 눈에는 이것이 聖靈에 대한 原罪로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Walras도 햇빛을 보기 前인 1871년의 初期에만 해도 이와 꼭 같은 原罪를 犯했던 것으로서 効用曲線을 個別的 需要曲線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쁘게 市場需要曲線과 同一視하였던 것이다. 當時 그는 여기에 効用의 個人間 比較는 勿論이요 需要되는 商品과의 交換으로 提供되는 그 어떤 것이든 이의 限界効用이 一定하다는 假定이 內包되어 있다는 事實을 全般的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直後인 1873年 8월에 *Académie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에서 發表한 論文으로 첫 登場을 하게 된 Walras版 限界効用理論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暗示는 찾아 볼 수 있다. 1872年 初에도 均衡價格이 決定되는 集計의 市場過程의 數學的 理論을 포함하여 一般均衡「모델」의 裝置에 관한 相當部分의 進展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Léon Walras는 暗中摸索하고 있었음이 分明하다.

Walras는 *rareté*를 自己「모델」속에서 統合시키는 데 아직도 成功치 못했음을 苦痛스럽게 是認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自己 父親의 *rareté* 概念으로부터 脫皮하여 그것을 微分係數의 概念으로 再定義하게 된 때에 비로소 滿足할만한 統合이 可能하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이때에 비로소 Walras가 「限界革命」에 參與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轉機는 1872年 연제인가에 마련되었다. Walras는 自己의 數學的 知識의 不充分性を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던 디이므로 數學者同僚들과 恒時 討論하고 質問을 캐묻곤 하는 習慣이 있었다. 이들 同僚中 Paul Piccard (1844--1920?)라는 當時 *Academy of Lausanne*의 力學教授가 있었다. 우리는 Léon Walras가 어떻게 質問을 展開했는지는 正確히 모르지만 事後에 그가 Piccard에게 쓴 書翰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그 質問이 効用과 數量을 考慮해서 需要曲線을 그려내는 일과 關係가 있었던 것 같다.⁽²⁶⁾

(24) *Ibid.*, pp. 443-446.

(25) Jaffé, ed.,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op. cit.*, 2: 343-47; Pareto, *Manual of Political Economy*, tran. Ann S. Schwier, 1971, p. 426.

(26) Jaffé. *op. cit.*, 1: 345-47.

Piccard가 할 일은 去來者의 極大滿足의 條件을 確立하기 위해서 必要한 아주 간단한 分析手段을 Léon Walras에게 만들어 주는 데 있었다. Piccard의 說明은 이 時期의 Walras의 數學的 知識을 簡單하였음인지 아주 初步的인 水準의 것이었다. 그의 論述方法은 實際로 모두 幾何學의 方法이었고 다만 結論만이 分析的 記號로 表示되어 있다. 負의 方向으로 기울어진 두 개의 限界需要曲線에서 出發하여, Piccard는 이를 商品 (A)와 (B) 各各에 대한 一定去來者의 需要曲線(courbes de besion)이라 부르고 있는데, 同去來者에게 (A)商品 一定量을 割當하고 (B)商品은 割當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市場에 通用될 (B)로 表示한 (A)의 一定價格을 想定하고 이와 같은 條件下에서 이 去來者가 曲線內의 境界面積의 合計로 認定되는 自己의 地位를 改善키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 Piccard는 이 去來의 (B)商品에 관한 限界效用曲線內의 最終 小量增加분이 同去來者의 (A)商品에 관한 限界效用曲線內의 面積의 最終 小量減少와 같아지는 點에서 交換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은 豫算制約 (budget constraint)이라고 알려져 있는 條件에 따라 이 境界面積의 合計가 極大화된다는 點을 指摘했다. 去來者의 滿足極大화가 達成되는 臨界點에서 잃은 部分과 얻은 部分의 小面積의 次元을 記號로 表示한 然後 Piccard는 去來者를 위한 眞正으로 最善의 均衡條件이 무엇인가, 즉 (B)의 獲得量의 限界效用과, (B)로 表示한 (A)價格의 逆數로 乘한 (A)의 나머지 保有量의 限界效用과의 均等이 사실상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言及했다. 이 方程式을 두 개단의 變數를 갖는 것으로 單純化시키기 위해서는 (B)商品의 獲得量이, (A)商品의 拋棄量을 (B)商品으로 나타낸 그 價格과 乘한 値로 表示되었다. 즉, (27)

$$\Psi(A_0 p_a) = \frac{1}{p_a} \cdot \phi(Q_a - a_0)$$

그리하여 적어도 이 方程式은 Piccard의 論證上的 缺陷을 是正하기 위해서 Walras의 손으로 原稿에 삽입된 듯하다. Piccard는 「이 方程式은 必要한 曲線 以外的 아무 것도 아닌 데 왜냐하면 그것이 包容하고 있는 唯一의 變數는 P_a 와 A_0 이기 때문이다」라고 結論짓고 있다. 實際로 그는 賣出曲線을 導出했지만 2個商品의 경우 1商品의 賣出曲線은 他商品에 대한 需要曲線에서 導出되기 때문에 그것이 何等の 本質的 差異를 낳는 것은 아니다. (28)

Léon Walras가 自己의 洗鍊되고 分析的으로 다루기 쉬운 限界效用概念을 抽出해 낸 것은 疑心할 餘地도 없이 Piccard의 數學的 論證에 힘입은 것이었다. 個個人의 需要曲線을 限界效用曲線에서 導出した Piccard의 方法은 Walras에게 諸商品의 raretés가 그 市場價格에 대해 比例關係에 있다는 基本定理을 發見하는 端緒를 提供했던 것이다. 즉,

$$r_a : r_b : r_c \dots : p_a : p_b : p_c \dots$$

(27) 이 方程式에서 Q_a 는 同商人의 (A)商品에 대한 原所有量, A_0 는 交換에서 拋棄한 (A)商品의 數量, p_a 는 (B)商品으로 나타낸 (A)商品의 價格, ϕ 와 Ψ 는 (A)商品과 (B)商品 各各의 限界效用函數이다.

(28) "Léon Walras's Role," *op.cit.*, p. 398.

그러나 이것은 眞正한 Léon Walras의 發見이었다.⁽²⁹⁾ 왜냐하면 Piccard의 「노트」는 萬一 Léon Walras가, 처음에 自己 父親에 의해서 示唆되었던 効用・稀少性을 市場價格의 決定에 關係시키는 問題에 以前부터 注目해오지 않았던들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Walras가 限界効用을 指稱하는데, 文獻上 다른 用語를 알게 된 然後에조차 물려 받은 用語인 rareté를 固執했던 것도 놀랄 바가 아니다.

이 發見의 背後에서 Auguste Walras의 影響력이 얼마나 컸던가는 「rareté가 價値의 原因」이라고 한 自己 父親의 標語를 固執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Léon이 이 標語에 說得力의 外觀을 갖추었기 때문에 Walras家 父子에 의해서 이 因果關係는 分明히 充分치는 못하지만 必要한 두 개의 條件인 普遍的 共存性和 正比例性이란 面에서 認識하게 되었다. Walras의 定理은 바로 raretés와 市場價格 사이의 그와 같은 聯關性을 確立시켜 놓았다.⁽³⁰⁾

四

Léon Walras의 限界効用概念에 이르는 迂餘曲折의 過程을 끝맺음에 있어 우리는 왜 Léon Walras가 經濟學者도 아닌 力學教授 Piccard의 方向指示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하는 疑問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解答은 Léon Walras의 數學的 訓練이 不足한 데 있는 것 같다. 젊을 때 有名한 빠리의 綜合技術學校入試準備에 特別한 數學課程을 밟았고 또 이 試驗에 두 번 失敗한 후 빠리鑛山學校入試에 結局 通過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如前히 函數의 極大値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³¹⁾

中等教育過程에서 그는 代數學과 解析幾何學의 知識은 多少 얻었지만 微積分學에 관해서는 極히 漠然한 理解 밖에 못했다. 그후에 그 自身도 告白하듯이⁽³²⁾ 그는 微積分의 問題를 푸는 代身 그 歷史를 읽는 데 時間을 보냈다. 그는 鑛山學校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배운 바가 없었으니 거기서는 自己 父母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이름 뿐인 學生生活을 지내면서 小說 쓰기에 耽溺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過失은 만드시 그 自身만의 責任이 아니었다. Léon Walras의 學生時代에 微積分學의 敎習은 未開發의 段階에 있었던 것이다. 唯一의 入手可能한 冊이래야 專門家用으로 쓰여진 微積分 및 積分學의 論文集이었고 이것들이 初步的 原理를 가르치는 데 理解도 되지 못한 채 利用되는 程度였다. 初步者를 위한 適切한 敎材도 없으니 이 分野의 體系의 敎育이 不可能한 것은 勿論이다. 프랑스에서 이에 關心이 있는 學生用으로 微積分學의 初步的 敎材가 처음 나온 것은 1860年이었다.

(29) Donald A. Walker, "Léon Walras in the Light of His Correspondence and Related Pap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July August 1970), p. 688.

(30) Léon Walras, *op. cit.* p. 512, n. (3) to Lesson 10.

(31) Jaffé, "Léon Walras's Role in the 'Marginal Revolution' of the 1870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 cit.*, p. 399 & note 60.

(32) Jaffé, ed.,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op. cit.*, p. 2.

이事實은 萬一 우리가 프랑스 以外の 나라에 있어서의 微積分 教育에 관한 資料를 얻는다면, 어째서 經濟理論家들이 限界効用原理를 確立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는 疑問 뿐만 아니라, 왜 1870年代 初에 3人의 發見者들이 同時的으로 오래 걸린 問題에 대하여 各己 獨立的으로 同一한 解答을 얻게 되었는가 의 疑問에 대해서까지도 說明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假說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 무렵에 비로소 Newton과 Leibnitz의 發明이 教室에까지 普及되기 시작한 것이다. 微積分學의 知識이 純粹數學者와 物理學者만의 秘法的 屬性임을 벗어났을 때에, 즉 그것이 純文學을 專攻하는 者를 除外한 教養人의 知的糧食의 하나로 一般化되었을 때에 비로소, 數學的으로 啓發된 層에 드는 經濟學者들이 効用을 價格에 關聯시키고자 한 지닌날의 複雜한 努力에 思考를 集中하게 되자 거의 同時的으로 이 混亂에서 벗어 나는 길을 微積分에서 찾아 냈다고 분수 있다. 적어도 이는 Jevons와 Léon Walras에 의해 擇해진 길이었다.

Carl Menger가 이와 다른 事例을 보여 주는지의 與否는 우리가 그의 教育背景에 관해서 더 알게 되거나 또는 적어도 그가 微積分을 理解했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기까지는 分明치 않다. von Hayek는 「Menger가 技術的 知識도 數學的인 性向도 缺如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理由도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³³⁾ 우리가 知的 浸透性의 可能性을 否認하려 들지 않는 限 Carl Menger의 兄弟들과 그 아들까지도 數學에 相當한 素養을 가졌다는 事實을 無視할 수가 없다.⁽³⁴⁾ 따라서 Menger의 경우에 있어서도 限界効用의 發見이 微積分學에 의해 着想되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限界革命」의 歷史的 生成過程에서 그 一翼을 擔當한 Léon Walras의 役割을 概觀했는데 이로부터 어떠한 結論을 얻을 수 있겠는가? Walras의 生涯에 관한 詳論이 오히려, George Stigler教授가 主張하는 것처럼 그의 科學的 業績에 관한 理解를 增進시키기보다도 이를 歪曲시키는 것일까?⁽³⁵⁾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發見된 그의 限界効用原理를 徐徐히 展開되는 自己의 一般均衡體系 속에 어떻게 內裝시켰는지를 解明하려 할 때는 오히려 그 傳記的 研究가 Walras의 功績의 重要性을 보다 透徹하게 밝혀 주는 것이 아닐까?⁽³⁶⁾ 이는 또 限界効用原理의 弱點과 缺陷이 어떠한든, 우리가 主觀的 動機에 대

(33) "Hayek on Menger"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ought*, edited by H.W. Spiegel, 1952, p. 345.

(34) *Ibid.*,

(35) George Stigler, *Review of The Evolution of Modern Economic Theory* by Lord Robbins, *Economica*, Nov. 1970, pp. 425-26.

(36) Milton Friedma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1953, pp. 42-43. 여기서 Friedman은 Stigler와 같은 Chicago大學의 同僚로 있으면서도 「實證經濟學의 進歩는 既存의 假說에 관한 檢證과 詳論 뿐만 아니라 새로운 假說의 確立을 要求하게 된다. …… 새로운 假說의 確立은 靈感, 直觀, 創作能力의 創造의 行爲이며 그 本質은 既知의 材料에 대한 어떤 새로운 vision이다. 이過程은 論理的 範疇에서가 아니라 心理學的 範疇에서 討議되어야 하며 科學的 方法의 論述이 아니라 自叙傳과 傳記로써 研究되어야 하고 그리고 三段論法이나 一般原理가 아니라 公格率과

한 不變의 信念을 가지든 또는 그것을 外向的이고 可視的인 形跡을 重視해서 放棄하는 간에 「限界革命」에 대한 Léon Walras의 役割을 論하는 것은 市場機構를 作動하게 하는 그런 어떤 動力裝置를 위한 一般均衡模型의 必要성과 그 位置를 明示하는 데 目的이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37) 限界效用概念의 發見을 위한 Léon Walras의 고달픈 旅程을 微分係數概念의 側面에서 說明하는 傳記的 手法은 支配的인 教育風潮에 의해서 大勢의 方向이 삼히는 學問的 冒險으로서의 旅程을 示唆하는 것이 아닐까? 同時에 이는 Léon Walras의 發見을, 外部的 事件과는 勿論 當代의 知性的 條件과도 關聯시킴으로써 Stark와 Blaug에 의한 相對主義 및 絕對主義의 二分法의 脈絡을 擴張시키는 것이 아닐까? (38) 이와 같은 얘기가 初期社會主義者의 財産에 대한 非難의 거친 물결에서부터 社會主義의 目標을 위한 어떤 確固한 分析의 基盤에까지 이르는 諸側面에 대한 Auguste Walras의 探求에서 出發함으로써 限界效用이 Marx의 勞動價値說을 否認하기 위해서 發明되었다고 斷言하는 不當한 神話를 打破하는 것이 아닐까? 限界效用原理를 生産理論에 擴張 應用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는 1873年의 Léon Walras의 論文을 再檢討하면 「限界革命」의 두드러진 業績은, 生産을 財産增殖過程으로 보는 觀點에서 生産을 交換의 側面으로 보는 觀點으로, 즉 財産分配의 關心에서 資源分配의 關心으로의 力點의 變移에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時相과 關聯에서 얻어지는 바로 以上과 같은 點에 Léon Walras의 功績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功績이 賞識의 對象이 되느냐의 與否는 또 다른 問題가 된다.

4. Carl Menger

T.W. Hutchison이 「限界效用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名詞보다도 形容詞에 있다」고 한 表現⁽¹⁾은 主觀價値論의 理論家들은 첫째로 限界主義者이고 다음에 效用의 經濟理論家가 된다고 解釋되는 매우 重要한 示唆를 던져 주고 있다. Mark Blaug⁽²⁾에 의하면 1870年以後의 限界主義者 또는 新古典派 經濟學者들에게 있어서 「經濟問題의 本質」은 所要된 生産的 用役이, 競争的인 諸用途 사이에 消費者的 滿足을 極大化시킨다는 뜻에서 最適의 結果를 얻는 方向으로 配分되는 條件에 관한 研究에 있었다. 그런데 이 新理論은 資源의 量과 質의 增大效果는 勿論이요 欲望의 活力의 擴大같은 變化까지도 考察의 對象에서 除外

實例로써 推進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으로써 經濟學史研究에 있어서의 學者의 傳記的 研究의 比重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37) E.J. Mishan, "Theories of Consumer's Behavior: A Cynical View," *Economica*, Feb. 1961, pp.1-11.

(38) W. Stark, *The History of Economics in Its Relation to Social Development*, 1944, p. 1;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1968, pp. 1-8. 本論文 V章 參照.

(1) T. W. Hutchison, *A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29*, 1953, p. 16에 의한.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1968, p. 299.

(2) M. Blaug, *ibid.*

하고 있어, 古典派 經濟學者들이 이들 動態的 要因을 經濟的 厚生의 增進에 必須不可缺의 要件으로 認定하는 것과 判異한 接近方法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 極大化問題의 論理 바로 그것에 의해서,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眞面目은 그 靜態的 分析體系下에서이지만, 情報의 完全性을 暗黙裡에 假想하는 確實性의 經濟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限界主義는 그 本質에 있어서 意思決定의 理論이 되며 數學的 programming의 言語로 表現하면 그것은 첫째 目的函數에, 둘째는 選擇的 變數에 焦點을 두고 그 制約條件에는 全然 介意치 않는다.

以上の 모든 意味로 볼 때 오스트리學派는 嚴密한 意味의 限界主義者가 아니라는 主張이 成立可能할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限界主義는 오스트리學派의 研究對象의 本質이 아니었기 때문에 Hutchison의 表現대로 名詞(効用)보다 重要한 形容詞(限界)가 未開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Menger의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의 中間쯤에 限界主義가 紹介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처럼 論理整然한 著作에 있어서 中心課題도 礎石도 아니었다. Menger 自身の 말을 빌리면 「統一된 價格理論을 創案하는 것만이 나의 目標가 아니었다.」⁽³⁾

Menger의 이 著書는 Adam Smith의 「國富論」에 대한 意識的 補充物이었고, 이 때문에 그것은 靜態的이 아니라 經濟進步의 問題에 關心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財貨의 範圍와 質」에 있어서의 變化를 解明하고자 했으며 또 그것은 經濟行爲의 制約條件에 관한 研究이며 또는 오히려 選擇的 變數들의 變化를 통한 그러한 制約條件의 變動에 관한 研究이기 때문에 Menger는 이 側面을 經濟理論의 唯一目標이듯 強調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했다.⁽⁴⁾ 그리고 무엇보다도 經濟學은 基本的으로 「情報理論」이기 때문에 그것은 不確實性下의 經濟理論이치 確實性下의 經濟理論이 아니다. 이러한 側面들 때문에 오스트리學派는 그들이 單純한 하나의 學派가 아니라 오히려 唯一한 主觀價值論學派임을 強調했던 것이며 이는 또 옳은 主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主張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에 起源을 가지고 있는 經濟學者集團中 많은 反對事例을 指摘함으로써 이를 論駁하기는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所謂 오스트리學派의 構成分子가 누구인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다. 누가 오스트리學派中 가장 重要한 人物인가? 어떤 이는 그 社會學的 洞察力으로 보아 또는 그가 一般的인 新古典學派(또는 限界主義學派)의 傳統에 대한 最大의 信奉者였던 點에서 보아 Friedrich von Wieser에게 榮光을 돌리고 있다.⁽⁵⁾ 어떤 이는 Eugen Böhm von Bawerk를 經濟理論의 한 가지 側面에 대한 꾸준한

(3) Carl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 p. 19.

(4) 「理論經濟學은……人間이 그 태두리안에서 需要充足의 目標로 하는 行爲를 展開해 나가는 諸條件을 다루는 것이다.」 Carl Menger, *Grundsätze*, *ibid.*, p. IX.

(5) Robbins卿은 von Wieser의 費用法則이 「主觀價值理論의 全構造物의 礎石」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Lord Robbins, *The Evolution of Modern Economic Theory*, 1970, p. 204.

輿調를 理由로 가장 높히 評價하고 있다. (6) 그러나 亦是 孕胎的 思想의 寶庫에서와 經濟에 관한 始源的이고 獨特한 vision에서 經濟學에의 가장 큰 貢獻을 認定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Hayek의 경우처럼 Carl Menger를 最高로 評價하게 된 것이다. (7)

이는 단순히 個人的 趣向의 問題만이 아니라 實證的 事實의 문제가 되고 있다. 勿論 Menger는 적어도 自己意見에 의한 最初의 發見을 普及시켜 갈 수 있는 身分과 制度的 位置를 가졌었고 이 때문에 그는 오스트리學派를 움직이는 中樞的 存在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그의 履歷을 概觀하면 그는 1873년에 Vienna大學의 員外教授, 1879년에는 正教授가 되었다. 이 때부터 當時 支配的이던 大學制度的 테두리 안에서 그에게는 經濟理論의 講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特히 理論經濟學分野의 教授補充에 대한 人選權까지 주어졌다. 그의 거의 無制限의 權威는 그의 同僚인 經濟政策講座의 在職者에 의해서만 制約될 수 있을 뿐 아무도 敢히 挑戰할 수 없는 地位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게도 그의 同僚는 처음에는 父親벌 되는 親舊 Lorenz von Stein이었던 關係로 25年이나 年上이어서 거의 停年에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經濟學보다는 行政學理論에 대해서 더 關心이 컸던 터이므로 Menger는 當時 自己同僚자리의 人選權까지 保有하여, 結局 두 번의 空白期間을 거친 然後 거의 弟子벌 되는 Eugen Philippović von Philippsberg를 그 자리에 앉혔다. 오스트리의 首都에서 國立大學의 經濟學講座 자리를 차지한 Menger는 實際問題에는 別關心이 없이 理論研究에 從事하면서 實質的으로 오스트리의 全國大學에 대한 經濟學教授 選任權을 保有하게 된 것이다. 이 權限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하는 것은 지금은 死文化되었지만 아직도 通用되고 있는 獨逸 Freiburg大學의 法에 잘 나타나 있다. 同法에 의하면 教授는 「自己의 가장 가까운 親知와 眞正한 弟子만」을 博士課程에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博士候補者에게 이렇다면 大學教職에의 關門으로서 最終學位인 Habilitation에 있어서 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므로 Habilitation 論文에서는 恩師의 말을 낱낱히 引用하고 그를 본뜨며 恩師가 自己테마의 變形을 원할 때는 이를 完成시켜 그에게 獻納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었다. (8) 여기서 우리는 自己의 偉大性에 대한 始終如一한 忠誠을 要

(6) 이는 John Hicks의 評價라고 볼 수 있다. Erich Streissler, "To What Extent Was the Austrian School Marginali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427.

(7) Hayek는 오스트리學派에 관해서 「그 根本的인 思想은 完全히 그리고 眞正히 Carl Menger에 屬한다」고 말한다.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ed. F. A. von Hayek, 2d ed., 1970, 1: V.

(8) J. von Komorzynski, *Der Werth in der isolierten Wirtschaft* (Vienna, 1889)는 Menger에게 獻呈된 것이었다. 興味있는 것은 그의 後期著作 *Die Nationalökonomische Lehre von Credit*는 Böhm-Bawerk에 獻呈한 것이었는데 Böhm-Bawerk는 當時 學界의 位階에서 Menger를 凌駕하고 있었다. 이와 類似하게 R. Schüller, *Die klassische Nationalökonomie und ihre Gegner* (Berlin, 1895)도 Menger에게 바친 것이었고, G. Gross, *Die Lehre vom Unternehmergewinn* (Leipzig, 1884)와 H. von Schrellern-Schrattenhofen, *Untersuchungen über Begriff und Wesen der Grundrente* (Leipzig, 1889)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以上의 事例에 관해서는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428-429.

求하여 그 努力이 올바른 判斷을 나타냈고 이 젊은이가 제대로 理解해서 自己말을 引用했으나 自己의 羊群 속에 加入시킬 價値가 있다고 判定하고 있는 恩師像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大學講師(無報酬)가 된 然後에도 恩師의 눈밖에는 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大學이 講師職에 사람을 選任할 때 恩師의 意見이 採擇된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一旦 教授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獨立이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員外教授로 出發해서 正教授로 昇進해야 되는데 이 경우 다시금 그 恩師의 影響力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經濟學者들을 움직인 한 要因은 共通의 社會的 背景이 아니라 團結을 強要한 Menger의 影響力 乃至는 結集力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Menger는 한 學派의 創設者 以上으로 한 社會制度의 頂點이었다. 오스트리아學者들은 Hayek가 表現한 것처럼 Menger學派가 되는 것이 不可避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⁹⁾

二

그러므로 여기서는 1879年에서 1903年까지 持續된 Menger治下의 오스트리아學派의 限界主義에 대한 關聯性を 概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Menger의 著述을 檢討함은 勿論이지만 여기서는 이밖에도 특히 1880年代에 그의 直接的 指導下에 쓰여졌거나 적어도 그와의 密接한 關聯下에 쓰여진 Habilitation 論文들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왜냐 하면 Menger는 特有한 오스트리아의 傳統을 體現한 同時에 모든 오스트리아學者中 가장 限界主義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弟子가 그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들은 限界主義者가 되었는데 그 理由는 정확히 그들이 그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다른 傳統을 同化해 갔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19世紀에 있어서 純粹하고 單純한 오스트리아 固有의 傳統을 體現한 것이 Menger였다면 이 傳統은 이미 Menger의 生存期間中 그의 Vienna의 後繼者가 된 Wieser(1903~24)와 Böhm-Bawerk(1904~14)의 活動期에 喪失되었던 것이다. Menger의 見解에 의하면 그 後繼者들은 그 後半期에 이미 退步者가 되어버렸는데 특히 Böhm-Bawerk는 그 有名한 「資本 및 利子理論」이 「이제껏 저질러진 最大 誤謬中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⁰⁾ 長壽를 누린 Menger는 Böhm-Bawerk에 관한 追悼文에서까지 「Böhm은 自己의 價値理論을 開陳함에 있어서 수 많은 過去學說의 諸要素를 끌어들었다」고 한 적이 있다.⁽¹¹⁾ 한번은 Böhm-Bawerk가 Schumpeter에게 吐露한 말중에 當時의 大學制度의 性格을 잘 表現해 주는 것으로서 「科學은 늙은 教授가 죽어 갈 것으로서 進歩한다」고 표현한 일이 있다.⁽¹²⁾ 不幸히도 末期의 Menger의 눈에 비친 것은 이

(9) F.A. von Hayek, "Wiener Schule,"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en*, 1962, vol. 12.

(10) J.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 847, n. 8.

(11)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op.cit.*, 3 : 303.

(12) Schumpeter, *op. cit.*, p. 850.

모든 것이 後退의 傾向으로 보였다. 왜냐 하면 Menger 는 오스트리아에서 限界主義를 始發시킨 사람으로서 그와 同時에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으며, 그의 限界主義를 넘어서고자 한 思想은 대단히 貴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Menger 가 格別히 偉大한 才賦은 그가 限界主義를 創案한 그 瞬間에 이를 超越하고자 했던 때문이며 純粹한 限界主義者로서는 그는 분명히 Walras 와 같지 않았던 것이다.⁽¹³⁾

前述한 바처럼 Menger 의 *Grundsätze* 는 하나의 經濟發展理論을 概觀하고자 한 試圖였다. 첫 章의 第5節은 이 著書全般의 計劃이 담겨진 內容인데 「人間的 福祉增進의 諸原因」이란 題目이다. 여기서 Menger 는 同著書의 中心課題가 되는 點을 밝히고자 하여, 福祉를 增進시키는 것은 勞動의 分業 즉 生産過程의 一面이 아니라 財貨의 範圍의 持續的 擴大와 그 質의 改善, 換言하면 生産의 財貨의 變動에 있다고 말한다. 勞動의 分業自體까지도 財貨의 範圍의 增加結果이며 이는 分業을 더욱 더 「必要하고 節約하게」 만드는 것이다.⁽¹⁴⁾ 이것은 Menger 的 「技術進步」인 商品(과 狹義로는 欲望)의 變動 즉 生産物 革新이며 이는 Marx 的 「技術進步」인 不變生産物의 過程革新과 對照가 된다. 그리하여 技術進步에 관한 處理가 Marx 主義者나 近代新古典學派의 그것보다 훨씬 包括的인 것이 Menger 的 眞正한 傳統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Menger 는 日常 財貨의 「質과 量」에 관해서 論及하고 특히 그 質에 관해서 詳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依하면, Menger 的 財貨는 次元을 달리하는 動態的 變動으로서 質, 量, 多樣性의 세 가지 次元을 가진 것이다.⁽¹⁵⁾

Menger 的 技術進步는 物質의 變動이 아니라 情報의 內容의 變化이며 우리의 認識의 變動이라는 것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物質과 人間福祉 사이의 因果關係에 관한 理解의 增大」⁽¹⁶⁾이며 이것만이 進步의 올바른 主觀的 價值觀을 형성한다. Menger 는 이 點에 관해서 注目할만한 表現으로서 「人間이 處分할 수 있는 消費財의 分量은 人間の 知識에 의해서만 制約된다」고 했다.⁽¹⁷⁾ 예를 들어 農化學의 發達은 農産物의 稀少性을 減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無價値하게 보이던 鑛物에 價値를 附與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860 年代에 Thuringia 地方의 potassium 鑛 採掘과 더불어 獨逸人의 思考에 강하게 비친 客觀的인 教訓인 것이다.⁽¹⁸⁾ 이러한 「知覺의 進步」⁽¹⁹⁾도 人間の 欲望을 增大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Menger 는 「無限의 成長에 대한 人間欲求의 能力」에 관해서 明言하고

(13) Erich Streissler, "To What Extent Was the Austrian School Marginali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430.

(14) Menger, *Gesammelte, op. cit.*, p. 28.

(15) *Ibid.*, pp. 114-19; pp. 66f.

(16) *Ibid.*, p. 25.

(17) *Ibid.*, p. 29.

(18) *Ibid.*, p. 25.

(19) *Ibid.*, p. 62.

있는 것이다.⁽²⁰⁾

Menger의 情報問題에 관한 一貫된 強調에 관해서는 이 밖에도 수 많은 事例를 들 수 있겠다. 財貨는 그 用途의 認識이란 點에서 定義되어지고 効用은 効用으로서 「認識되어」 있는 것이다. 企業家的 活動은 무엇으로 構成되어 있는가? 첫째의 가장 重要的 要因은 「經濟狀況에 관한 情報」의 普及에 있다고 한다⁽²¹⁾ 이러한 情報理論의 接近方法이 Menger로 하여금 종종 生産過程에 관한 說明을 하는데 人間資本의 創出이란 面에서 다루게 되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다. 가령 教育의 必要에 앞서 教師의 訓練이 先行되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끝으로 Menger는 企業에 있어서의 「信用的 創出」이 私의 富 뿐만이 아니라 社會的 富의 總量도 增大시킨다는 點을 積極的으로 主張했다. 勿論 여기서는 이것이 經濟的 「摩擦」을 減少시키고 命令에 의한 努力을 減少시키 安定的인 情報 channel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²²⁾

위에서 指摘한 財貨의 세 가지 次元(質, 量 및 多樣性) 以外에 우리는 여기서 「情報의 內容」이라는 또 하나의 次元을 附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情報의 個人間 差로 因하여 Menger는 모든 集計值 특히 資本의 集計值에 대해서 懷疑的이었다.⁽²³⁾ 그는 바로 이 理由 때문에 資本은 正確한 集計가 不可能하다고 본 Gorman의 證明을 일찌기 說破한 셈이다.⁽²⁴⁾

(20) *Ibid.*, p. 38.

(21) *Ibid.*, p. 137.

(22) *Ibid.*, pp. 5ff. 이 點이 Menger가 Böhm-Bawerk의 資本概念이 너무나 客觀的 또는 物質的이라고 본 問題의 하나이다.

(23) Menger, *Grundsätze*, p. 75.

(24) W.M. Gorman, "Measuring the Quantity of Fixed Factors," *Value, Capital and Growth: Papers in Honour of Sir John Hicks*, ed. J.N. Wolfe, 1968, pp. 141ff. 資本量의 集計不可能性與否에 관해서는 最近 新古典派의 成長論과 Keynes의 成長論, 또는 美國 Cambridge 對 英國 Cambridge 사이의 資本理論論爭으로서 活潑한 論戰이 展開되어 있다. 前者의 代表的 論客은 P.A. Samuelson, R.M. Solow이며 後者의 論客은 J. Robinson, N. Kaldor이다. Robinson이 資本測定問題에 관해서 新古典派를 批判한 데서 비롯된 이 論爭은, 資本의 量을 考察할 때 資本財라는 物的次元에서 把握하는 경우와 이를 價値로서의 資本概念으로 把握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後者의 경우 그 價値尺度를 어떻게 잡느냐가 問題로 되어 있다. Robinson은 價値로서의 資本量을 測定하는 데는 現在 保有하는 各種 資本財가 將來에 걸쳐 얼마의 利潤을 派生시킬 것인가에 관한 「情報」을 入手해서 그 期待利潤의 流出을 期待利率에 의해 資本還元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는 各種의 將來의 市場的 變數에 관한 情報의 不確實性이 수반되며, 한편 現在 保有하는 資本設備의 陳腐化 程度를 測定하는 데도 將來의 技術進步에 관한 情報를 가져야 하지만 이亦是 不確實性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新古典派에 의한 物的資本의 概念에 있어서도 그 種類의 多樣性이란 問題와 生産된 時點이 다르면 資本財의 質的變化가 일어난다는 問題가 있어, 物的資本概念이든 價値로서의 資本概念이든 이를 集計的으로 測定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主張한다. 이 現代版 資本理論의 爭點에 관해서는 以下の 文獻參照. J. Robinson,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Capital,"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2 (1953-1954); R.M. Solow,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Capital," *Review of Economic Studies*, 23-2 (1955-1956); P.A. Samuelson, "Paradoxes of Capital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66; J. Robinson, *Economic Heresies*, 1971.

이처럼 情報內容을 強調한 點은 Menger의 매우 現代的인 側面이기도 한 同時에 이 問題에 있어서 그가 追從者란 적게 가지게 된 原因도 되었다. 오스트리學派中 中間世代라 할 수 있는 Schumpeter는 Menger의 이 礎石 위에 前進의 企業家에 관한 Marx의 思考를 結合하여 有名한 innovation理論을 確立했고, 오스트리學派의 第三世代中에서 Menger의 思想에 가장 가까웠던 Hayek는 1915年 以來 漸次 情報傳達와 情報內容의 經濟的 問題에 關係서 關心을 集中시켜 왔다.⁽²⁵⁾ 그러나 第一世代는 Menger 思想의 이 側面을 無視했던 것이다. 가령 Böhm-Bawerk는 企業의 信用이 富를 增進한다는 것을 否認했는데 이의 否認에 關係서 Menger는 追悼文에서까지 不滿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²⁶⁾ Menger는 個人이 利用할 수 있는 情報量 즉 「經濟生活에 관한 知識」의 量이 去來上 重點을 增大시켜 주기 때문에 그로 因한 價格의 變動을 自己에게 有利하도록 操作可能하다는 點을 明示하고 있는데 反하여⁽²⁷⁾ Wieser는 企業家가 消費者보다 情報는 많지만 그렇다고 이만 경우는 價格에 對해 影響을 미칠 수는 없다고 主張한다.⁽²⁸⁾

三

이렇게 볼 때 Menger의 人間은 自己의 知識을 增大하며, 數가 늘어나는 仲介人으로 하여금 自己에게 有利하게 行動하도록 制限을 附與하여 情報蒐集을 위한 社會的 制度를 만들어 내려고는 하지만, 자신은 「現存」에 關係하는 거의 이는 마가 없다. 그는 現在에 關係서 모르는 以上으로 「未來」에 關係하는 데 不確實하다. 이처럼 Menger는 財貨의 「時間的 次元」과 이것이 수반하는 「不確實性」을 強調하게 된다. 마치 Keynes가 投機的 動機의 存在에 關係서 興味를 가졌던 것처럼 Menger는 實物 및 貨幣的 側面에서의 「豫備的 均衡」의 先驅者였던 것이다.⁽²⁹⁾ 「事實 가장 貧乏한 사람들의 算盤 속에도 어떤 것은 未知의 不意의 事故가 났을 때에만 쓰여진다고 期待되는 物件이 있다고 믿는다.」⁽³⁰⁾ Menger는 심지어 貨幣기지도 主로는 現實的으로는 實現되지 않는 機會를 위해서 保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³¹⁾ 끝으로 將來에 關係 知識의 缺如가 重要視되는 各같은 商品의 높은 補完性 때

(25) F.A. von Hayek,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5 (1945).

(26)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3: 301.

(27) Menger, *Grundsätze*, p. 177.

(28) F. von Wieser,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 1884, p. 169.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433에서 轉載. Menger, *Grundsätze*, p. 211. n. E. Streissler, "Structural Economic Thou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Austrian School Today," *Zeitschrift für Nationalökonomie* 29 (1969), p. 237ff., p. 256ff.

(29) Menger, *Grundsätze*, p. 37.

(30) *Ibid.*

(31) 「實際의 支拂에 使用되는 貨幣額은 사람들에게 必需的 現金의 一部分, 그것도 아주 적은 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餘餘의 部分은……어러가지 豫備의 形態로 不確實한 支拂에 對한 保障으로 保有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現實的으로는 決코 實現되지 않는다.」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4: 109f.

문인데 이로 因하여 諸計劃을, 一致시키기가 極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32) 將來的 本質의 不確實性에 관한 思想은, 現在에 관한 情報不足의 強調보다는 Menger의 後繼者들에게 훨씬 쉽게 理解되었다. 確實性等價値에 관한 完全한 理論을 提示한 것은 종종 主張되고 있듯이 Keynes가 아니라 Böhm-Bawerk이다. (33) 그러나 人間의 望遠的 또는 巨視的 能力的 缺如로 因한 將來欲望에 대한 顯微鏡的乃至 微視的 推計를 強調한 것은 Menger였지 Böhm-Bawerk는 아니었다. (34) 不確實性에 관한 Menger의 着想은 오스트리아學者들 사이에 1930年代 40年代까지도 강한 影響을 미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Menger는 가령 都市計劃으로부터 수 많은 圖表를 援用하여 將來的 欲望에 副應하는 遠近法的 計劃의 勸告可能性에 관한 示唆까지 한 바 있다. (35)

萬一 時間的 次元이 그의 思想에 있어 그처럼 크게 빛을 發揮했다면 Menger는 왜 Böhm-Bawerk의 資本理論과 그렇게 相違된 생각을 갖게 되어 「어찌껏 저질러진 것 중에서 最大의 誤謬」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첫째 Böhm의 分析이 Menger에게는 너무나 一次元的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Menger 自身의 論에는 모든 것이 5乃至 10個의 次元으로 即時 分化되었던 것이다. 가령 Menger는 資本蓄積을 資本財의 範圍의 增大이며 補完性的 價의 漸增的인 複合體로 보는데 反하여 Böhm-Bawerk는 資本을 生産期間의 概念으로 統一하고 만다. 또 Böhm이 利子率을 理論적으로 決定하려 한 데 反하여 Menger는 勞動價格, 地代 및 資本財의 價格決定理論은 있어도 利子理論은 없다. 그의 見解로는 利子란 同質的 量이 아니었던 것이다. 생각컨대 日나의 「自己率」의 理論과 利潤理論은 可能했을 것이다. 그러나 Menger에게 있어서 利潤의 一般水準의 理論이나 利子の 一般水準의 理論은 存在하지 않은 것이 分明하다. (36) 利潤과 利子は 그 水準의 概念을 有意하게 表現한다면 너무나 主觀的인 影響에 依存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Menger는 利潤이 여러가지 程度의 獨占에 크게 依存한다고 믿었고 그 自己 이타적이나 獨占을 認定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Böhm은 完全競爭條件下的 利子理論을 提示한 것이다. 事實上 Menger의 著作을 읽어 보면 그가 自己 思想의 加一層 重要한 次元으로서 世界를 不完全競爭의 狀況으로 表現한 最初의 偉大한 經濟學者였다는 것이 分明해진다. 여기서 不完全競爭理論의 基本概念인 財貨의 質의 變化에 대한 Menger의 一貫된 強調을 나지 指摘할 必要가 없다고

(32) Menger, *Grundsätze*, pp. 14ff, 40ff.

(33) E. Böhm-Bawerk, *Recht und Verhältnisse vom Standpunkte der volkswirtschaftlichen Güterlehre*, 1881, p. 88. 그의 核心的 文章은 다음과 같다. “Wir reduzieren mit einem Worte alle Nutzens-Möglichkeiten auf Gewissheit und stellen die Kompensation dadurch her, dass wir dasjenige, was wir an der Wahrscheinlichkeit des erwarteten Nutzen hingefügen müssten, um sie zur Gewissheit zu erhöhen, von seiner Grösse oder seinem Werte in Abzug bringe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cit.*, p. 434, n.에서 轉載.

(34) Menger, *Grundsätze*, p. 122.

(35) *Ibid.*, p. 39.

(36)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3: 135 ff., 182f.

본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價格理論에 관한 全章이 獨占理論을 一般理論으로 다루면서 村落에 있는 唯一한 工藝人이나 食料品商을 지적하면서 日常 알려져 있는 것보다 獨占이 훨씬 支配的임을 主張하고 있고, 또 競爭者라 하더라도 價格을 確定할 힘은 制限되어 있고 價格이 그러한 競爭者를 不完全競爭의 渦中에 몰아 넣는다고 말한다.⁽³⁷⁾ 그렇게 보면 이 觀點에 있어서도 그는 追從者를 하나도 일지 못했고 特히 Wieser는 完全競爭에 心醉되고 있었다.⁽³⁸⁾

Böhm-Bawerk의 資本理論이 Menger에게는 너무 一次元的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技術的」인 것이기도 했다. 技術的 條件을 導入한다는 것은 大敵을 容恕할 수 없는 方法으로 待遇해 주는 것과 같았다. Menger는 技術上의 生産法則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經濟學과 關係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는데⁽³⁹⁾ Böhm은 技術的 迂廻生産力의 遞減法則을 假定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著者は Menger가 迂廻遞增의 法則을 前提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⁴⁰⁾ 사실 이 面에서 Menger가 Böhm과 어떻게 다른가를 確認하는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Menger가 한군데서 보다 迂廻的인 生産技術을 採用하면 迂廻度가 낮은 廢棄된 技術의 경우보다 더 生産的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正의 利子率을 갖는 「選擇의 原理」이지 技術的 法則은 아니다. 그리고 一般적으로 그는 將來에까지 멀리 미치는 計劃範圍의 前進的 擴大를 言及하고 있는 것이며 生産期間의 增大라는 上로 技術的인 思考와는 判異한 主觀的 概念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一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經濟思想과 極端적으로 다른 다음과 같은 Menger의 特徵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同一商品이 所與의 一時點에는 어디서나 同一價格을 갖는다고 보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것이 瞬間的인 時差에 있어서도 同一價格이 된다고는 더욱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Menger는 우리가 오늘날 「流動性」의 程度差라고 稱할 수 있는 「商品의 市場性」에 관한 章을 叙述하고 있는데 이는 貨幣理論에 관한 序章으로서 거기서는 貨幣가 最高의 流動性을 가진 商品으로서 適切히 說明되어 있다.⁽⁴¹⁾ 流動性概念과 豫備的 均衡, 貨幣理論全般에 있어서 Menger는 Keynes에 매우 가깝다. Menger와 「一般理論」 叙述當時의 Keynes가 證券去來로부터 具體的 經驗을 얻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秩序가 잘 잡히지 않은 市場에서 價格이 多樣하게 變動

(37) Menger, *Grundsätze*, Siebentes Kapitel.

(38) Wieser, *Über den Ursprung*, p. 169 and passim.—*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 cit.*, p. 436에서 引用.

(39) Menger, *Grundsätze*, p. 120에 이런 文章이 있다. 「實生活에서는 어느 누구도 商品의 成立歷史에 관해서 묻는 일이 없다.」

(40) Carl Menger, *Gesammelte Werke*, 1: XV, "Einleitung," von Hayek, pp. 122, 127-28.

(41) Menger는 流動性을 Absatzfähigkeit der Waren이라 表現하고 있다. *Grundsätze*, Achtes Kapitel, §2, pp. 223-239.

되는 傾向이 있음을 Menger가 強調하는 데⁽⁴²⁾ 이는 一商品의 價値가 不動産이나 工場의 경우처럼 時間消耗의 過程에서 推定되어야 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問題이다.⁽⁴³⁾ 그러나 秩序整然한 市場이라 하더라도 價格의 「限界」를 決定할 뿐인 것이다. 이 限界內에서——數量的 說明에서는 이 限界의 幅이 넓다고 되어 있지만⁽⁴⁴⁾——價格은 契約過程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價格決定過程을 表現하는데 Menger가 使用한 術語로 그의 後繼者 多數가 通用해 온 術語는 價格衝突(Preiskampf)이었다.⁽⁴⁵⁾ 그는 供給價格과 需要價格間의 乖離를 「經濟의 一般的 特性」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證券去來時勢의 決定過程에서 얻어 낸 着想이다.⁽⁴⁶⁾ 끝으로 그는 交換은 그 自體가 無費用이 아니라는 點을 明示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唯一의 均衡價格의 存在를 否認하는 말이다.⁽⁴⁷⁾

Menger의 思考에 完全한 價格決定理論이 없다는 사실은 1880年代에 Menger 指導下에 나온 Habilitation 論文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가령 Gross는 특히 利子 bargain을 強調함으로써 複雜한 利潤決定의 bargaining 理論을 提示했다.⁽⁴⁸⁾ 다음에 Schullern-Schrattenhofen은 地代決定에 있어서의 bargaining의 要素에 관해서 叙述하는 등⁽⁴⁹⁾ 以上の 諸文獻에서 Menger의 「價格衝突」이란 術語가 널리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四

이제 우리는 以上の 諸論點을 整理할 차례가 되었다. Menger는 그의 基礎的 著書에서 限界微積分學의 適用을 事實上 어렵고 曖昧하게 하는 모든 思想을 展開하고 있으며, 唯一한 確定的 市場價格의 存在를 否認함으로써 심지어는 限界主義를 뒷받침하는 主命題를 廢棄하기까지 했다. 市場法則은 後期 오스트리學派에서 아주 適切히 Wieser의 「價格均等化의 法則」(Gesetz des Preissausgleiches)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用語도 均衡에 이르는 「過程」을 指稱하지 均衡 그 自體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한편 Menger는 均衡을 正確하게 描寫할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⁵⁰⁾ 그의 經濟學은 그 實質的 內容에서 볼 때 不均衡經濟學인 것이다.⁽⁵¹⁾

(42) Menger, *Grundsätze*, p. 241.

(43) *Ibid.*, p. 248.

(44) *Ibid.*, pp. 177f.

(45) *Ibid.*, p. 177.

(46) *Ibid.*, p. 174.

(47) *Ibid.*, p. 170.

(48) G. Gross, *Die Lehre vom Unternehmervergewinn*, 1885, pp. 132--36 ---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438, n. 58에서 引用.

(49) *Ibid.*, p. 438, n. 60에서 引用.

(50) 이 點에 관해서는 가령 「모든 經濟機型은 均衡의 位置에서 始終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F. Machlup, "Equilibrium and Disequilibrium: Misplaced Concreteness and Disguised Politics," *Economic Journal*, 68 (1958), pp. 4f., 參照.

(51) E. Kauder, *A History of Marginal Utility Theory*, 1965. W. Jaffé,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1965, 2: 176, Letter 765.

萬一 Menger 가 均衡을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基本論著에서 볼 수 있는 모든 價格決定法則과 特別 生産的 投入物의 價格決定法則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Menger 는 自己가 經濟過程을 決定하는 根本原因들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對答할지 모른다. 생각건대 이 對照는 明確한 數學的 用語로 表現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다. 즉 Menger 는 聯立微分方程式의 解로서의 均衡點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全般的인 軍勢地圖를 描寫하려 했다는 것이다. 形式上으로 볼 때 微分方程式體系에 관한 이 두 記述은 물론 同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用途와 解釋은 다르다. Menger 는 均衡이 얼마나 迅速히 達成되는 傾向이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近似하게 가까워지는가는 未決로 남겨 둔 채 「均衡으로 向하는 諸勢力」을 그려냈다고 했다. 그는 個人들이 「明確성을 일으키는 것은……그들의 活動의 實際的 成功에 必要한 만큼의 正確度에 지나지 않는다」는 示唆的인 文章을 쓰고 있는 것이다.⁽⁵²⁾ 萬一 個人生活이 過度한 正確度를 必要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經濟學者들이 個人들의 意思決定過程을 記述하는데 그처럼 精密性을 期할 必要는 어데 있는가? 그리고 萬一 生産의 極大化問題에 관한 Menger 의 取效方法이 종종 너무 粗雜하다는 批判을 만든다면 그것은 偶然이 아니라고 본다. Komorzynski 는 商品에 대한 生産的 投入物에 관한 嚴密한 區別은 一般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을 斷言하고 있다.⁽⁵³⁾ Menger 는 投入產出關係는 生産函數의 意味로서도 確定的 資料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오히려 投入對 產出의 關係는 稀薄하고 偶發的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Menger 는 摸索過程(tâtonnement process)도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摸索概念을 Walras 의 그것과 對照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다. Menger 의 人間은 우선 現實世界에 관한 相當量의 情報을 蒐集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特別 商人과 產業家들에 의한 努力이다.⁽⁵⁴⁾ 그러나 이것도 그들의 努力을 減退시킬 수 있다. 왜냐 하면 萬一 諸財貨가 「標準化」되어 있지 않다면, 證券去來所 같은 情報入手를 위한 機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오직 하나의 目的이 摸索過程을 改善하는데 있는 수 많은 仲介人이 誕生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은 견딜 수 없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競賣人이란 裝置도 Menger 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競賣人은 廣義의 社會階級인 現實的인 것으로 된다. 漸次的으로 우리는 眞正한 均衡狀態에 보다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摸索過程의 現實的 成果의 一部는 相當한 危險度에 관한 現實主義的 表現 속에 들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⁵⁾ 이리하여 Menger 의 「摸索」은 社會的 過程이며 確定시키기

(52) Menger, *Grundsätze*, p. 39.

(53) Komorzynski, *Der Werth in der isolierten Wirtschaft*, pp. 9-11, 14 —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439, n. 64에서 引用.

(54) Menger, *Grundsätze*, p. 46.

(55) *Ibid.*, pp. 241-49.

에 가장 힘든 過程의 하나이다. 우리는 Menger 와 Walras 사이의 對照를 이렇게 壓縮할 수 있겠다. 즉 「Walras의 『摸索』은 一瞬間을 잡은 것이지만⁽⁵⁶⁾ Menger의 『摸索』은 一世紀를 잡은 것이다」라고, 두 말할 것도 없이 Menger는 均衡價格이 아직 發見되지 않았다는 意味에서 大部分의 時間을 均衡 外部에서 消費하는 것이다.

Menger에게 均衡分析의 適合性에 관한 信念이 缺如되었다는 것은 數學使用의 便宜에 대한 不信도 說明해 준다. 그가 數學의 才質이 있는 家門의 出身이기 때문에 그의 行爲를 數學的 訓練의 缺如로 說明한다는 것은 事實상 理由가 안되는 事實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當時 通用되던 數學이, 微積分學은 均衡狀態의 記述에만 所用되고 있었는데 Menger는 이에 關心이 없었던 것이다.

Menger가 提起했던 種類의 諸問題를 다루는데 必要한 數學的 道具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겨우 오늘날에 와서 비로서 實現되었다. 즉 位相數學, graph 理論, 微分方程式理論의 보다 複雜한 思維, 그리고 무엇보다도 確率過程理論(theory of stochastic process)에서 처럼 確率分布의 明快한 導入 등이 그렇다.

Schumpeter는 「主觀的」理論이 具體的 成果를 產出하려면 「客觀的」事實(資料)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쓴 일이 있다.⁽⁵⁷⁾ Menger는 이 dilemma에 正面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完全히 主觀的인 理論을 展開했는데 이는 그로부터 自來되는 具體的 結果를 回避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는 經濟世界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多樣한 次元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滿足했다. 그의 觀點에서는 이들 諸要因이 모두 作動한 最終結果는 이를 完全히 記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點이 그의 理論上의 失敗要因인 것이다. 結局 그는 疑問으로 끝나고 積極的인 一般原理를 確立하지는 않았다.

가령 Menger가 挑戰하지 않았던 基礎的인 決定問題가 하나 있다. 즉 萬一 利子率이나 利潤率의 水準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企業家職業의 人員交替問題는 어떻게 說明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產業이 他產業에 비해 보다 有望한지의 與否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⁵⁸⁾ 아마도 Menger는 職業이란 純全히 社會的 背景에 의해 選擇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가령 슈테인은 나뉘어서부터 企業家나 醫師職을 擇하고 카톨릭은 公務員이나 將校같은 下級貴族으로 태어났다는 등이다. 그러나 그의 祖國 오스트리아에서조차 이는 事實과 全然 다르다. Viner가 指摘한 것처럼 Menger의 分析은 事實은 長期的인 것과 또 어

(56) L. Walras, *Ele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1874 (英譯版), p. 69.

(57) Schumpeter, *History*, p. 911.

(58) G.J. Stigl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1949, p. 148. 여기에는 Menger의 이러한 最大의 弱點이 指摘되어 있다. 「Menger의 直接的 消費財에 대한 偏重은 아마도 그의 理論의 根本的 缺點의 하나——生産費의 完全한 無視——가 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重要한 說明은 그가 生産의 繼續性을 認識하지 못한 데 있다.」

는 程度까지는 短期的인 供給函數를 모두 缺如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그는 一定한 stock로부터의 用役 가량 勞動用役의 供給의 變化를 견고 是認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着想을 오늘날 持續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Menger의 麻痺된 懷疑主義를 넘어서 飛躍하지 않으면 안된다. 例를 들어 우리는 그 自體가 均衡的인 아닌 事件들에 관한 均衡的 配分의 概念을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經濟學者들이 驅使하는 훨씬 洗鍊된 分析道具로써 Menger가 남겨 놓은 多様な 示唆들로부터 有用한 法則을 導出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限界革命과 經濟學의 構造變化

—

限界革命에 관해서 論할 때는 반드시 限界主義의 導入이, 組織的 知識體系로서의 經濟學의 方向과 그 性格까지도 決定的인 變革을 일으키게 했다는 見解가 나오게 된다. 가령, 限界主義에 관한 한가지 重要的 說明은 이것이 個人의 經濟行爲에 있어서와 經濟制度 全般의 記述에 있어서, 「經濟的」이라고 하는 것이 本質的으로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明確히 規定해 준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限界革命을, 낡은 問題들을 修繕 또는 除去하고 새로운 問題들을 核心으로 삼음으로써 經濟學의 課題와 方法을 變更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古典的인 政治經濟學을 新古典派經濟學으로 轉換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轉換過程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問題를 檢討해 온 여러 世代의 解說者들에 의하면 舊經濟學과 新經濟學 사이의 對照는 몇 가지의 次元을 가지고 있다. 우선, 政治的 哲學的 및 思想的인 角度가 아닌 經濟「分析」의 歷史에 關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限界革命의 意義가, 이에 의해 可能해진 科學的 進歩에 있다. 斷片的이고 잘못된 價値分配理論이 보다 嚴格하고 一般的인 것으로 代置된 것이다. Knight, Schumpeter 그리고 Stigler 같은 사람에게는 限界原理의 導入이, 처음에는 消費者의 經濟財에 대한 評價에 適用되고 後에는 經濟諸量의 보다 넓은 範圍를 다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濟理論이, 많은 側面에서 文學的인 藝術로부터 嚴正性이 큰 科學으로 轉換된」⁽¹⁾ 時期의 到來를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59) J. Viner, "Schumpeter's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The Long View and the Short: Studies in Economic Theory and Policy*, 1958, p. 363.

(1) George J. Stigl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1941, p. 1.

分析的인 方向에로의 進展은 몇가지 方法論上의 利得을 가져왔다. 즉 經濟學者들은 經濟的 現實의 說明에 政治的이거나 道德的으로가 아닌 論理的으로 어떻게 關係되는가에 관한 보다 嚴格한 感覺을 일게 되었다고 말한다. 前科學的인 痕跡과 遺物이 一掃되고 經濟學者들은 그들의 分析道具의 改善과 社會問題의 보다 效果的인 解決과를 嚴格히 區分하는 데에 더 神經을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方向에서 限界主義는 1870年 以後 組織화된 學問으로서 經濟學의 專門化와 國際化過程의 두 側面을 反映했고 또 이에 寄與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對照的으로 主로 歷史主義者, 制度主義者 및 Marx主義者들은 古典的 政治經濟學으로부터 新古典派經濟學으로의 轉換을 退步와 逃避라고 解釋한다. 이들에게는 限界主義가 「Ricardo의 死亡以後부터 시작된, 生産에 있어서의 人間사이의 社會經濟的 諸關係를 離脫한 抽象化過程을 保證해 놓은 것이다.」⁽²⁾ 그러므로 限界革命은 科學的 進歩로 認定할 것이 아니다, 生産·分配가 資本主義下에 組織된 點에 對한 批判을 防禦하려고 하는 思想의 反映으로, 그리고 競爭의 資本主義가 合理的이고 社會的으로 有益한 經濟體制란 이룩한다는 神話를 維持하고자 하는 裝置로서 認定해야 되는 것이다. 歷史的으로 規定되는 階級制度안에 있어서의 人間對人間的 社會的 諸關係에 關心을 두는 대신 經濟學이 限界主義의 것말아래 抽象的 個體原子와 物件사이의 迷信的 關係에만 關心있는 學問으로 더욱 더 後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相反된 思考方式의 傾向은, 限界主義의 出現結果로서 「왜」 그것이 發生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實際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비슷한 考察에 立脚하는 限, 그들은 外樣上 얼핏 보기 보다는 더 많은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中間的 立場이 擡頭되어, 經濟問題에 대한 古典學派와 新古典學派의 接近方法의 目的에 있어서의 實質的 差異에 焦點을 두어 論議의 內容을 바꾸어 놓았다. 이 中間的 立場은 一般的으로 資本形成, 人口增加 및 經濟成長의 問題에 관해서는 古典派의 見解에 더 同調하는 傾向이 있다. 왜냐하면 萬一 經濟學의 科學的 進展이 이제는 全적으로 相對價格問題의 解決이란 角度로만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와 相異한 類型의 對照가 必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흔히 古典派의 成長理論에서 新古典派의 分配 및 效率의 經濟學에 대한 關心으로의 重點의 移行과, 巨視動學에서 微視靜學으로의 移行에 관해서 말한다.⁽³⁾ 中間的 立場은 進歩나 退步에 관해서보다는 差異點에 관해서 더 論하고 이 問題의 兩極端 見解에 대해서는 中立을 지킨다.

(2) R.L. Meek, *Economics and Ideology*, 1967, p. 208.

(3) H. Myint, *Theories of Welfare Economics*, 1948 이 그런 見解를 나타낸 最初의 著作의 하나이다.

여기서 筆者는 經濟科學의 妥當한 領域에 關係시, 限界原理의 세 發見者들의 方法論에 對시 確認되는 古典派와 新古典派의 見解의 對照를 試圖해 보고자 한다.

二

限界革命을 다룰 때 우리는 이 事件을 一部는 「內部的」革新過程으로 볼 수 있고 一部는 「外部的」壓力에 대한 反應으로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往年에 經濟學者의 恒常的 關心之事였던 어떤 問題들이 새롭게 보다 嚴格한 取扱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며, 後者는 經濟科學의 既存의 方法과 範圍에 대한 當代의 批判이 擴大되는 形態로 나타난다. 限界原理의 三人의 發見者들의 著作이 類似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自己들이 達成한 方法論的 意義를 公開하고자 하는 意慾에 있어서도 共通點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들은 이 問題에 關係시 正確히 同一한 結論을 낸 것은 아니지만 純粹한 形態의 經濟理論의 窄다운 領域問題와 純粹理論, 體驗的 證據 및 政策結論 사이의 相互關聯의 問題에 關係시도 大體로 同意하고 있었다.

우선 純粹理論에 關係시 분다면, 그 3人이 論及한 基本着想은 擇一的인 諸目的에 對比한 所與手段의 稀少性을 本然의 經濟問題라고 보는 데 있었다. Jevons 에 의하면 經濟科學은 合理的, 論理的, 演繹的이고 窮極에는 數學的인 採求였다. 그 範圍는 「自利와 効用의 機構」에 좁게 限定되어 있지만 그것이 人間欲望의 普遍的 法則을 다루기 때문에 尠大한 一般性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⁴⁾ 이리하여 經濟科學의 自律性이 一已 成立된 다음에는 社會經濟研究의 多樣한 分科 사이의 分業이 可能해진다. 經濟學의 細分化는 當時의 方法論上의 紛爭에 대한 Jevons 의 救濟策의 特技였다. 「우리는 抽象理論과 應用理論과 그리고 보다 細部的인 財政 및 行政術로부터 經驗的 要素를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商業統計學, 數理經濟理論, 體系的 및 記述的 經濟學, 經濟社會學 및 財政學 같은 多樣한 學問이 成立할 것이다.»⁽⁵⁾ Jevons 의 生涯에서 注目할만한 特徵의 하나는 그 自己가 完結된 形態로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相異한 研究分野中 몇가지에 對해서 寄與를 했다는 事實이다.

다음에 Walras 는, 純粹經濟學을 「完全自由競爭의 假說的 體系下에서의 價格決定의 理論」이라고 定義하고 純粹經濟學이, 「稀少하다(즉 有用한데도 數量이 制限되었다)는 理由 때문에 그에 對해 價格이 設定될 수 있는 모든 物質的 또는 非物質的인 것의 總體가 社會的

(4) Hutchison,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19*, 1953, pp. 35—36.

(5) Jevons, *Theory of Political Economy* (Pelican Classics, 1970), pp. 49—50.

富를 構成」하기 때문에 이 社會的 富에 관한 理論과 同義語가 된다고 했다.⁽⁶⁾ Jevons 처럼 Walras 도 純粹經濟學, 應用經濟學 및 社會經濟學을 區別하고 各已 固有의 目的과 特徵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純粹科學은 「純粹眞理의 探求에 수반되는 善惡의 歸結에는 全然 介意가 없는」것을 特色으로 한다.⁽⁷⁾ 純粹科學의 이러한 基盤 위에 應用經濟學이 成立될 수 있는데 이는 社會的 富의 生産에 가장 有利한 技術的 經濟的 諸條件의 研究를 主任務로 한다. 應用經濟學은 物質的 福祉의 增大方法을 연구하는 技術 乃至 應用學問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眞理보다도 用途에 그 두드러진 基準이 있다. 그리고 社會經濟學은 財產, 租稅 및 社會的 富의 分配에 관한 研究를 主로 한다. 그 課題들은 產業的이기보다는 倫理的이다. 즉 眞實으로 人間의 決意에 依存하고, 眞理나 用途의 側面에서 判定되는 것이 아니라 正義와 道德의 角度에서 判斷되고 있다.

다음에 Menger 가 獨逸歷史學派의 主張에 對立하여 理論經濟學의 存在를 確立하려던 平生의 鬪爭에 관해서는 強調할 必要조차 없을 것 같다. Walras 나 Jevons 에 못지 않게 Menger 도 理論經濟學의 境界를 個人들이 經濟財를 交換하는 諸條件과 關係시켜 定義하고 있다. 가장 單純한 交換現象의 因果關係를 究明하여야 비로소 人間의 經濟活動의 보다 複雜한 現象 背後의 基本法則을 確證할 수 있다. 所謂 方法論爭(Methodenstreit)의 結果로 Menger 의 方法論的 地位는 크게 進展을 보았다. 여기서는 다만 社會現象을 다루는 學問의 여러가지 分科間의 基本的인 區別에 관해서 論及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장 重要한 것이 Menger 는 「時間과 空間에서 個別的(具體的) 諸現象과 그것들의 個別的(具體的)인 諸關係」를 다루는 學問과, 「諸類型(經驗的形態)과 그것들의 典型的인 諸關係」를 다루는 學問과의 사이의 區分에 있다고 한다.⁽⁸⁾ 歷史와 統計學은 前者의 範疇에 속하는데 反하여 理論經濟學은 經濟諸現象間의 關係와 本性에서 무엇이 정말로 「一般的」인 것인가에 關心이 있기 때문에 後者의 範疇에 屬한다. 한편 政治經濟學은 理論經濟學과 第三의 類型의 學問과의 結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第三類型의 學問은 國民經濟에 관한 實際的 乃至 技術的 學問으로서 政策 및 財政分野에서 「適合한 行動諸原理」에 關心이 있는 것이다. 歷史學派의 支配下에서 歷史的 知識과 理論的 知識 및 實際的 知識 사이의 嚴格한 區分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獨逸에서 經濟理論을 無視하게 된 主要原因이 되었다는 것이 Menger 의 見解였다.⁽⁹⁾

(6) L. Walras, *Elements of Pure Economics*, trans. W. Jaffe, 1954, p. 40.

(7) *Ibid.*, pp. 69-70.

(8) Carl Menger, *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1883—이의 英譯版으로 *Problems of Economics and Sociology*, trans. F.J. Nock, 1963이 있다.

(9) D. Winch, "Marginalism and the Boundaries of Economic Science," *History of Political*

以上の圖式的説明은 經濟問題를 稀少性의 角度에서 보려고 하여 純粹科學의 自律性을 確立하고자 하는 意欲의 共通的인 自覺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그들의 見解는 다른 問題에 관해서는 判異한 對答을 낳을 수 있고 相異한 哲學的 傳統의 結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主된 差異點은 純粹理論의 經驗的 證據와의 關係에 관한 Jevons 와 Menger 의 各各의 立場에서 찾아볼 수 있다. Menger 는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數學의 用途에 대해서 懷疑的이었을 뿐만 아니라——Jevons 와 Walras 는 여기에 熱情的이었는데 反하여——理論的 學問과 歷史 및 統計的 學問 사이에 관한 그의 基本的인 二分法은 그 사이에 架橋를 許容치 않았던 것이다. 純粹理論의 事前的 演繹을 事後的인 歸納方法에 의해서 檢證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었다. 實際로 Menger 는 「精密한 經濟理論을 純經驗的 方法으로 檢證한다는 것은 단순한 方法論的인 不條理에 지나지 않고 精密한 研究의 基礎와 前提를 認識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幾何學의 諸原理를 實際의 對象에 대한 測量을 통해서 檢證하려는 것」 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보았다.⁽¹⁰⁾

이와는 달리 Jevons 는 自然科學의 訓練에 一致되는 以上으로 이 問題에 관해서 正反對의 見解를 갖는다. 그는 「精密」이란 말을 全然 다른 意味로 使用하여 理論的 關係가 數學으로 表示되는 學問 뿐만이 아니라 諸用語가 測定可能한 數量과 關聯되는 學問도 여기에 든다고 보았다. 經濟學은 感情의 測定에 앞서 人間의 快樂에 관한 數學的 學問으로 存立할 수 있는 것이고, Jevons 는 經濟理論을 Euclid 에 따라 直觀的으로 成立되는 公理로부터 시작되는 「거의 確實한 眞理」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Jevons 의 學問體系는 雜種의 受胎를 許容하여, 그는 經濟學이 數理的 學問에서 精密科學으로 轉換할 可能性에 관해서 크게 樂觀論을 나타내고 있다. 感情의 測定은 이미 原理上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령 重力의 경우처럼 感情은 動作이나 人間의 行動에 대한 效果에 의해서 計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分野에 대한 그의 主된 希望은 「좋은 理論」의 諸手段에 의해서 適切히 解釋될 必要가 있을 뿐인 統計資料의 豊富한 存在에 依存하고 있었다. 그가 格別한 慰安을 얻었던 것은 「個別的으로 볼 때 全然 不定量的인 것이 大數 및 폭넓은 平均으로 보던 精密調査가 可能하다」는 사실에서이다.⁽¹¹⁾

一方에 있어서는 Menger 와 他方에서는 Walras 및 Jevons 사이의 方法論的 差異點에 관해서 Emil Kauder가 說明을 試圖한 바 있다.⁽¹²⁾ Kauder 는 Menger 가 倫理와 科學 사이의

Economy, Fall 1972, p. 330.

(10) Carl Menger, *Untersuchungen, op. cit.* (英譯版), pp. 60-70.

(11) Jevons, *Theory*, p. 17.

(12) Emil Kauder, *History of Marginal Utility*, 1965.

보다 根本的인 分離를 했다고 主張한다.⁽¹³⁾ 그렇기 때문에 純粹科學은 그 自體가 目的으로 探求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快樂主義와 道德 사이의 衝突可能性에 관해서는 Walras 와 Jevons 의 경우 만큼 徹底히는 究明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Menger 가 哲學的 實在論의 原理를 採擇하여 精神이라는 것이 客觀的 對象의 本質的 特質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데 있다. 이 觀點에 따르면 理論은, 理想型을 孤立化시키거나 精神構造를 造成함으로써 着手되는 것이 아니라, 對象의 存在理由에 관한 直接的 理解를 目標로 하고 모든 時間과 空間에 妥當되는 精密類型과 그들 相互間의 類型的 關係의 形成에 의해서 成立된다. 그와 같은 體系內에서는 相互依存關係의 類型 대신에 發生的 因果關係가 나타난다. 이는 Menger 의 數學에 대한 態度와, 經驗的 資料가 理論的 理解에 어떻게 有關하다는 思考에 대한 그의 反對意思와를 說明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그는 統計的 乃至 集計的 性格의 資料의 價値에 대한 Jevons 의 信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社會全體에 관한 唯一한 理解方法은 方法論上의 個人主義的 諸手段에 依存하는데, 이에 의해서 自生的이고 無意識的인 社會秩序가 個人行爲의 結果로 取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見差가, 英國版, 오스트리版 및 Walras 版의 新古典主義의 그 以後의 發展 方向에 대해서 重大한 影響을 미친 것이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經濟科學에 대한 歷史主義的 方法 및 範圍에 대한 攻擊에 있어서 이 3人이 取한 立場의 根本的 類似性은 否認할 수 없다. 歷史學派의 主張에 대한 直線的 反對를 한 Menger 의 立場에는 그 痛烈性에서는 날라도 그 本質에 있어서는 Jevons 와 Walras 도 同調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Jevons 는 「經濟의 諸形態 및 關係의 發展을 다루는 學問이 發生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一方, 純粹經濟學을 그러한 混亂으로부터 救出하기 위해서는 社會的・制度的 變化의 研究는 다른 사람들에게 讓渡할 생각이었다.⁽¹⁴⁾ 그는 英國歷史學派의 한사람인 T.E. Cliffe Leslie 가 「廣範한 歷史的 研究가 眞正한 理論의 確立에 先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든가 「社會의 歷史와 그 全體構造 및 그것들이 露出시켜 주는 諸法則의 研究없이」 消費理論을 展開할 수 없다고 하는 意見 등에는 明確히 反對하고 있었다.⁽¹⁵⁾

한편 Walras 도 역시 歷史學派의 主張에 대해서 批判的이었다. 가령 1874년에 獨逸講壇 社會主義에 대한 伊太利의 두 支持者 Vito Cusumano 와 Alberto Errera 에 보낸 書翰에서 그들이 Manchester 學派와 프랑스의 그 信奉者들을 批判하는 點에 대해서는 同意하지만,

(13) *Ibid.*, chap. 8.

(14) Jevons, *op. cit.*, p. xvi.

(15) T.E. Leslie, *Essays in Political and Moral Philosophy*, 2nd ed., 1888, pp.71-72—*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332.

그리고 財産 및 産業制度의 人爲的 性格은 認定하지만 좋은 機械을 만들기 위해서 材料의 自然的 性質에 관한 知識이 必要하듯 「잘 組織된 經濟社會를 만들기 위해서는 社會的 富의 自然的 趨勢에 관해서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想起시키고 있다.⁽¹⁶⁾ 攻擊하는 內국에 가지는 그는 統計와 歷史만으로 古典學派理論의 缺點을 是正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懷疑的이었다. 事實과 그에 관한 法則 및 結果와는 全然 다른 것이다. 즉 단순한 經驗主義는 알차지 못한 獨斷을 낳는다는 것이다. 純粹科學의 普遍妥當性과 應用科學의 特殊性 사이의 嚴格한 區分을 Walras가 얼마나 重視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1879년에 프랑스의 教育機構改革을 위해서 낸 提案속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Walras는, 이 提案의 目的의 하나가 理論과 實際, 科學과 政治 사이의 混同을 하는 獨逸의 經驗을 回避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⁷⁾

三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Jevons, Walras 및 Menger의 方法論的 立場의 類似性이 經濟問題에 관한 古典派와 新古典派의 觀點의 本質的인 差異點을 밝혀주고 있는가? 언뜻만 보거나 그것들이 本章初頭に 言及한 對照點을 證明해 주고 있는가? 가령 그것들은 限界主義가, 科學과 藝術 및 實證的 命題와 規範的 命題 사이의 區別에 관해서 보다 明確하고 보다 專門的인 認識을 하고 있다는 見解를 保證해 주는가? 以下에서는 이 點問題點들을 考察해 보기로 하자.

우선 위의 疑問에 대한 對答은 否定的인 것 같다. 이런 形態로든 理論과 實際 또는 實證과 規範을 區別하고자 하는 意圖은 古典學派의 여러 著者들 특히 Senior, Whately, J.S. Mill 그리고 Cairnes의 著書들에서 發見할 수 있는 곳이다.⁽¹⁸⁾ Malthus가 政治經濟學이 「數學 같은 最密科學」임을 認識치 못한 點과 또 그가 「經驗」에 대해서 未熟한 魅力을 갖는 傾向이 있는 點에 대해서 Ricardo가 此露했던 Malthus에 대한 不복속에도 이와 비슷한 意圖이 들어 있다.⁽¹⁹⁾ 經濟科學의 自律性에 대한 信念을 위해서 말드시 限界主義가 必要한 것이 아니라는 點은 演繹的 方法에 대한 J.S. Mill의 著명한 辨明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⁰⁾ Mill은 初期에는 同調였으나 結局은, 政治經濟學을 歷史나 社會學속에 包攝하

(16) W. Jaffe,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1965, vol. 1, Letters 309-11, 317, 318, 323, 326, 415.

(17) Winch, "Marginalism and Boundaries of Economic Science," *op. cit.*, p. 333.

(18) J.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p. 535-41.

(19) David Ricardo, *Works and Correspondence*, ed. P. Sraffa, 8:331, 6:295.

(20) J.S. Mill, "Essay on the Definition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A System of Logic*,

고자 하는 Saint-Simon主義者나 Comte의 企圖에 反對했다. 그러면서도 人間을, 「富를 所有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目的의 達成을 위한 手段의 相對的 効力を 判斷할 能力이 있는 存在로」取扱하는 實證的 學問의 必要性은 如前과 主張했다. 勿論 現實社會의 人間에 關係되는 많은 動機中에서 한가지 要素만 抽象化하는 過程이란, 實際行動에 관한 結論은 다른 分野의 知識에 의해서 補充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했다.

이렇게 보면, 限界原理의 再發見者中 어느 누구도 Mill보다 훨씬 더 나아갔느냐 하는 것은 疑心스러워진다. Mill에 대한 攻擊의 機會를 놓치지 않던 Jevons조차도 이 問題에 관해서는 異議가 없었다. T.W. Hutchison은 英國에서 限界効用理論을 수만시킨 効用學說의 復活은 經濟學者로 하여금 消費者評價의 目的에 관한 中立性을 지키게 하는 同時에, 經濟政策과 社會正義의 實際問題들이 形式上으로는 純粹經濟科學과 區分되지만 역시 科學의 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主張을 가지게 했다는 것을 指摘했다.⁽²¹⁾ 그러므로 純粹經濟科學의 應用經濟學 사이의 境界 設定은 古典派經濟學과 新古典派經濟學의 區別에 對應하지 않는 것이나.

그러면 이와 좀 다른 疑問을 提起하여, 限界主義가 經濟理論의 目標을 얼마만큼이나 높히 놓았는가를 알아 보자. 즉 經濟問題에 관한 限界主義者의 觀點이, 以前에 經濟學者들이 歷史的, 制度的 및 社會學的인 諸變數에 附與하던 重要性을 減退시키는 데 얼마나 責任이 있었는지 하는 疑問이다.

물론 어떤 意味로 보면, 限界主義는 經濟學의 領域을 오히려 擴大시키는 데 究與한 것이 사실이다. 再建된 經濟學의 主要功績은 經濟世界에 있어서의 選擇原理의 統一과 普遍性的의 추가자를 보여준 데 있었다. 本然의 經濟問題들, 擇一的인 用途사이에 稀少手段을 配分하는 것으로 定義하고, 여기에 物質的·非物質的인 그리고 道德的·非道德的인 財貨와 用役을 包含시킴으로서 限界主義의 擁護者들은 人間의 選擇原理의 普遍的 妥當性을 強調했다. 限界의 接近方法은 單一的인 一般原理의 特殊한 경우로서의 生産諸要因의 價格을 포함하는 모든 價格의 決定過程의 說明을 可能하게 했다. Schumpeter가 限界主義의 論理에 內包되어있는 「一般性을 向한 突進」에 관해서 言及하게 되었고, 또 그로 하여금 「Jevons, Menger 및 Walras의 限界効用理論의 歷史的 重要性은 이들 經濟學者들이 그로써 一般經濟均衡의 概念으로 昇華하게 하는 橋梁役割을 했다는 事實에 主要 依據했다」고 結論짓게 한 것이 限界革命의 이런 側面이었다.⁽²²⁾ 이러한 意味에서의 一般性的의 成就를 위한 研究

1843, Book VI ---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333에서 引用.

(21) T.W. Hutchison, *Positive Economics and Policy Objectives*, 1964, pp.40-41.

(22) Schumpeter, *Ten Great Economists*, 1951, p.126. 그의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方向은 古典派 學者들의 注目된 特徵이 아니었으며, Schumpeter의 「Ricardo 的 缺點」에 대한 非難은 Walras의 一般均衡에 대한 그의 讚美의 裏面이 되고 있는 것이다.

Schumpeter의 熱意는 理論的 一般性的 문제를 넘어서 限界主義의 「超越的인」 性格에 關해서 言及하고 있다. 初期의 限界効用理論家들은 모든 經濟問題의 共通된 核心은 制約된 極大 또는 極小의 問題라고 하는 것을 認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一旦 이것을 認識한 다음에는 「經濟學을 超越하여 단순히 어떤 制約條件에만 복종하는 事物의 不確定體系의 認識에까지 올라선 然後 完全히 一般的인 數學的 論理體系를 開發하는 데 힘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³⁾ 이 思考의 路線에 따라 Barone에 의한 集産主義國家에의 數學的 裝置의 應用可能性을 論及한 다음 Schumpeter는 「經濟過程의 論理的 核心을 觀察의 對象에 드는 制度的 外觀의 土臺 위에」 올려 놓을 것을 主張한다.

여기서 우리는 本章 序頭에 言及한 限界主義에 關한 兩極端의 解釋에 가장 가까운 位置에 到達했다. 限界主義가 新古典 經濟學者들로 하여금 純粹經濟學으로부터 制度的・歷史的 諸要素를 除去할 수 있게 했다는 見解에는 論議의 餘地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純粹科學과 應用科學 사이의 境界를 긋는다는 觀念도 古典派經濟學者들에게도 있었다고 한다면 남은 問題는 純粹科學自體의 領域이 어디까지냐에 關한 差異點이라 하겠다.

四

가장 잘 알려진 것은 人口理論의 除外與否에 關한 問題이다. 成長과 巨視分配의 問題에 대한 關心과 더불어 어떤 種의 人口學說이 있는 古典派經濟學은 想像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Jevons는 이 人口學說의 「眞理와 거창한 重要性」을 받아 들이면서도 「그것이 經濟學의 直接的 問題와는 아무런 相關이 없다」고 判斷한다. 經濟學의 直接的 問題는 「多樣的 需要 및 生産能力과 一定土地 및 餘他的 物的資源을 保有하는 一定人口가 所與되었다고 할 때 要求되는 生産物의 効用을 極大化하게 되는 勞動의 雇傭樣式」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²⁴⁾

한편 古典派經濟學은 그 抽象的인 形態에 있어서 大體로 技術은 外生的으로 取扱했으나 生産諸要因의 供給은 制度的 要因과 더불어 經濟學領域內的 것으로 取扱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²⁵⁾

p. 918.

(23) Schumpeter, *Ten Great Economists*, op. cit., pp. 123-24.

(24) Jevons, *Theory*, p. 289.

(25) J.S. Mill,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1844 —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336-337에서 引用함.

限界主義가 稀少성과 交換의 問題를 純粹理論의 核心으로 만든 結果 決定的인 單純化가 이루어진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가령 Walras 經濟學의 主題에 관한 三分法에 의하면, 社會의 富의 生産도 分配도 「自然科學」의 테두리 안에 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各己 人間對 物質, 人間對 人間の 關係를 다루기 때문에 「人間的」 現象이지 「自然的」 現象이 아니다. 換言하면 그것들은 전적으로 人間意志와 社會的 裝置에 관한 問題를 다루는 것이다. 純粹科學은 이러한 生産이나 分配가 아니라 交換價値의 領域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一旦 確立되면 그 始源이 自然的이고 그 表示形態가 自然的이며 그 本質이 自然的인 自然現象의 性格을 띠게 된다.」 稀少性(rareté)은 力學에서의 速度와 比較할 수 있고 交換價値는 計測可能한 數量이기 때문에 數學的 處理에 合致되는 主題이다. 그러니 「단일 純粹經濟理論이나 交換 및 交換價値理論이……力學이나 流體力學과 같은 物理·數學的 科學이라 한다면 經濟學者들은 數學의 技法과 言語를 使用하는 데 특별한 필요가 없을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純粹經濟學이 交換價値問題에 集中하여 그 領域이 좁아진 結果는 經濟의 調整 機構를 그 社會·歷史의 外皮로부터 假借없이 分離시킴으로써 이의 超文化的이고 超時間的인 妥當性의 主張을 더 強化시키게 되었다. 여기서 古典派經濟學과의 對照를 할 수 있지만, 이 差異點은 역시 처음 보기보다는 直線的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J.S. Mill은 Comte와 Saint-Simon 主義者들이 제기한 經濟學에 대한 批判에 極히 銳敏했기 때문에 「그 많은 部分이 本來 波動的이고 前進的인 데도 社會秩序의 不變性」을 既定事實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²⁷⁾ 그의 *Principles*는 演繹的 學問의 默示的인 普遍主義를 可能한 限 歷史·社會的 相對主義와 妥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風習과 競爭에 관한 章이나 社會主義와 代替的인 財產制度에 관한 章이 있는가 하면, Comte 流의 靜學·動學의 區別을 利用하고 「自然的 眞理의 性格을 지닌」 生産法則과 「전적으로 人間制度의 問題」가 되는 富의 分配法則 사이의 區分이 있는 것이다.⁽²⁸⁾

그렇다 하더라도 分配問題에 관한 Mill과 Walras의 外觀上의 類似性은 綿密히 檢討해 보면 否定的이다. Mill이 社會的 生産物의 分配에 관한 어떠한 基準이나 制度든 그 歸結은 「저의 恣意的이 아니라 生産法則과 마찬가지로 自然法則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達한 사실은 흔히 잊혀지고 있는데, 바로 이 點은 Walras가 받아들일 수 없던 意見이었다.⁽²⁹⁾ 이 差異는 術語上으로도 나타났고 分配理論의 目的에 관한 해석의 隔差에서도 露出

(26) Walras, *Elements*, pp.69-71.

(27) J.S. Mill, *Essays on Economics and Society*, in *Collected Works*, 1967, 4: 225—*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337.

(28)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erican Classics, 1970, pp.349-350.

(29) *Ibid.*, p.350.

된다. 古典派에 대한 限界主義者들의 主된 非難中 하나는 그들이 統合된 分配理論의 提示에 失敗한 데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古典派가, 分配의 三分理論이 아닌 單一理論을 다만 交換價値 및 生産理論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言及한 中立的 形態의 解釋은 巨視的 乃至 階級的 分配過程에 관한 準動學的 關心과, 新古典派의 微視的 傾向의 靜學的 分配理論의 差異點을 強調함으로써도 이러한 批判을 받을 수 있다. 後者 新古典派의 靜學的 分配理論은 한 經濟의 生産構成單位內에서의 生産要因間의 代替性의 制限을 強調한다. 그리고 古典學派著者들이 交換價値와 分配사이의 緊要한 聯關을 斷續的으로 밖에는 考慮하지 않았다는 粗雜한 判斷을 緩和하기 위해서는, 勞動價値論도 國民所得과 交換價値의 時間的 變動을 測定함에 使用할 福祉基準 乃至 尺度로서 意圖된 것이었다고 하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는 勿論 新古典派 經濟學者들에게는 同一한 形態로는 提起되지 않았던 問題이다. 이 路線의 接近方法을 採擇한다면 實質的 差異點이 明確해지는 대신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어느 쪽이 本然的 分配理論을 提示했느냐의 與否는 定義의 問題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런에도 不拘하고 理論經濟學의 領域을 좁혀 놓은 것이 限界革命의 結果였다는 結論은 成立可能한 것이다. 왜냐 하면 新古典派의 意味로는 分配가 단순히 最終財貨價格理論의 延長으로 밖에 取扱되지 않는 데 反하여, 分配문제의 古典派의 解釋은 制度上의 形態 및 基準과의 默示的인 聯關과 더불어 純粹經濟學으로 把握可能한 視界를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結論도 初期限界主義者들 특히 Jevons가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을 斷切할 수 없었던 點과, 純粹經濟學의 視界 밖에도 新古典學派의 用語의 使用을 正當化시키는 다른 문제가 存在한다는 點과를 記憶한다면 바로 修正을 免하지 못하게 된다. 가령 英國에서는 貧困과 階級間 所得分配의 測定에 관한 關心이 19世紀 最終 四半世紀에 있어서 社會·經濟 및 統計的 調査의 注目되는 對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設使 限界主義가 그런 問題들을 純粹經濟學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보았으며, 또 巨視的 分配問題를 다룰 一般理論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分配의 公正性에 관한 問題는 當時 應用科學의 課題順位上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初期限界主義者들은 그 古典派의 先行者에 의해서 認定되던 暗默裡의 制度的 假定的 相當部分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이 「Adam Smith에게서 물려받은 것以外로는 經濟變動의 說明體系가 아무것도 없었으며」 또 「環境, 集團의 態度, 集團의 價値評價 등의 具體的 影響은 J.S. Mill에 의해서 行해진 以外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Schumpeter의 해석에는 相當한 眞理가 있는 것 같다.⁽³⁰⁾ 이 면에 관해서는 經濟學의 많은

(30) Schumpeter, *History*, p. 889, p. 892.

結論이,嗜好가 一定하다는 假定에 의해서와, 市場選擇과 Marshall이 「活動範圍」라는 用語로 한데 묶어버린 것 사이를 連結시키지 못하므로 因해서 無効化되었다고 非難하는 社會學者의 批判對象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 모두가 批判을 받는 面이다.⁽³¹⁾

그런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古典派와 新古典派 사이의 繼續性의 主張을 誇張할 수는 없다. Mill은 政治經濟學에 대한 歷史的·社會學的인 批判에 對決하는데 그 直後에 나온 初期新古典學派가 원했던 것 以上으로 나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Mill은 한편으로는 政治經濟學에 妥當되는 研究方法이 普遍的으로 妥當된다고 主張하면서, 「몇가지 代數方程式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다른 方程式을 解決할 수 있듯이 英國의 經濟學이나 또는 심지어 Yorkshire의 政治經濟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나라의 實際 및 可能的인 문제를 理解한다」고 했다.⁽³²⁾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競爭原理를 통해서만 政治經濟學은 科學的 性格의 自負心을 가질 수 있다」고 後退하고 있다.⁽³³⁾ Edgeworth는 「Mill이 往年에 經濟的 思考의 基盤이라고 認定하던 自然原理의 普遍性에 대해서 疑心을 품기 시작하자」先驗的 演繹方法에 관한 信念을 維持한다는 것이 實際로 不可能했던 點을 指摘하여 Mill의 一貫性의 缺如에 注目하고 있다.⁽³⁴⁾

19世紀 後半期는 위에서 처럼 漸進的 進化論과 學際的 說明方式이 流行이던 때였는데도 不拘하고 限界主義者들이 좁은 領域內에서 純演繹的 學問의 自律性을 確立하려던 努力은 驚異的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背景에 對抗해서, 合理的 極大化要素를 中心으로 삼는 經濟學에 의한 보다 徹底한 個人主義와 數學의 使用은, Mill과 後에는 Marshall도 相當한 讓步를 하게 된 當時의 支配的 知識의 潮流에 대한 決斷的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如何든 經濟學의 境界에 관한 紛爭은 繼續되었으나 새로운 調整이 專門家의 慎重性에는 더 便利하게 된 反面에, Jevons의 統計的 著述 및 政策論과 Walras의 自由社會主義의 路線에 따른 社會改革持論과에 의해서 代表되는 바와 같이, 隣接分野에 대한 侵犯擴大를 排除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Foxwell은 1887년의 英國經濟學에 관한 評價를 數理的 限界主義를 讚揚하는 角度에서 아래의 같이 描寫하고 있다.

「그것(限界主義)은 經濟的 思考에 있어서 처음으로 繼續성과 正確性을 導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舊理論이 正常的인 科學水準 以下에서 얼마나 希望없이 맴돌고 있었던가를 밝혀

(31) Talco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Chap. 4.

(32) J.S. Mill, *Essays on Economics and Society*, op. cit., p. 266.

(33) J.S. Mill, *Principles*, ed. Ashley, p. 242.

(34)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p. 340, note 34.

주었고, 또 그것은 定義와 假定の 全體系에 관한 分解檢査를 했고, 그것은 未觀察의 眞理에 대해서와 이미 觀察된 眞理의 正確한 限界 및 그 最善의 表現에 대해서 許多한 暗示를 제공해 주었으며, 科學에 대한 有機的 統一性を 附與했고, 그것은 또 가장 價値있는 寄與로서 教育받은 經濟學者로 하여금 그후부터는 理論과 實際의 限界를 誤解하는 일이 事實上 없게하도록 만들었다.」⁽³⁵⁾

「一般原理과 一般命題의 配置를 後退시켜 간 것은 그들(限界主義者)의 眞正한 權威의 減少가 아니라 그 增加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Marshall의 主張과, 또 「具體的 眞理體系」와 「眞理를 發見하는 手段」에 관한 그의 區別과는 모두 여기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은 經濟學說의 變革說과 繼續說을 考慮에 넣는다 하더라도 限界主義의 出現이 經濟學內에서 重點의 廣汎한 移行을 가져왔고, 이 重點移行이 經濟學의 領域을 呑입하려고 이루어졌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 이와 같은 結論은 近年 古典派에서 新古典派에로의 經濟學의 轉換을 Popper 流로, 學問發達의 漸進的 過程으로 看做함이 最善인지 그렇지 않으면 革命的 不連續性을 主張하는 Kuhn의 解釋과 一致하는지의 與否에 관해서 活潑히 論議되고 있는 科學哲學者와 科學史家들의 問題를 提起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³⁷⁾

V. 結論——方法論的 省察

本論文에서 지금까지 論議해 온 諸問題는 限界革命의 始源과 構造와 그 普及過程을 具體적으로 把握하고자 한 試圖였다. 이제 이와 같은 試圖에서 確認되는 諸結論을 우리는 어떻게 整理할 수 있을까?

우선 限界革命의 經濟學說史의 評價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이 理想的인가의 이른바 方法論的 立場이 問題됨을 認識할 수 있다. 여기서 參考되는 것은 M. Blaug가 提示한 經濟學史研究方法의 二分法이다. 즉 그는 經濟學史研究에 있어서 두가지 對極的 方法으로 相對主義와 絕對主義라 부를 수 있는 立場이 있다고 했다.⁽¹⁾ 相對主義는 過去에 提出된

(35) H. Foxwell, "The Economic Movement in Engl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1887) p. 88—*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341-42.

(36) A. Marshall, "The Old Generation of Economists and the New," *Memorials of Alfred Marshall*, ed. A.C. Pigou, 1925, p. 297.

(37) Popper對 Kuhn의 科學史論爭에 관해서는 I. Lakatos and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1970.

(1)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1968, p. 2.

모든 單獨理論을 「同時代의 狀況의 表現 또는 그 反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理論이 原則적으로 正當화된다는 立場이다. 한편 絶對主義는 經濟理論의 歷史的 變화와 進展을 「誤謬에서 眞理에로의 恒常的 進行」에 관한 知的 發展의 側面에서만 注目한다. 前者의 相對主義는 經濟學者의 觀念이 特定階級 또는 集團의 利益의 合理化 以上の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立場으로서 이를 政治的 動機, 이데올로기의 偏向 또는 辯護論的 意圖 등 當時의 經濟構造 및 制度라든가 그 時代의 歷史的·政治的 潮流와의 適合性이란 關聯에서 經濟理論의 妥當性을 評價하고자 한다. 이에 反해서 後者の 絶對主義는, 相對主義가 經濟理論의 妥當性을 評價함에 있어 그 內的一貫性이나 說明的 範圍를 無視하고 全적으로 理論成立의 環境的 要因에만 注目하는 態度에 批判을 加하고, 一般的으로 볼 때 經濟史와 社會政治史만이 經濟學의 知的 變種에 대한 關鍵을 提供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다. 즉 絶對主義는 經濟的 行動에 관한 假定은 絶對的 意味에서 正當한 것이 아니고 理論的 歸結이 모든 時代와 모든 場所에 妥當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分析的 道具나 分析的 構成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經濟學의 內在的 進歩가 存在해 왔다는 視角에서, 眞理는 經濟知識의 限界의 增分에 集中된다는 見解에 立脚하고 있다. 이처럼 經濟理論이 實質적으로 進歩되어 왔다는 認識에 根據하고 있는 絶對主義는 科學的 經濟學의 嚴密한 自立的 性質을 主張하기 때문에, Schumpeter가 말하는 것처럼 「經濟分析은 어떠한 경우에도 經濟學者가 종종 갖게 되는 哲學的 意見에 의해서 形成된 일이 없다」⁽²⁾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經濟學者의 政治的 選好나 哲學的 價値判斷 또는 信仰, 心理學的 連想 같은 것은 基本的으로는 經濟分析의 妥當성과는 無關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要因에 의해서 理論을 推測한다는 것은 經濟分析의 體系의 性格과 經驗的 內容과를 無視하는 것으로서 이를 排除하고 經濟學史는 어디까지나 經濟分析史이기를 指向한다.⁽³⁾

經濟學說史의 研究에 관해서 以上과 같은 두가지 基本的 立場을 分類한 Blaug는 時代精神이나 社會環境, 經濟制度 및 哲學思想 같은 要素를 그것들이 重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經濟學史研究의 範圍 밖의 問題라는 理由 때문에 論外로 돌리면서 어떠한 特徵이 永續的인 經濟觀念의 性格을 規定해 왔는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⁴⁾ 그러면 이러한 立場의 Blaug가 限界革命과 같은 經濟學說史上 극히 重大한 變革을 어떻게 解釋하고 있는가?

Blaug는 限界革命의 起源에 관한 現在까지의 學說을 아래와 같은 四種으로 나누어 이를

(2)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5, pp. 28--32.

(3) *Ibid.*, pp. 34-76.

(4) M. Blaug, *op. cit.*, p. 8.

檢討하고 있다. (1) 經濟學的 修練內部에서의 自律的인 知的 展開, (2) 哲學의 潮流의 產物, (3) 經濟界의 一定한 制度의 變化의 產物, (4) 社會主義 특히 Marx 的 形態에 對한 逆風의 代價가 그것이다.⁽⁵⁾

첫째의 經濟學的 內的 發展에 의한 說明은 가장 首肯하기 쉬운 것으로서 위의 네가지 說明中 가장 많이 支持되고 있는 方法이다. 이는 1840 年代와 50 年代에 있어서의 古典派 經濟學의 破産, Mill 的 *Principles* 에 있어서의 勞動價値論의 實際的 放棄와 특히 1860 年代末에 있어서의 Mill 的 賃金基金說의 廢棄, Thornton 과 Longe 는 賃金基金說에 對한 攻擊에서 勞動市場에서의 需要 및 供給函數의 可變性에 注目했고 Jenkin 은 1870 年의 論文에서 需要 및 供給曲線을 作圖했고 Jevons 는 限界効用價値論을 概說한 「政治經濟學의 數學의 一般理論에 對한 考察」을 이미 1860 年代 初에 發表하기 시작하는 등으로⁽⁶⁾ 적어도 英國에 對한 限 古典學派의 理論에 對한 不充足感의 成長이란 衝動에 의해서 새로운 觀念이 經濟學內部에서 純粹히 發達한 것이 限界効用學說인 것이며, 이는 執拗한 反對에 對抗하면서 自己世界를 展開시켜 갔고 1890 年까지는 古典派 經濟學의 痕跡이 거의 征服되다시피 된 것이다. 그러나 絕對主義的 說明方法은 유럽大陸에는 適用이 어려운 데에 難點이 있다. 前記한 바도 있거니와 Menger 와 Walras 는 Jevons 의 경우처럼 「限界」効用의 觀念을 示唆한 先行者의 刺戟이나 1850, 60 年代의 英國大學 같은 支配的이고 堅固한 思想이나 學派에 反作用할 對象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 이 兩人 사이의 學問的 交流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즉 Menger 와 Walras 는 相互間에 그리고 Jevons 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背景과 傳統이 相異한데도 이들 3人이 限界効用의 觀念을 同時에 着想한 것이다. 이것이 單純한 偶發的인 知力의 結果로 볼 수 없다는 데에 Blaug 가 말하는 第二의 方法이 成立할 餘地가 생기는 것이다.

第二의 立場은 限界革命의 起源을 哲學 또는 社會科學一般의 運動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19 世紀 中葉에 獨逸에서 시작된 「內的 考察과 感性的 印象에 돌아가」라는 Kant 哲學의 復興이 유럽大陸全體를 席捲한 것이 事實이지만, Menger 나 Walras 가 이러한 哲學的 傾向에 影響을 받았다는 아무런 證據도 없으며, Jevons 만이 1850 年代의 英國에 流行하던 快樂主義의 思想의 影響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主觀價値論은 Catholic 文化의 產物이며 勞動價値論은 Calvin 的 世界觀으로부터의 自然的 流出이라는 主張⁽⁷⁾도, Catholic 이 유럽大陸 특히 南歐諸國을 支配한 것이니만큼

(5) *Ibid.*, p. 304.

(6) 이部分에 對해서는 本論文 Ⅳ章 參照.

(7) E. Kauder, "The Retarded Acceptance of Marginal Utility Theory," *Quarterly Journal of*

프랑스나 伊太利의 經濟學에 効用理論이 일찌기 普及되고 英國에서의 이의 受容이 遲滯된 理由에 관한 說明은 되고 있으나 限界効用理論의 嚮頭와 이의 經濟學史上的 位置 또는 直接的으로 限界革命的 說明方法으로는 疑問視되는 바가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은 先驅者들이 이 圖式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情이 限界効用理論의 始源을 經濟環境의 變化에서 說明할 可能性을 提供한다. 이 方法의 古典的인 提示者는 Nikolai Bukharin 으로서⁽⁸⁾ 그는 첫째, 「消費者의 心理는 金利生活者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限界効用理論은 「生産過程으로부터 이미 排除되어 있던 브르조아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극히 疑心스런 想定下에 說明하고 있다. 즉 新古典派經濟學에서는 資本家가 아니라 消費者가 그 主人公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經營者와 資本家의 分離, 企業의 貯蓄이 아닌 個人的 貯蓄이 投資元本의 基礎가 되는 등 古典學派時代와는 判異한 經濟制度의 反映이라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變化에 대한 個人的인 知的 覺醒의 關聯을 具體的으로 明示하기가 어렵다는 點과 限界革命的 3人組를 輩出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英國의 經濟構造가 相異했다는 點으로 因해서 이 說의 妥當性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限界主義理論은 Marx 主義에 대한 브르조아의 回答에 지나지 않았다는 主張이 있다. 그러나 「資本論」 第一卷은 1867년에 나왔지만 1887년까지 英譯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evons의 限界効用論 및 限界生産力理論까지 包含된 첫 論文이 1862년에 쓰여져서 1863년에 出版되었다. Jevons, Marshall, Menger, Walras 어느 하나도 그 思想의 體系形成期에는 Marx 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點은 이의 立場의 妥當性을 크게 損傷시키고 있다. 勿論 유럽 勞動運動을 Marx 主義가 席捲한 1880年代末에는 Böhm-Bawerk, Wicksteed, Pareto, Wieser 등 第二世代의 限界主義者들이 新理論을, Marx 經濟學의 攻擊에 使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限界經濟學의 發展過程上 있었던 偶發的인 문제이지 그 起源에 관한 問題는 아니다. 새로운 傳統을 確立해 간 첫 世代는 Marx 主義는 물론이지만 社會主義思想에 대한 知識조차 充分지 않았던 것이며, 그렇에도 구래의 資本主義 및 私有財產의 擁護論을 가리자면 貨金基金說에 立脚한 古典學派의 理論이 훨씬 強力한 擁護論의 武器를 提供했다고 볼 수 있다. 限界効用理論은 오히려, 完全競爭이 社會全員의 滿足을 極大化한다는 點을 論證하기는 했어도 自由企業體系가 効用의 最大剩餘를 社會에 保證할 수 있는 欲望充足을 위한 資源利用을 象徴하고 있는지에는 疑問을 품는 경우가 많았으며, 効用理

Economics, Nov. 1953; "Comments" by J.P. Henderson, *ibid.*, Aug. 1955.

(8) N. Bukharin, *Economic Theory of Leisure Class*, 1927— M. Blaug, *op. cit.*, p. 306.

論의 한 側面은 平等主義만이 滿足을 極大化한다는 含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870年以後의 大部分의 學者들은 現存의 所得分配의 不平等에 極端으로 批判的이었 고, 이 批判的 見解를 強化하기 위해서 効用理論을 使用하는 데 인색치 않았던 것이다.⁽⁹⁾

二

以上에서 우리는 주로 M. Blaug 에 의해서 限界革命의 起源이 어떤 方法으로 整理되었 는가를 中心으로 問題點을 摘出해 보았다. 다음에는 앞서도 指摘한 바 있는 限界革命起源 100週年을 記念하여 1971年에 (伊太利 Bellagio 에서 열렸던 國際經濟學史會議의 研究報告 成果를 中心으로 限界革命이 어떻게 把握되었는가 하는 方法論的 省察을 試圖하기로 한다. 이 會議에는 經濟學史專攻의 代表的 學者가 大部分 參與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研究報告는 現今의 國際學界에서의 限界革命에 관한 研究水準 및 그 成果를 遺憾없이 나타내 주고 있 으므로 本論文에서의 問題提起 및 그 整理에 있어서도 權威있는 基準이 될 것이다. Bellagio 會議에서의 研究報告者들의 成果를 方法論的 立場에서 整理해 보면 限界革命은 大體로 아 래와 같은 多樣한 視角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限界革命의 이른바 「革命的 性格論」으로서 限界主義概念 發見의 同時性 또는 複合的・單獨的 發見, 連續說 또는 斷層說 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둘째는 環境論으로서 前 記한 Blaug 의 第三의 方法과 같으며, 셋째는 傳記論的 方法으로서 限界革命을 始源의으 로 推進한 主體의 人物들의 傳記的 研究를 통해서 이 새로운 思想의 根源을 探究하자는 것이며, 넷째는 限界主義思想의 普及論으로서 時間과 空間을 통해서 이 새 思想이 어떤 過程 어떤 經路를 거쳐 擴大되고 支配的인 것으로 定着하게 되는가를 分析하며, 다섯째는 思想論的 立場에서 限界主義를 評價하는 것이기 때문에 Blaug 의 第二 및 第四方法과 同 一한 문제를 다루었고, 여섯째는 經濟學의 範圍 및 方法論으로서 限界主義에 의하여 經濟 學의 性格構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把握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여섯가지 視角에 의한 限界革命의 分析・評價方法은 前記한 Blaug 의 分類에서 본 諸方法과 重複되는 것도 있으 나 새로운 方法 또는 새로운 視角에서의 問題整理를 窺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여기 서 Bellagio 會議에서의 發表論文들을 中心으로 限界革命의 諸問題를 整理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¹⁰⁾

(9) M. Blaug, *op. cit.*, pp. 307-8.

(10) 以下の 部分에 關해서는 A.W. Coats, "Retrospect and Prospec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p. 603-624. 參照.

첫째번의 限界革命의 이론의 「革命性」의 問題에 있어서는 우선 Robert Merton 의 「複合的 發見」의 概念으로 論議가 集中된다. 즉 3人에 의한 限界效用思想의 同時 發見이 回歸의 이기는 해도 孤立的이고 偶發的인 現象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程度까지 豫測可能한 經濟學의 內部的 發展의 結果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한 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19世紀 中葉의 經濟學의 實相이 問題視되어 當時의 經濟學이 充實한 學界를 形成할만큼 研究人口構成 및 制度化가 達成되어 이론의 成熟學問의 段階에 到達해 있었는가, 國際間 또는 學者間의 交流·意思傳達는 어느 程度 活潑했으며, 知性世界의 背景이나 支配的·正統的인 經濟學의 傳統 또는 社會·經濟的 環境은 얼마나 共通性이 있었는가 등을 確認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에 의해서 비로소 限界革命의 地域, 主體의 人物 및 그 時間的 同時性의 原因과 따라서 複合的 發見의 構造 및 限界革命의 「革命性」의 特徵을 究明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論點의 基礎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우선 限界效用概念에 관한 3人의 共同發見者들은 本質的으로 同一한 問題에 關心이 있었고 어떤 決定的 側面에서는 同一한 解答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들 發見者들이 自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意味에서의 偶然的 一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오랫동안 市場現象에 관한 理解와 分析에 대한 障礙가 되어 오던 價値 및 價格理論上의 未解決의 諸問題를 解決하려는 眞摯한 科學者들에 의한 慎重하고 自覺的인 試圖의 直接的 結果였던 것이다. 이들 問題點은 末梢的인 것이 아니라 經濟科學에 核心的인 것이었고 3人의 發見者 모두가 經濟學의 後繼世代의 長期的인 反應은 豫想치 못했어도 自己들의 發見의 科學的 重要性은 自覺하고 있었다. 勿論 그들이 各己·自己의 發見을 表現하고 傳播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大體로 個性의 特徵에서 緣由되는 重要한 差異點이 있었다. 그러나, 比較的 短期間內에 Jevons 와 Walras 는 自己들의 發見의 重要性을 把握하여 精力의으로 이를 宣傳함에 있어서 다른 많은 科學的 發見의 경우와 꼭같은 行動을 했는데 比하여, Menger 는 自己宣傳이 이보다 덜 精力的이고 傳統에 대한 反撥이 덜하기는 했어도 經濟學史上 아마도 가장 一貫性 있고 짜임새 있는 學派의 實質的 指導者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다음에 限界效用分析의 受容이 遲延된 것은, 이 概念이 過去와의 極端的인 斷絶때문이라기보다는 當時의 經濟學界가 小規模·未組織的이고 特殊한 發見에 대한 反應이 微弱했고 學者間의 通信이 缺如된 데에 더 큰 原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限界革命의 受容段階에 관한 說明이고 그 始源에 있어서는 Jevons-Menger-Walras 의 複合的 發見은 그 直後부터 各自의 發見의 重要性和 그 共通性 그리고 先行的 業績의 存在를 相互間 認定하게 된 點에서 결코 偶然的 一致가 아님을 立證해 주고 있다. 勿論 많은

Bellagio會議參席者들이 1870年 前後의 英, 佛, 獨의 經濟思潮의 類似性보다도 그 差異點을 強調하는 傾向이 있으나 Jevons, Menger 및 Walras가 어느 정도까지는 經濟思想의 同一遺產의 相續者일 可能性을 否認할 수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이 方式은 달라도 結局은 生産費 理論에 대한 反對者들이었다는 점과 유럽諸國에는 確實히 共通의 基本的 經濟思想이 있었다는 걸 때문이다.

다음에 둘째번으로 經濟思想의 새로운 形成과 그 普及에 대한 環境的 影響이란 角度에서 볼 때 限界革命은 어떻게 評價되는가?

여기서 環境的 條件이라고 하던 Blaug가 말하는 第三의 方法인 經濟的 制度를 포함하는 一般的 社會經濟條件 뿐만이 아니라 經濟學界一般이 처해 있는 知的 環境 즉 學界의 風土, 教育·研究活動의 制度的 條件, 學說의 交流手段과 같은 環境과 더 微視的인 次元으로는 個個 經濟學者들에 대한 環境의 影響까지 包含하는 것이다.從來에 環境論者들의 說明이 巨視的인 社會經濟條件에 置重되는 傾向이었고 또 說得力에 許多한 缺點이 露出되고 있으므로⁽¹¹⁾ 現代에는 後者의 經濟學者에게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知的 環境과 個人的 環境에 관한 研究가 어떤 意味에서는 더 活潑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세 가지 段階의 環境論을 차례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Bellagio會議參席者中 가령 Streissler는 Menger가 商業不況, 商品의 販賣可能性 등의 概念을 自己가 經驗한 不況에서 着想하게 되었고 獨占에 대한 強調은 오스트리의 交通條件의 不適性を 反映한 것이며 19世紀末부터의 大規模企業의 發達이 價格政策의 問題에 限界主義를 適用하게 된 原因이라고 본다.⁽¹²⁾ Ronald Meek는 Jevons가 自然資源의 稀少性이란 觀念을 떠나지 못한 것은 그가 邊境地의 豐饒한 資源에 壓倒당했던 濠洲에서의 經驗과 英國生活를 對照하는 데서 起因되었다는 點을 力說하고 있다.⁽¹³⁾ 한편 日本의 Matsuura는 日本에서 限界主義의 受容이 開始된 것은 需要·供給의 不均衡에 대한 時事的 關心의 影響이었다고 主張했으며,⁽¹⁴⁾ C. Goodwin은 限界效用理論은 經濟發展의 一定段階에 到達한 國家에서만 消化될 수 있는 奢侈品이라는 假說을 내세워 各社會의 GNP水準

(11) 그 代表的인 例가 Blaug의 第3의 立場에서 說明되는 Nikolai Bukharin의 경우이며 그밖에 W. Stark, *History of Economics in Its Relation to Social Development*, 1944; E. Roll,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939 등이 있다.

(12) E. Streissler, "To What Extent was the Austrian School Marginalis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 cit.*, pp. 426-441.

(13) Ronald L. Meek, "Marginalism and Marx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bid.*, pp. 499-511.

(14) Tamotsu Matsuura, "Marginalism in Japan," *ibid.*, pp. 533-550.

과 知識의 發展의 相關關係에 관한 討論을 惹起시켰다.⁽¹⁵⁾ 그러나 위와 같은 主張과 論議過程에서 共通的인 傾向은, 一般的 社會經濟條件이라는 것은 特殊問題에 관한 可能的인 解明資料로서의 附隨的인 條件에 不過하지 全體的인 說明模型의 構成部分은 아니라고 보는 點이다.

이와 같이 研究者들에게 直接的 影響을 미치는 環境的 要因은 특히 大學과 經濟學의 專門化過程과의 關聯下에 훨씬 詳細히 다루어지고 있다. 一部學者들은 限界革命이 近代의 專門的 經濟學의 開始를 劃定하게 되었고 限界主義思想의 普及은 經濟學界의 條件變化에 의해서 直接 影響을 받았다는 點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問題되는 것은 經濟學의 專門化基準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으로서, 가령 Stigler는 經濟問題에 關心이 있는 아마추어 知識人과 經濟專門家 사이의 區分을 經濟學으로 報酬를 받느냐의 與否에 두고 있지만, 이런 意味의 基準設定에는 專門化 그 自體와 學的水準 또는 그 價値와의 區分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¹⁶⁾

限界主義의 始源段階가 아니라 普及段階에 대해서 學界의 諸條件이 미친 影響에 관해서는 Streissler가 強調하고 있다.⁽¹⁷⁾ 그는 Menger가 後援하던 學派의 起源과 成長이 限界主義의 普及에 미친 바 影響이 크다고 論한다. 그러나 이 側面的 論議에 있어서는 大學의 經濟學講座자리, 教授의 分析能力, 教課科目, 理論과 實務 또는 政策中 어느 쪽에 關心이 더 큰가, 學者의 個性 등 多様な 要因들을 考慮해야 되며 이것은 요컨대 經濟學의 職業的 成長에 관한 研究를 要求하는 것으로서 이 모두가 具體的인 歷史・環境的 條件들이다. 換言하면 專門學界에의 新入諸條件과, 學界의 既成勢力과 異端者 및 局外者사이의 關係 등을 포함하는 大學의 諸條件에 관한 綿密한 研究가 必要한 同時에 學者들의 職業的 自意識, 專門的 同質性 및 集團關係 등 高度로 社會心理學的 次元의 檢討가 並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제번의 傳記的 研究에 관해서는 이것이 經濟學史와 어떤 關係가 있는지에 대해서 意見이 가장 많이 갈라지고 있는 問題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對立되는 意見의 提示者는 傳記的 情報의 價値를 主張하는 William Jaffé와 이를 否認하는 George Stigler이다.⁽¹⁸⁾ 이 論爭은 비단 限界革命의 問題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歷史解釋一般의 基本的 問題를 포함하고 있어 가령 經濟學史家가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種類의 資料와 어떤

(15) Craufurd D.W. Goodwin, "Marginalism Moves to the New World," *ibid.*, pp. 551—570.

(16) George J. Stigler, "The Adoption of Marginal Utility Theory," *ibid.*, pp. 571—586.

(17) Stressler, *op. cit.*

(18) 이 對立的 論點에 관해서는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 cit.*, pp. 400—401의 note 65와 本論文 III章 3節 參照.

分析方法이 適合한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包括的으로 提起되고 있다. 가령 Stigler는 經濟學史家가 단순히 傳記的 資料나 蒐集한다는 것은 너무나 安易인 方法이며, 個人的 傳記에 관한 너무 詳細한 知識은 그의 知的 業績에 관한 歷史家의 判斷을 흐리게 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Jaffé는 가령 Walras의 私生活의 細細한 特徵이 그의 一般均衡論과 어떤 關係가 있는지를 判斷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事實들을 蒐集해야 되고 傳記的 資料蓄積을 어느 段階에서 停止해야 되는지 등의 決定에 難點이 있기는 해도, 이러한 情報가 狀況說明에 價値가 있다고 主張한다. 經濟學者가 어떻게 해서 언제 새로운 思想을 着想하게 되었는지, 즉 그것이 學校教育, 偶然한 讀書, 또는 對話中 어느 것에 緣由되었는지에 관해서 正確하게 알 必要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個人이 어째서 自己分野의 現行思想이나 問題를 拒否하고 어떤 것은 重視하게 되었는지를 判明한다면 새로운 思想의 起源과 그 普及過程의 研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代表的인 事例로 들 수 있는 것이 限界主義와 數學과의 關係에 관한 문제이다. 限界效用 또는 均衡分析의 理解에 어느 만큼의 數學知識이 必要했는가? 3人的 發見者들은 各各 數學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 知識을 分析的 問題를 푸는 데나 自己들의 發見을 公開하는데 얼마나 利用했는지? 많은 學者들이 19世紀 後年期에 있어서의 數學知識 특히 微積分學의 狀態에 관한 보다 詳細하고 體系의인 情報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¹⁹⁾ 教育環境의 이러한 側面은 限界革命의 主役들과 그 先驅者들의 個人生活史와 關聯되는 同時에 技術의 手段으로서의 限界主義의 受容率과도 關係된다. 그런데 數學的 知識이 完璧한데도 人間之事의 研究에는 이것이 不適合하다고 排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數學的으로는 不充分한데도 이를 活用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만큼 個人的 傳記研究의 必要性이 더욱 強調되며, 이와 同時에 學者의 訓練, 任命, 昇進 그리고 業績公開에 대한 制度的 裝置를 開發하고 實施하는 데 指導的 資質과 影響力을 發揮한 核心人物들의 生涯에 있어서 그들의 個性과 動機도 重要な 要素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를 너무 強調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傳記의 情報은 思想史의 說明을 위한 便宜上의 한가지 源泉 以上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²⁰⁾

한편 傳記的 資料를 取扱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Stigler와 Blaug는 이의 보다 明白한 分析的 處理를 主張하는데 Jaffé는 한 人間生活史에 어떤 秩序나 一貫性을 附與하는 데 反對

(19)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bid.*, pp. 399-400.

(20) A.W. Coats, "The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the Marginal Revolution of the 1870'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op. cit.*, pp. 303-324.

한다. 왜냐하면 偶然的 機會를 爲始한 수많은 變數들이 그 人間의 活動과 業績의 決定에 作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 그러나 個人史研究에 있어서의 이러한 主觀의 方法에는 資料의 選擇에 있어서 先入主가 들어 갈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資料處理의 客觀性을 維持하기 위한 努力이 要求된은 勿論이다. 方法이 어떠한가에 一部學者는 如前히 卓越한 經濟學者의 個人生活과 그 思想에 관한 研究가 보다 넓은 思想 및 活動의 潮流에 影響을 미쳤다는 點에서 적지 않은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經濟學史研究에 있어서 個人의 生涯와 主要思想에 관한 研究는 補助的 情報은 되어도 主題로는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科學知識의 成長과 專門化過程 같은 보다 넓은 比較社會學的 課題에 關心을 移動시키는 傾向도 있다.⁽²²⁾

네제번으로 「限界主義思想의 時間과 空間을 통한 普及」의 研究는 어떠한 狀況인가? 이 問題는 前記한 環境的 要因이나 專門化의 影響과 關聯되고 있으나 이를 獨立的으로 볼 때 우선 經濟思想의 多樣性, 意思傳達의 時間的 經路, 新思想受容의 尺度測定 등의 困難한 問題가 惹起된다. 一律的으로 新思想이라 해도 學問的인 것과 流行的인 것은 區分되어야 하고 理論的 體系와 政策提案, 그리고 특히 새 思想의 單純한 引用과 眞正한 分析的 採擇過程과는 混同해서 안된다. 마찬가지로 思想受容의 尺度測定에 있어서도 몇 사람인가 하는 人員數로는 不充分하고 누구에 의한 受容인가 하는 質的인 測定이 要求되어 역시 容易한 일이 아니다.

Stigler는 限界効用經濟學의 受容率을 統計表로 표시하여 分析的 科學的 性格을 提高시키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령 「著名」美國經濟學者라는 漠然한 範疇를 對象으로 하는 등 어려운 問題를 提起시켜 주고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難點에도 不拘하고 가령 어떤 思想은 採擇되는데 다른 것은 拒否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어떤 種類의 知的 挑戰이 注目할 新思想을 啓發하고, 새로운 衝擊이 作用하는 時間의 길이는 무엇에 의해서 決定되는가? 歷史家가 追從者보다도 科學的 輿論先導者에게 關心을 集中해야 되는 限度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등의 疑問들은 解明의 必要가 있는 側面이다.

意思傳達의 手段, 意思表現의 樣式 그리고 新思想의 發生時間의 問題가 다음에 登場한

(21)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bid.*, p. 616.

(22) Coats, "Research Prioritie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69, pp. 9-18.

(23) Stigler, *op. cit.*

다. 예를 들면 新思想을 權威있는 科學論著, 論文 또는 專門學術誌에 發表한다는 것은 그만큼 潛在的인 理解對象人口를 制限하게 되지만 우리가 새 科學思想의 採擇과 利用의 문제를 考慮할 때는 關係資料가 안될 수 없고 이밖에도 理論的乃至 科學的 思想의 制度化된 傳達手段인 大學의 講座設定과 學者의 刊行물은 普及過程을 促進할 수도 汨害할 수도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한편 新思想의 受容은 數學的이나 文章的이나 또는 抽象的이나 政策指向的이나 하는 表現樣式의 選擇에도 달렸지만, 關心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問題에 熱中하고 있는 程度에 關係되는 時期의 문제와 科學知識의 現況에도 달려 있다. 萬一 한 思想이 時間的으로 너무 앞서 있을 경우 그것은 無視되거나 忘却될 可能性이 있고, 萬一 그것이 支配的인 正統理論의 後見人에게 無關心하거나 威符의 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重要한 科學的 進歩가 왜 그처럼 흔히 처음에는 젊은 世代에 의해서 歡迎받게 되는지의 理由가 된다. 이렇게 볼 때 經濟學에서의 新思想의 普及 및 吸收過程은 先行하는 理論的 傳統이 있는 나라와 既成의 對立的인 傳統을 가진 나라에서 差異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限界革命에 있어서 ideology의 役割은 어떻게 評價되는가? 資本主義 擁護論이 初期限界革命의 動機와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것은 Blaug의 第四의 方法에 관한 部分에서도 論及한대로이다. 그러나 가령 限界概念이 實際問題에 適用되거나 政策提案의 基礎로 利用될 때는, 原則的으로는 이데올로기上 中立的인데도 어떤 思想的 立場을 은연중 表示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예를 들어 Walras의 경우에서는 自己 著書의 思想의 背景과, 純粹競爭의 概念을 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는 것과는 嚴格히 區分하는데 比하여⁽²⁴⁾ Menger의 보다 公開的인 問題에의 偏向은 經濟過程에 대한 自己의 複雜한 vision을 反映한다. 兩人이 모든 獨斷的 自由主義에는 批判的이었지만 Menger는 Vienna에서의 教授로서의 社會的 地位 때문에 現秩序를 防禦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主張이 있다. 勿論 그래도 擁護論의 特質은 Menger에게보다는 Wieser에게 더 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²⁵⁾

限界主義思想의 起源에 比해서 普及의 段階에는 ideology의 影響이 뚜렷이 確認된다. 가령 伊太리에 있어서는 指導的인 限界主義者들이 反社會主義者가 되었음이 認定되었지만 Barucci는 限界主義가 元來는 伊太리에서 극히 中立的인 路線에서 導入되었음을 確認하고 있

(24) W. Jaffé, *Correspondence of Léon Walras and Related Papers*, 1965, Preface, 1: ix.

(25)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Fall 1972, p. 621.

으나 이 思想이 어째서 바로 財政問題에 應用되게 되었는지는 正確히 究明하기 어렵다고 한다. (26) 한편 이와 對照의으로 日本에서는 限界主義가 意識的으로 反 Marx 主義의 武器로 採擇되었다. (27) 그러나 그렇다면 Marx 主義가 一般的으로 限界主義보다 輸出 또는 輸入이 容易하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Marx 主義의 思想的 要素 때문인가? 萬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經濟理論의 國際間 普及에 대해서는 思想的 要素가 얼마나 影響을 미쳤는가 하는 疑問이 提起된다.

여섯째로, 經濟學의 範圍와 方法의 問題에 관해서는 많은 學者들이 限界革命 동안과 그以後에 있어서 巨視經濟學으로부터 微視經濟學으로 力點이 移行되고 經濟學의 領域이 좁아졌다는 點에 同意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學의 構造變化는 限界主義의 內在的 論理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立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環境論의 假說들이 提示되고 있다. 가령 効用理論은 勞動組合의 戰略에도 利用可能한 것으로서 이것이 專門的 經濟學者를 「아마츄어」로부터 區分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또 經濟學의 領域이 좁아진 것은 限界主義가 없는 경우에도 發生할 수 있었다는 主張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와 같은 環境論의 主張으로는 長期的 經濟成長論의 缺如나 巨視經濟學의 問題를 應用經濟學의 分野로 몰아낸 理由를 說明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問題는 오히려 新思想의 知的 重要性이란 積極的인 角度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령 英國에서 貨金基金說이 衰退되는 過程에서 1890年代까지 分配理論上 「無政府的 空白期間」이 發生함으로써 말미아마 經濟學者들은 分配的 配分の 크기와 傾向을 說明할 수 있는 理論을 開發할 機會과 誘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특히 오스트리學者가 集計的 方法에 否定的이었던 點, Meek가 強調하는 것처럼 合理性의 概念이 限界主義者들에 의해 家計의 문제에까지 擴張되었다고 하는 點, 또는 極大化行爲라는 문제로 經濟學의 力點이 移行되었다고 보는 點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經濟學의 構造에 變化가 일어난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이 問題와의 關聯에서 看過하지 못할 要素의 하나가 經濟學上의 「方法論爭」이다. 勿論 方法論爭은 時期的으로 보아 限界革命의 始源期보다 普及段階와 關聯되지만 (28) 이른바 演繹方法과 歸納方法의 문제는 當時 學界의 非常한 關心거리였

(26) Piero Barucci, "The Spread of Marginalism in Italy, 1871-1890,"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bid.*, pp. 512-532.

(27) T. Matsuura, "Marginalism in Japan," *op. cit.*

(28) 方法論爭은 Carl Menger, *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 Ökonomie insbesondere*, 1883에서 飛火되기 시작했다.

던 만큼 方法論爭의 視角에서 限界革命을 檢討한다는 것도 價値있는 情報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三

本章에서 우리는 Mark Blaug의 見解와 Bellagio會議의 成果를 中心으로 限界革命의 始源 및 普及過程에 관한 研究方法上의 諸問題를 省察했다. 限界革命은 앞서 指摘한 것처럼 革命의 性格論에서 시작하여 環覽論, 傳記論, 普及過程, ideology論, 方法論 등 多角度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確認했으며, 이러한 多角的인 檢討過程에서 우리는 本論文에서 提起해온 諸論點이 經濟學說史上 어떠한 位置와 性格을 가진 것인지를 透視해 볼 수 있는 것이다.

本論文 I章에서 우리는 限界革命의 經濟學說史的 問題點을 摸索하여, 첫째 限界革命이 單獨의인 諸發見의 偶然的 同時性에 의한 것인가,不然이라면 經濟學發展의 內在的 原因에 의한 複合的 發見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둘째, 限界革命이 Kuhn의 paradigm의 移行이라고 한다면 그 內容이나 先行思想과의 關係가 무엇이며, 또 그 移行의 速度로 보아 1871年이라는 特定時點에 限定된 事件으로 볼 것인지不然이면 이때를 起點으로 一代동안 展開된 하나의 過程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의 疑問點과, 세계로는 限界革命의 始發에서 그 完全한 受容에 이르기까지 相當한 時差가 벌어진 다시 말하여 限界主義概念의 經濟學上의 定立이 遲延된 理由가 무엇인지, 그것은 經濟學의 專門化過程과 關係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 때 經濟學의 專門化란 무엇을 基準으로 判定하는지 등이 問題點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判明했다.

II章에서는 限界主義概念, 또는 그 用語가 經濟學上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定立되어 갔는가, 다시 말하면 그 普及過程을 論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새 概念의 始源은 Jevons, Menger, Walras에 의해서 1860年代에서 1870年代는 사이에 發端되었다고 하는 通說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概念의 專門用語인 限界主義(Marginalism)가 確立된 始初는 겨우 1914年 Hobson에 의해서였고, 限界效用(marginal utility)이란 用語도 처음에는 最終效用(final utility), 末端效用(terminal utility), rareté, Grenznutzen, 集約的 効用, 最終欲望의 強度 등으로 불리다가 겨우 1888年에 Wicksteed에 의해서 처음으로 使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限界分析은 經濟學의 一般教科書에도 通用되기 시작하지만, 1908年에 Ely에 의해서 비로서 限界分析이 限界效用分析뿐만 아니라 「限界生産力」分析까지 包括하게 되었고, 이 兩分析概念을 統合한 名稱으로 「限界主義」가 誕生한 것이 前記한 대로

1914年 Hobson 에 의해서였으며, 1930年代 以後 特히 Hicks, Allen 그리고 Keynes, Robinson, Chamberlin 등에 의하여 限界分析의 擴大 및 그 一般化가 實現되기 시작한 것이다. 限界主義의 普及過程을 이렇게 본다면 그 速度가 얼마나 徐行이었는가를 確認할 수 있다.

III章에서는 限界革命의 內容 또는 그 成果를 先行하는 古典派經濟學과의 構造比較란 見地에서 對比 略述하고 革命을 擔當 推進해 나간 新主角인 Jevons, Walras, Menger 의 評傳的 分析을 試圖했다. 우선 1節의 限界革命의 內容 또는 成果란 結局 新古典派經濟學의 性格構造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첫째 經濟學의 本質이 一定한 生産用役이 消費者의 極大滿足을 實現하도록 하는 最適配分의 條件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하는 뜻에서 古典學派와 判異한 「出發點」을 提供하게 되었고, 둘째는 經濟學에 있어서 「數學」의 重要性을 強調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限界概念 自體가 數學의 概念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極大化原理」의 適用으로서 制限된 一定手段을 競合의 用途사이에 配分하는 最適의 方法은 限界價値의 均等化에 있고 이 最適條件을 保證하는 것은 限界効用 또는 限界生産力의 遞減法則이 作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넷째로는 「價値論과 分配論」에 대한 統一的 原理의 貫徹이라 하겠는데 要因價格이든 生産物價格이든 終局的으로는 消費者의 欲求 즉 限界効用に 의해 시 決定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에 限界革命의 主角에 관한 傳記的 評價에서 2節에서는 Stanley Jevons 를 論하고 있는데 첫째, Jevons 는 經濟學의 傳統이 강한 英國의 背景에 대한 反抗意識이 透徹했다는 點에서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을 經濟學(economics)으로 또는 巨視經濟學을 微視經濟學으로의 paradigm 의 移行을 實現함에 革命性이 강한 印象을 주고 있다. 둘째로는 自然科學의 修練을 바탕으로 數學的 思考 및 方法을 經濟學에 導入함에 寄與가 컸으며, 셋째로 Jevons 는 經濟學의 未來像에 관해서 經濟理論의 純粹性, 嚴密性, 論理性, 科學性을 強調하면서도 그것은 各種 應用經濟學 특히 統計的 計測·檢證에 의한 實證的 補完이 必要함을 力說했고, 넷째로 그렇기 때문에 Jevons 의 經濟學研究活動은 初期의 價値論研究보다 政策문제에 대한 發言에 어느 意味에서 더 重要하게 되었는데 이 傾向은 自己의 數學的 基礎를 가진 新 價値理論의 受容이 어렵게 된 데 대한 反動으로도 解釋되고 있으며, 다섯째로 그의 數理經濟理論은 Bentham 의 功利主義 또는 快樂主義의 要素의 強調로 因하여 Walras 가 期待한만큼 透徹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3節의 Léon Walras 에 관해서 우리가 確認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는 自明의 觀點에서 交換과 生産에 있어서 自由競爭의 「自然的이고 必然的인」 歸結로서의 價格決定

mechanism 을, 生産物의 量 그 價格 및 生産用役價格이란 세가지 變數에 관한 交換方程式의 解에서 얻을려고 하여 純粹經濟學의 物理學 乃至 數學的 性格을 確立하였으며 둘째, 이와 같은 競爭의 市場機構를 움직이게 하는 基本動力이 rareté 또는 限界効用의 原理에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限界効用概念을 消費行爲에 있어서의 心理學的 乃至 生理學的 또는 社會學的 側面에서 보지 않고 純粹한 交換의 側面에서만 보기 때문에 Walras 에게 있어서 經濟學은 交換學이 되고 있으며 세째, Walras 는 이 基礎的인 rareté 概念의 重要性에 관한 問題意識을 父親 Auguste Walras 에게 물려받아 이의 數量概念化를 위한 長期間의 迂餘曲折 끝에 이를 微分係數概念으로 把握함으로써 限界分析의 數理的 理解가 비로소 可能하게 되었는데 네째, 이처럼 諸商品의 rareté 가 그 市場價格에 比例關係에 있다는 基本定理을 發見케 하여 Walras 로 하여금 다루기 쉬운 限界効用概念을 抽出해 낼 수 있게 만든 것은 力學教授 Piccard 의 寄與있다고 볼 수 있으며 Walras 가 이같이 簡單한 分析手段을 獨力으로 찾아내지 못한 것은 그 自身의 數學知識 특히 微積分學에 관한 知識이 不足한데 原因이 있었고 그가 理科系中等教育을 받았는 데도 그랬던 것은 그 個人的 工夫不足보다는 當時까지 微積分學에 관한 適切한 教材와 마다하여 이 面의 教育도 不充分했던 데 原因이 있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에 관한 初步的 教材가 나온 것은 1860年이었으므로, 1870年代初에 限界革命이 3個國에서 거의 同時點으로 突發한 것 같아 된 것은, 이처럼 微積分學의 知識이 純數學者나 物理學者들의 秘法임을 벗어나 知識人의 教養的 水準으로 一般化되었던 때와 關係이 있는 것 같다.

第四節의 Carl Menger 의 限界効用革命에 대한 功績에 관해서는 첫째, 그가 限界主義者라기 보다는 徹底的 主觀主義者였다는 點 즉 限界概念의 理解보다는 効用概念 乃至 主觀價值論에 置重하여 數學的 比重이 本質的으로 낮아졌으며 둘째, 그럼에도不拘하고 Wieser, Böhm-Bawerk 등 後繼者들에 의한 오스트리아學派가 形成된 것은 그의 學問的 感化以外에도 個人的 位置의 影響力이 크게 作用하였던 데이므로 後繼者들이 그로부터 벗어날수록 限界主義者가 되었던 것이며 세째, Menger 는 統一된 價格理論을 創案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經濟學을 基本的으로 情報理論이라고 表現할 만큼 主觀價值論을 強調하여 商品價值를 爲始하여 消費財量, 技術進步, 企業家, 生産過程 등 一切가 人間福祉와 物質에 관한 「情報」의 量·質 및 그 內容에 관한 問題로 還元된다는 것이며 네째, 그렇기 때문에 Menger 는 資本의 集計值를 不信한다는 點에서 現代의 資本理論論爭에서의 Joan Robinson 과 一脈相通하고 있으며 다섯째, 價格理論에 있어서도 不確實性的 要因에 의하여 完全한 價格決定論이 없고 契約이나 「摸索過程」이 存在한다 해도 價格衝突에 의한 價格 range 의 接

近이 있지 一物一價의 法則이나 正確한 均衡點 自體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섯째, 그러나 Menger의 이처럼 徹頭徹尾한 主觀主義 乃至 情報理論의 接近方法은 客觀的 資料의 뒷받침이 없으면 具體的 分析을 期待할 수 없는 것이며 後繼者들에 의해 어느정도 限界主義化에의 進展이 있었으나 Menger의 本質的 特質은 強하게 남게 되었다.

第四章에서는 限界革命에 의하여 經濟學의 範圍와 方法에 어떠한 構造變化가 發生하게 되었는가를 考察하여 첫째, 限界革命은 經濟學을 art에서 rigorous science로 轉換하여 經濟現象의 本質的 理解를 可能하게 한 科學의 進歩라고 보는 見解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이것이 經濟學의 後退라고 보는 見解가 對立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이런 進歩·退步의 價値 判斷 보다 古典派와 新古典派 또는 主役들 相互間의 差異點을 中心으로 본다. 둘째, 3人의 主役들은 經濟學을 純粹科學과 應用科學으로 分離하여 經濟理論의 範圍를 좁힌 것 같지만 限界原理의 普遍妥當性이란 면에서는 오히려 넓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歷史學派에 批判的이라는 點에서 共通點을 가진 反面에, Menger는 經濟學의 理論的 研究와 歷史的·統計的 研究의 不相容性을 強調하여 抽象理論의 歸納檢證에 의한 補充의 可能性을 否認하고, 經濟現象의 相互依存性보다 그 發生的 因果關係를 重視하며 數學의 適用可能性을 否認함으로써 Jevons 및 Walras와 差異가 난다. 셋째, 嚴格히 볼 때 理論·實際, 實證·規範의 區分은 古典派經濟學者들도 하고 있었으므로 純粹·應用的 區分을 強調하는 新古典派와의 差異點을 論함에 難關이 있으나 制度·歷史를 超越하는 論理로서 稀少性下의 極大滿足條件을 追求한다는 論理의 一貫性과 普遍妥當性은 經濟學의 射程距離를 延長시킨지언정 短縮시킨 것이 아니라는 見解도 成立된다. 넷째, 그러나 人口成長을 비롯한 生産要素 供給의 變化를 體系外로 假定하여 經濟成長論을 排除하고 稀少성과 交換價値의 문제에 集中하게 된 新古典派經濟學은 分配理論도 最終財貨의 價格理論의 단순한 延長으로 取扱함으로써 經濟學의 領域을 좁혀 놓은 것은 否認치 못한다. 다섯째, 다만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制度的 諸側面과 關聯되고 이것이 經濟理論의 區分되지 않는 點에 대하여 純粹理論의 獨自性을 維持하려면 이와 같은 政策的, 制度的인 것과 關聯되는 諸側面은 應用經濟學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結論적으로 볼 때, 限界革命이 Kuhn이 말하는 paradigm의 變革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내해서는 論議의 餘地가 있지만, 우리는 Jevons, Menger 및 Walras의 貢獻이 經濟理論의 發展에 眞正한 里程碑 乃至 突破口가 되었다는 點은 否認할 수 없다. 勿論 이들 3인에 관해서는 類似性보다도 오히려 差異點이 強調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生産費價値說을 拒否하고 모든 購入商品의 限界效用이 그 價格에 比例하는 消費者均衡을 強調한 點에

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價格에 대해서 供給의 영향보다 需要의 要素를 重視하고 巨視的 理論을 微視的 理論으로 代替했으며 實際問題에 대한 應用보다 理論分析 自體에 集中함으로써 經濟學의 領域을 어떤 意味에서는 좁혀 놓았고, 價値理論과 分配理論을 調和시켰으며 數學의 利用에 의한 經濟學의 精密化를 促進시켰던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內容의 限界革命의 成果가 經濟學의 體系속에 裝置化되기까지는 적어도 四半世紀 또는 그 以上の 時間이 必要했던 것이다.